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문학박사학위 논문

숙련된 상담가의 비행청소년 상담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타자성 실천을 중심으로

A Narrative Inquiry on the Counselling Experience for Juvenile Delinquents by Experienced Counselors: Based on the Practice of Otherness

2024년 2월

인하대학교 대학원

인문융합치료학과

정 화 정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문학박사학위 논문

숙련된 상담가의 비행청소년 상담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타자성 실천을 중심으로

A Narrative Inquiry on the Counselling Experience for Juvenile Delinquents by Experienced Counselors: Based on the Practice of Otherness

2024년 2월

지도교수 김 영 순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인하대학교 대학원

인문융합치료학과

정 화 정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이 논문을 정화정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정함.

2023년 12월

주심 _____

부심 _____

위원 _____

위원 _____

위원 _____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숙련된 상담자의 비행청소년 상담 경험을 이해하고, 그 경험이 비행청소년 상담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비행청소년 상담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상담자의 역할에서 상담자의 정체성 확립을 돕고자 한다. 또한, 비행청소년 상담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을 제공함으로 상담자의 전문적 성장에 필요한 교육설계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연구의 시작은 비행청소년을 상담하는 상담자인 연구자가 상담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경력이 많은 상담자라면 어땠을까?' 라는 호기심이었다. 연구자는 다분히 관계적이고 참여적인 방법으로 연구참여자들의 개인적 지식과 전문적 지식이 어떻게 구체화 되는지 다루기 위해 내러티브 탐구를 연구방법으로 선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퍼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연구퍼즐은 '1. 숙련상담가들은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2. 숙련상담가들의 비행청소년 상담 경험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다.

연구참여자는 숙련 단계 상담자들로 비행청소년 상담 경력이 10년 이상이며 전체 상담사례에서 비행청소년 상담이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5인이다. 연구참여자 A는 상담 경력 14년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소속 상담사로 일을 하다가 최근 센터장이 되었다. B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팀장으로 일을 했으며 상담 경력은 14년이다. 그는 최근 대학의 상담센터로 이직하였으나 비행청소년 상담을 지속하는 상태이다. C는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며, 상담 경력 24년으로 15년 이상 소년원에서 집단치료를 했으며 이후에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상담하였다. D는 프리랜서 상담사로 상담 경력 12년이며, 법원과 경찰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비행과 관련된 강의와 상담을 하고 있다. E는 D와 같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 최근 코로나로 인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속 직원이 되었으며 경력은 12년이다. 자료수집은 2022년 11월 18일부터 2023년 3월 17일까지 이루어졌다. 면담은 서면면담 1회와 심층면담 2회로 진행하였고 면담 시간은 120분에서 180분이었다.

첫 번째 연구퍼즐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는 Ⅳ장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의 내러티브는 '상담자의 정체성 찾아가기' 이다. 그의 경험은 '손가락만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빨던 찌질이의 변신’, ‘안전한 상담을 위한 안정된 환경’, ‘교육가와 상담자 그 사이의 혼란’, ‘하나의 씨앗이 될 수 있다면’, ‘여전히 쉽지 않은 상담’, ‘나는 괜찮은 상담자인가?’로 분석되었다. 그는 비행청소년 상담을 시작하면서 비행청소년들은 ‘왜 그럴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그는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교육자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아이들과 멀어지며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꼈다. 그는 숙련 단계가 되어가면서 비행이라는 이름에 가려진 아이들의 진짜 삶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들의 행동도 수용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내러티브에서 좋은 상담자가 되고자 했었던 자기의 역할 정체성을 찾아갔다.

B의 내러티브는 ‘임상에서 배운 나만의 철학’이다. 그의 경험은 ‘실망이라는 무기를 휘두름’, ‘100개의 칼자국과 90%의 좌절’, ‘답을 찾아가는 아이들’, ‘25일의 심판과 새로운 도전’,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근사하지 않으면 어때요?’로 분석되었다. 그는 한때 비행청소년이었던 자기의 경험이 어떠한 성찰을 거쳐 상담자가 되게 했는지를 이야기하며 자신의 과거 경험이 상담자로서 비행에 대한 철학과 태도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C의 내러티브는 ‘새로운 인생의 드라마’이다. 그의 경험은 ‘이해의 무게에 짓눌림’, ‘참담한 현장 속에 피어나는 희망’, ‘교양을 버리고 시선을 맞춤’, ‘정체성과 역할의 혼란’, ‘걱정과 불안이 슬럼프가 되다’, ‘다른 세계를 통해 나를 돌보다’의 주제로 분석되었다. C는 내러티브를 구성하며 남들 보기에 평범한 삶이었지만 내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자기의 삶이 상담을 통해 달라졌다고 밝혔다. 그는 자기의 삶이 달라진 것처럼 아이들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지속하였다.

D의 내러티브는 ‘반복된 소진의 무게’이다. 그의 경험은 ‘혼란에서 찾은 상담자의 길’, ‘모호한 윤리와 책임에 허덕임’, ‘희망을 품은 백조의 발길질’, ‘익숙함에도 찾아오는 두려움’, ‘역할의 한계에서 찾아낸 지혜’, ‘좌절의 늪에 빠진 무기력한 수호자’의 주제로 분석되었다. 그는 최근 심각한 소진으로 위기를 겪고 있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일을 놓지 못했다.

E의 내러티브는 ‘상담으로 이룬 화해’이다. 그의 경험은 ‘센터장에서 초심상담자로의 전환’, ‘내 안에 욱이 아이들의 분노를 이해함’, ‘배신감으로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돌아온 장학금', '반복되는 거절에서 살아남기', '김장하러 가는 아이의 뒷모습', '상담의 시간만큼 늘어난 성찰'의 주제로 분석되었다. 그는 상담을 통해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어린 시절 상처에서 회복하고 가족과의 화해를 경험했다. 그는 아이들도 상담을 통해 자기와 같은 경험을 하도록 도왔다.

두 번째 연구퍼즐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는 Ⅴ장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Ⅴ장은 숙련상담가들의 비행청소년 상담에 나타난 경험의 의미가 어떠한가를 탐색한 결과이다. 숙련상담가의 비행청소년 상담에 나타난 경험의 의미는 '이해와 공감', '무한의 존중', '연대와 협력'으로 나타났다. 이해와 공감은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참여자들의 인식 변화와 공감의 의미를 담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가해자라고 불리는 청소년들의 삶이 피해자로서 살았던 삶과 교차하는 지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후 연구참여자들은 비행청소년의 어려움과 요구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 무한의 존중은 상담자들이 상담 과정에서 소진을 경험하면서도 내담자들의 독특성과 개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치와 잠재력을 믿으며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참여자들은 비행청소년들과의 상담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비행청소년과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온전하게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내담자의 세계를 상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충분히 존중받으며 자기의 힘으로 변화를 일으키도록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연대와 협력은 청소년 비행을 부모의 일방적으로 책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는 점을 시사하였다.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적 정당화, 실제적 정당화, 사회적 정당화의 맥락에서 결론을 논의하였다. 첫째, 연구자의 개인적 정당화는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어려움을 겪은 연구자가 숙련상담자들의 경험을 호기심으로 탐닉한 것에서 시작하였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 비행청소년 상담의 개인적 지식과 전문적 지식을 보다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실제적 정당화는 본 연구에 대한 실천 가능성의 논의이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기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 경험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주목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경험들 속에서도 서로가 합의되는 상담 현장의 소리를 전달했다. 결과는 '정책의 지원', '통합적 돌봄', '전문인력 양성'의 주제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정당화는 비행청소년을 상담하는 상담자의 전문성과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감소를 위한 교육, 청소년 비행의 예방을 위한 이론을 제공했다. 비행청소년을 상담하는 상담자들은 상담자의 처우 문제와 법적 규정의 부재로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의 고충을 보여주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질 높은 상담을 위해서는 전문성 인정과 보상체계, 근무환경, 행정지원의 영역에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비행청소년들이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발견했고, 감정 인식 및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 예술 교육, 스포츠 활동,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잠재력을 펼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행을 심각도에 따라 세분하여 연구한다면 비행 유형별 전문성 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둘째, 10년 이상 경력의 상담자가 아닌 상담 경력별 참여자를 모집한다면 상담자의 발달단계에 따른 차이를 더 확연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타자성을 연구자의 이론적 렌즈로 가져왔으나, 비행에 대한 다양한 상담적·철학적 렌즈를 활용한다면 더욱 새로운 관점에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연구자도 비행청소년을 상담하는 상담자로서 내부자적 관점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 외부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수행된다면 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어: 비행청소년, 소년범, 상담, 상담자, 숙련, 경력, 내러티브 탐구, 공존, 타자성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목 차

국문초록 ····· i
목 차 ····· v
표 목차 ····· vii
부록목차 ····· viii

Ⅰ. 서론 ····· 1

1. 나의 내러티브 ····· 1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7
3. 연구퍼즐 ····· 12
4. 연구동향 ····· 13

Ⅱ. 이론적 논의 ····· 17

1. 비행청소년에 대한 이해 ····· 17
2. 비행청소년과 상담 ····· 23
3. 상담과 타자성 ····· 28
4. 소결 ····· 38

Ⅲ. 연구방법 ····· 40

1. 내러티브 탐구 ····· 40
2. 연구절차 ····· 41
3. 연구의 윤리와 신뢰성 ····· 48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Ⅳ. 비행청소년 상담 경험 이야기하기 ····· 50

1. 연구참여자 A의 내러티브: 상담자의 정체성 찾아가기 ····· 50
2. 연구참여자 B의 내러티브: 임상에서 배운 나만의 철학 ····· 58
3. 연구참여자 C의 내러티브: 새로운 인생의 드라마 ····· 67
4. 연구참여자 D의 내러티브: 반복된 소진의 무게 ····· 76
5. 연구참여자 E의 내러티브: 상담으로 이룬 화해 ····· 85
6. 소결 ····· 93

Ⅴ. 상담자의 비행청소년 상담 경험의 의미 ····· 95

1. 이해와 공감 ····· 96
2. 무한의 존중 ····· 103
3. 연대와 협력 ····· 111
4. 소결 ····· 118

Ⅵ. 결론 ····· 120

1. 요약 ····· 120
2. 논의 ····· 126
3. 제언 ····· 136

Ⅶ. 에필로그 ····· 137

참고문헌 ····· 139
ABSTRACT ····· 160
부록 ····· 166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표 목차

<표 Ⅲ-1> 연구참여자 소개 ····· 42
<표 Ⅲ-2> 연구참여자별 면담 일정 ····· 45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부록 목차

<부록 1> 연구설명문 및 참여 동의서 ····· 166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Ⅰ. 서론

1. 나의 내러티브

질적연구에서 연구자인 '나'의 경험과 철학적 관점은 연구의 방향뿐 아니라 연구참여자에 대한 관찰 및 해석에도 영향을 준다. 독자에게 전달하는 연구자의 렌즈를 이해하는 것은 연구물의 객관성을 높여주며 연구자의 개인적 이야기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의 도출 과정을 이해하는 것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질적연구는 기존에 존재하는 이론에 대한 설명이 아닌 새로운 앎과 이해를 목표(Creswell, 2021: 95)로 하기에 연구자 또한 독자와의 대화로 연구를 펼쳐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자의 자서전적 내러티브에서 '나'는 방황하던 청소년기에서 상담자가 되기까지의 개인적 동기 경험과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상담자로서의 변화 과정을 기술하였다. 나는 청소년기에 '상담'을 알았다면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에 대한 아쉬움에 결핍을 채우듯 내가 필요로 했던 '상담자'의 길을 선택하였다. 나는 현재 유능하다고 인정받거나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상담자가 아니다. 오히려 성인이 되어서도 해결되지 않은 나의 문제로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 뒤늦게 직업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내가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두게 된 기억을 따라가다 보면 홀로 외로움과 슬픔을 경험했던 청소년기의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된다. 지독했던 청소년기의 방황은 가깝게 지내던 친구의 죽음에서 시작하여 대학입시와 취업 등 현실적인 문제가 더해지며 쉽게 끝나지 않았다.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슬픔보다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경험되었고 남아 있던 친구들은 반복되는 슬픔에서 도망치듯 서로에게서 멀어져 갔다. 나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살아갔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드러내면 안 될 것 같은 나의 감정의 덩어리들을 품고 살았다. 그러다 우연히 게임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게 되었고, 게임 홍보를 위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인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생의 전환을 맞았다. 나는 괜찮다고 밀어놓았던 과거의 사건이 아직도 나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인생의 뒤엉킨 실타래가 풀어지는 것 같은 해방감을 경험했다. 이후 나는 학부를 편입하고 석사과정을 거치면서 상처 입었던 어린 나의 회복을 통해 지난 시간을 애도할 수 있었다.

나는 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 집단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연극, 미술, 동작 등의 매체를 활용한 상담 방식을 수련받으며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였다. 나는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자기의 긍정적인 자원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일에 대한 보람을 크게 느꼈다. 특히 정신장애를 지닌 청소년들과의 만남은 나를 정화하는 시간이 될 만큼 의미가 있었다. 정신과 병동에서 만난 청소년들이나 치유형 대안학교 청소년들과의 상담 경험은 이후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당시 나는 동료 상담자들과 도움을 주고받고자 슈퍼비전을 자주 가졌는데 그때 우연히 경찰서에 연계된 특별교육[1]을 제안받게 되었다.

나는 특별교육을 하기 전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직업상담을 했었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비행청소년들을 만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많은 정보를 수집해 미리 공부도 했다. 교육은 큰 강당에서 이루어졌는데 빈 책상과 의자 사이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십여 명의 다양한 아이들이 섞여 앉아 있었다. 나는 비행 행동의 처벌로 이곳에 와 있는 아이들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고개를 뒤로 젖힌 상태로 다리를 쫙 벌려 앉아 힘을 과시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귀엽기도 했다. 나는 아이들을 한곳으로 모아 인사를 나누고 가볍게 시작하기 위해 도화지에 자신의 이름을 꾸미도록 시간을 주었다. 그러자 초등학생 몇 명이 도화지에 성기와 정액을 그려 넣고 실제 자기보다 작다며 킥킥거렸다. 아이들의 행동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어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해 지적하자 학생들은 화가 가득 찬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며 “이 미친년이”라고 욕을 내뱉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변해버렸다. 그때의

1) 폭력, 절도 등 범죄나 비행으로 인해 경찰조사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을 선도하여 재비행 방지를 위한 맞춤형 선도프로그램이다. 보호자와 청소년이 사랑의 교실 입교에 동의한 경우 해당 경찰서에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전문선도기관에 의뢰하여 다양한 인성교육 및 재범방지 교육을 실시한다(청소년백서 2021: 671. 여성가족부).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경험은 한동안 나를 스스로 돌아보게 만든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왜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지?'

스스로 던진 이 질문은 나를 너무나 부끄럽게 만들었다. 아이들은 그저 자신을 받아주는 누군가를 찾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 순간 나는 실망스러운 관계 경험을 주었던 어른 중의 하나로 '어른들은 다 똑같아' 라는 증거에 한몫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반성보다는 프로그램을 망쳤다는 생각에 사업담당자 보기가 부끄러워 숨어다녔다. '능력 없는 치료사' 라는 뒷말이 들리는 것 같아 몸이 움츠러들었고 아이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불쑥 올라오기도 했다. 나는 그 사건 이후 비행청소년 상담이 두려워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고 싶은 마음과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잘해보고 싶다는 오기가 발동했다.

나는 상담자로서 부족함을 직면하고 화끈거리는 얼굴을 감싸며 범죄상담을 공부하여 관련 자격을 취득했다. 다행히 운이 따라주어 준법지원센터에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준비하면서 잘못한 점을 반성하고 새로운 상담 기술도 배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 약간의 긴장과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사례를 받기 시작되자 그동안 무슨 준비를 했던 건지 의심이 들 정도로 달라진 게 전혀 없었다. 내 연락처를 안 이후로 일부러 연락을 피하는 아이에게 전화와 문자를 반복하며 약속을 정해야 했고 약속 날이 되어 전화기가 꺼져 있으면 집 앞에서 내내 기다리다 돌아와야 했다. 나는 아이들과 시간을 정하고 한번 만남을 갖는 것 자체가 상담의 성공일 정도로 실패와 좌절의 연속에 머물러 있었다.

"나하고 정말 안 맞는 게 아닐까? 포기하는 것도 방법인데 왜 꼭 이렇게 하려고 하지?"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했지만, 이전과 하나도 달라진 점이 없다는 생각은 상담자로서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 나하고는 맞지 않는데 하겠다고 덤비는 것 자체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가 미련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유 없이 무시당하는 것에 화가 나기도 했다. 이미 잘하고 싶다는 마음은 꺾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으로 바뀌었고 '이 아이까지만' 이라는 주문으로 간신히 버텨갔다. 아이들이 만나주지 않아도 집 앞으로 찾아가 기다리고 있다가 집에 들어가는 순간 만나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는 아이를 태워다주는 기사 노릇을 하기도 했다. 때때로 '내가 뭘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아이들을 만나는 횟수와 기간이 늘어나면서 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부모는 모두 떠나고 삼촌에게 얹혀살고 있으나 그 삼촌은 심각한 게임중독으로 식사나 위생에 신경을 써줄 수 없는 아이의 사례, 술을 마시고 오면 욕설을 서슴지 않는 아버지와 사는 아이의 사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부모 밑에서 지속해서 비행을 통해 사랑을 확인하려는 아이의 사례 등 상담자로서 어쩌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했다. 그리고 아이들도 각자의 사정으로 상처를 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쉽게 화났던 마음이 미안해졌다.

나는 상담자 이전에 한 사람의 어른[2]으로 아이들이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할 수 없다는 책임감에 뭔가를 해야만 했다. 하지만 뜨거워진 사명감을 책임지기에는 아무런 방법도 알지 못했다. 나는 아이들을 만났을 때 집에 엄마가 없다고 하면 반찬을 챙겨주고 밥을 못 먹었다고 하면 식당에 데려가 밥을 먹였다. 상담사례는 늘었지만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았다. 그리고 약속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다 보니 하루에 2명만 만난다고 해도 대기하고 이동하면서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었다. 아이들도 나를 어느 정도 파악한 이후에는 친구들을 우르르 데려와 같이 밥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등 돈을 내주는 사람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동으로 오라고 말하고는 상담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연락을 하자 갑자기 친구들을 만나 □□□동으로 왔으니 이리 오라며 자기들의 편이대로 약속을 바꾸었다. 나는 3년 이상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내가 아이들에게 하는 방식이 도움이 되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이러한

2) 일반적으로 어른이란 학교 내의 선생님이나 학교 밖의 각종 청소년시설의 선생님, 이웃 어른, 멘토 등을 일컫지만(임선아, 2018), 온전히 기능하는 인간으로서의 어른은 나이나 지위, 항렬보다 지속적인 성장과 끊임없는 성찰로 형성된다(유승래, 고홍월,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어른은 자신을 성장시키고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를 의미한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행동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불편한 내 마음에 대한 보상일 뿐이었다.

나는 아이들과 나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서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시간이 지나고 사례가 쌓여가며 생활에 변화를 보이는 아이들이 생겨났다. 사람들과 단절되어 방에서 나오지 않던 아이가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어른들을 피해 폐가를 찾아다니며 싸움만 하던 아이가 그래도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기도 하였다. 한번 만나기도 어려웠던 아이가 명절이 되었다고 감사 인사를 보내올 때면 그동안의 수고가 모두 보상받는 것 같았다. 그러나 성실하게 상담에 임하던 아이가 재범으로 인해 연락이 끊기고 갑작스러운 가출이나 임신 등으로 상담자를 피해 다니는 모습을 볼 때면 여전히 상담자로서의 실패감이 느껴졌다. 나는 그럴 때면 '내가 아니라 경력이 좀 더 많은 유능한 상담자를 아이가 만났다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밀려왔다.

> 청소년: 선생님 여기 너무 맛있어요. 소년원에서는 이런 거 못 먹잖아요. 이제 알바하니까 자주 먹어야죠. 근데 저 소년원에서 검정고시 다 해서 이제 대학도 갈 수 있어요.
> 상담자: 너무 대견하다.
> (며칠 뒤 가출로 연락이 되지 않았다가 3주 만에 통화가 됨)
> 상담자: 연락이 안 돼서 정말 많이 걱정했어. 무슨 일 있니?
> 청소년: 선생님 저 임신이라서 친구들하고 수술 알아보고 있어요. 아빠가 알면 안 되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나는 반복되는 상심에서 상담자로서 자신감이 완전히 부서지는 경험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료들과 깊은 고민을 나누고 슈퍼비전을 받기도 했다. 그러면 그 순간에는 답을 얻은 듯 잠시 가벼워짐을 느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뿌리 없는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불안함을 지울 수 없었다. 나는 주변의 상담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박사과정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다. 현실적인 상황을 본다면 무리한 선택이었지만 대학원 수련 과정의 인문학적 성찰은 상담자로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나를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특히 인간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따라 공존에 차이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를 보인다(김영순, 2017: 74)는 교수님의 지도는 내가 그들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고 그들을 나의 세계로 끌어오려던 욕심을 돌아보게 하였다. 나는 내가 욕심이 없고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진정한 타자성은 타자를 존재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지나치게 아이들에게 맞춰주었던 나의 방식이 얼마나 이기적인 행동이었는가를 성찰하게 되었다.

나는 나를 이해하고서야 조급함에서 벗어나 온전히 아이들을 인정하고 만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 상담 경력이 많지 않았던 내가 비행청소년 상담을 시작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경험 속에서의 성찰 과정을 돌아보며 '상담 경력이 더 쌓여 숙련상담자가 된다면 비행청소년 상담은 어떻게 달라질까?' 라는 호기심과 과연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담이 편하고 익숙해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숙련상담자들의 경험을 알고자 하는 이유는 내담자들이 상담자를 만나 변화하듯이 상담자도 내담자들을 만나고 경험이 쌓이면서 달라진 점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다. 상담은 혼자가 아닌 현존재인 인간이 타인과 함께 공존하는 세상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 비행은 청소년기로 끝나지 않고 고착화·습관화되어 성인기까지 이어지며 상습 범죄가 될 수 있다(이완희, 유완석, 2014: 221). 그러나 여러 요인으로 위기에 노출된 청소년기를 보냈어도 그러한 위기 경험을 성장의 동기로 활용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에게는 공통으로 부모가 아니어도 삶에 찾아온 위기의 순간에 그들의 손을 잡아 준 의미 있는 타자 즉 '대체 부모' 혹은 '역할 모델'이며 '가족의 역할 모델'인 타자와의 접촉이 있었다(장선숙, 2019).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인식은 특별한 상황이나 개인의 신념 같은 것으로 결정된다(Heider, 1958). 즉, 특정한 환경에서 경험되었던 타자와의 관계 경험은 이후 또 다른 사회적인 관계 경험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왔는지와 관계없이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 본 공존의 경험은 우리가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한 바탕을 만든다(송은미, 2005: 43). 비행청소년들에게도 이 같은 공존의 경험은 자기 정체성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어 행동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상담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활과제를 해결하고, 사고·행동·감정 측면에서 인간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학습 과정이다(이장호, 2011: 3). 청소년 상담은 청소년의 급진적 신체 발달과 미숙한 관계 기술 및 학업 스트레스 등 청소년만의 독특한 발달적·상황적 특성으로 상담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효과 또한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나하주, 한영주, 2017; 최인화, 2007). 더욱이 비행청소년 상담은 일반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문제와 더불어 정신적·심리적·행동적 문제가 더해져 또 다른 특성과 어려움을 나타낸다(이윤희, 2015; 조순아, 2021). 따라서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성공적인 상담을 이루려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김지민, 손진희, 2017: 34).

2022년 2월 25일 넷플릭스에서는 무면허 추돌사고, 집단 성폭행, 시험지 유출 등 소년법과 형사미성년자의 실제 사건[3]을 모티브로 「소년심판」이라는 드

3) 1~2회는 2017년 3월 29일 '인천 연수구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5~6회는 2018년 7월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7~8회는 2020년 3월 29일 '대전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 추돌사고'와 2017년 9월 10일 '강릉 여고생 무면허 운전 추돌사고', 9~10회는 2015년 10월 8일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과 2018년 2월 25일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라마가 방영되며 큰 화제를 일으켰다. 이 드라마는 우리가 소년범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2022년 12월 30일 학교폭력을 소재[4]로 다룬 「더 글로리」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 소리를 내었다. “모든 예술작품은 그 시대의 아들이며, 때로는 우리 감정의 어머니이다”라는 바실리 칸딘스키(Kandinsky, 2019: 17)의 말처럼 현대사회의 문화 콘텐츠는 지금 우리 사회의 주제와 철학을 담고 있다. 드라마 속 강력한 범죄를 짓고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가해자들의 묘사는 지금의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반응을 여과 없이 표출하며 강력한 처벌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대변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물질 중심의 가치관과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 속에서 올바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한 채 실존적 가치와 존엄성, 삶의 궁극적 의미를 놓치고 있다(최현주, 2020: 77). 다변화된 생활양식에 따른 낮은 공감 능력과 개인주의 성향은 사회적 관계 기술을 발달시키지 못했고, 미숙한 관계 기술은 범죄로 이어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저연령화・집단화・조직화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대검찰청, 2021; 이정임, 2020). 게다가 예상치 못한 COVID-19 팬데믹(Pandemic)의 장기화로 청소년들의 미디어 과의존 현상이 가중되며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교육과 보호의 역할을 거부하고 있다(정진, 2021: 5).

과거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가 음주는 김정기(1983)가, 흡연은 유영식(1984)이, 약물은 김성이(1988)가 시대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다면, 최근에는 신동업(2013)을 시작으로 스마트폰과 범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생활과 놀이문화가 달라지면서 비행의 방식이나 정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일탈 및 부적응은 단순히 청소년의 행위만을 주목하기보다 병리적인 사회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정원, 2015; 이은영, 2015).

최근 새로운 교정의 동향은 청소년이 친사회적 습관을 형성하고 자기 규제를 함께 실천하여 비행 없는 삶을 추구하도록 하는 데 있다(김경숙, 남현우, 2015:

행 사건’ 등이 있었다.
https://namu.wiki/w/%EC%86%8C%EB%85%84%EC%8B%AC%ED%8C%90(2022-06-06)

4) 청주에서 여중생들이 친구에게 돈을 요구하고 고데기로 여러 차례 피해자의 몸을 지진 학교폭력 사건이다. 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323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791). 상담자는 청소년이 장애물과 유혹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친사회적 습관으로 비행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상호작용을 통해 왜곡된 인지구조를 전환하고 올바른 자아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도록 돕는다(고정원, 2015: 145).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담의 실패는 내담자뿐 아니라 상담자에게도 큰 상처가 된다. 상담에 실패한 상담자는 자신감을 상실하고 정체성 혼란과 심리적 소진[5]을 경험하며 이직을 선택하기도 한다(조은희, 천성문, 2021).

상담자의 발달에 따른 특성은 연구마다 차이가 있지만(정문주, 조한익, 2016), 대개 경력 3년 이하 초심상담자의 경우 소진에 특히 취약한 모습을 보였고(김은혜, 2017: 75), 상담자의 역전이 관리와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박경은, 2019: 92). 상담자들은 상담 경력 4년 이상 중급 단계가 되었을 때 자기성찰을 통해 좀 더 객관적이고 분명하게 자신을 볼 수 있다(최민정, 홍지선, 안숙자, 2023). 상담은 다른 치료 영역과 달리 치료의 구조화가 유연하며 상담 실천의 축적과 자기성찰의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다(Urofsky, 2013). 상담자의 자기성찰은 상담자의 훈련과 정체성에 중요한 자질로 소진 예방하거나 회복을 돕는다(강선아, 김안나, 최보영, 2020: 19; Guindon, 2011). 자기성찰이 잘 이루어진 상담자는 본인이 의도하는 바를 행동으로 실현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Grant, Franklin & Langford, 2002: 823). 따라서 좋은 상담자는 실제적인 상담 경험만큼이나 지속적인 자기성찰과 자기관리로 자기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먼저 경험해야 한다(조은희, 천성문, 2021; Grant, Franklin & Langford, 2002; Griffith & Frieden, 2000; Schmidt & Adkins, 2012).

상담자는 내담자가 지닌 다양한 문제와 증상을 탐색하고 이를 돕는 상담이론과 기법을 찾아 해결한다(Hill, 2009; Norcross & Wampold, 2011). 그러나 어떤 상담 현장에서는 특정한 상담이론뿐 아니라 매뉴얼조차도 없는 힘든 상황이 있다(김영혜, 지승희, 김소현 2017: 30). 상담자는 현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상담자로서 성장을 경험하지만(강서연, 금창민, 2023: 55), 모두가 그 과정에서 상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성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관련 분야의 숙련도가

5) 소진이란 프로이덴베르게(Freudenberger, 1974)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남을 돕고자 하는 동기로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랜 기간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정서적 고갈과 무기력을 경험하고 일에 대한 만족과 성취를 느낄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높은 상담자는 상담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장유진, 2021; Gutierrez, Jones & Fallon, 2018). 숙련된 상담자들은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나 증상보다 문제가 일어나는 핵심적 근원의 역동을 더 주목하여 상담전략을 수립하고(이윤주, 2001), 사례개념화[6] 수행에 높은 수준으로 전문성을 나타낸다(이윤주, 김계현, 2002; 오효정 외, 2012). 결과적으로 각 분야의 이론 탐구만큼이나 실천 경험이 많은 상담자의 경험을 탐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상담이론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상담학은 실천적 저변 확대로 상담자의 경험이나 삶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종교학, 철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등의 학문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며 다양한 학문적 범주의 융합을 형성하고 있다(양준석 외, 2016). 이러한 전문적 지식의 경계 넘음과 통합적 관점의 요구는 다양한 사회문화 속의 문제 현상이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떨어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곽영빈 외, 2021: 149; Webster & Mertova, 2007).

인간이 경험을 구조화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에는 내러티브가 존재한다(Barthes, 1966). 내러티브는 정확한 사실 규명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가와 같이 다양한 의견을 존재하게 한다(최지원, 2017: 183).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것을 통해 자기(self)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민용, 2015: 446). 인간의 몸은 자신만의 유기적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서로 연결된 인간들의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다(김지영, 2017). 인간이 실존한다는 것은 하나의 세계 속에 존재함을 뜻하며 공존은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바깥 세계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이동성, 2001). 또한, 주체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며 주체의 욕망 또한 타자의 욕망을 통해 형성된다(Lacan, 1995). 의미치료의 창시자인 빅터 프랭클(Frankl, 1985)은 “나뭇가지 하나가 나무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위대한 삶의 의미를 항상 이해할 수 없다”는 말로 복잡한 인간의 삶 속에 깊은 의미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 사람의 이야기는 언어적인 차원에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확대될 수 있고, 이러한 이야기는 자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즉, 인간은 자신의 내러티

6) 내담자의 주 호소 문제와 관련 있는 다양한 정보를 통해 현재까지 내담자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원인과 경로를 가설적으로 검토한 후 내담자의 주 호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전략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이다(이명우, 박정민, 이문희, 임영선, 2005: 278).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브를 통해 인간적 삶을 살아가고, 자신만의 목적과 의미로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내러티브 탐구는 개인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의 경험, 사회적 맥락, 교육정책 등 사회, 문화, 제도와 이슈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염지숙, 2009: 248; Clandinin & Roseik, 2011: 72).

본 연구는 숙련된 상담자들의 비행청소년 상담 경험의 의미를 철학적 관점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타자철학은 주류문화에서 배제된 소수 문화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한다(노상우, 황혜연, 이진복, 2022: 194). 타자철학의 관점에서 비행청소년을 상담하는 상담자는 상담의 이해와 윤리적인 접근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사용하여 숙련상담자의 비행청소년 상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험과 그 의미를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초심상담자들이 느끼는 불안과 상담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상담자의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 결과는 광범위한 비행청소년 상담 분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비행청소년 상담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3. 연구퍼즐[7)]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 상담에 나타난 숙련상담자의 상담 경험과 그 의미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의 연구퍼즐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연구퍼즐 1. 숙련상담가들은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연구퍼즐 2. 숙련상담가들의 비행청소년 상담 경험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연구퍼즐 1은 상담자가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를 보았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담사례가 쌓여가며 초심에서 숙련이 된 현재까지 상담자로서 내담자를 대하는 태도나 개입 방법 등이 어떠한 변화 과정을 경험했는지를 상담자의 내러티브를 통해 고찰하였다.

연구퍼즐 2는 '비행청소년 상담'이라는 특수한 상담의 영역에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만나 상호적 관계를 맺으면서 겪었던 경험들이 상담자의 역할과 개인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주었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자는 숙련상담자인 참여자들의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가 경험하는 생각과 감정, 발달 과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상담사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질 높은 상담을 위한 구조화나 보수교육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등 향후 비행청소년 상담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7) 연구퍼즐은 내러티브적으로 사고하는 과정의 부분으로 정확한 정의나 답을 기대하기보다 궁금한 점을 중심으로 구성한다(Clandinin, 2015: 6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연구문제가 아닌 연구퍼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4. 연구동향

숙련된 상담가의 비행청소년 상담 경험에 대한 연구 동향은 '숙련상담자의 상담 경험'과 '비행청소년 상담 경험'의 두 범주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선행연구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등의 검색 도구를 사용하여 최근 10년(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박사학위 및 학술지 논문을 탐색하였다. 숙련된 상담자의 상담 경험에 대한 선행연구는 '숙련'에 대한 기준이 연구마다 차이가 있어 본 연구와 같이 연구참여자의 상담 경력을 10년 이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상담목적에 차이가 있는 직업상담이나 기업상담 등을 제외하였고, 프로그램이나 슈퍼비전의 경험 등 내담자와의 직접적인 상담 경험이 아닌 논문은 제외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숙련상담자의 상담 경험에 관한 논문은 학술지 논문 11편, 박사논문 5편이 조사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편, 2014년 1편, 2016년 2편, 2018년 3편, 2019년 2편, 2020년 4편, 2021년 1편, 2022년 2편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급격한 현대화는 경제적 양극화와 정신장애 등 심리·사회적 문제를 양산하며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일으켰다(고수현, 2019). 또한,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상담자 교육이나 훈련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김인규, 조남정, 2016). 그러나 이러한 시점에서 숙련된 상담자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은 특정 영역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양한 문제로 고통받는 내담자들에게 각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숙련된 상담자에 대한 연구는 해당 문제에 처한 내담자들을 위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숙련상담자의 상담 경험을 주제와 연구방법에 따라 살펴보면 상담자의 대리외상(남희경, 장성숙, 2016)이나 강점 활용(권혜경, 이희경, 2013)을 개념도 방법으로 연구한 논문 2편, 상담사의 역전이(하정, 2016), 진정성(홍지선, 2018), 자아통합(김정업, 2019), 정체성(박은정, 2022)을 근거이론 방법으로 연구한 논문 4편, 가족치료 경험(전은숙, 김혜진, 2022), 상담의 실제 관계(진보겸, 금명자, 주은선, 2019)를 질적연구 방법으로 탐색한 논문 2편, 사례개념화(장유진, 2021), 상담자의 진정성(김예실, 이희경, 2020)을 합의적 질적연구(Consensual Qualitative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Research: CQR)방법으로 연구한 논문 2편, 자기성찰(김동영, 최진아, 2020; 고윤희, 박성현, 2014)이나 영적 체험(김신애, 2018)을 현상학으로 연구한 논문 3편, 상담 윤리(정상화, 금명자, 2020)를 양적연구방법 연구한 논문 1편, 그리고 비혼 아동상담자의 경험(임상희, 2018), 상담과 자녀 양육의 경험(윤혜경, 2020)을 내러티브로 탐구한 논문 2편이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와 같이 숙련된 상담자의 상담 경험 연구에서 비행청소년 상담 경험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상담학은 객관적 관찰이나 조사가 어려운 인간의 심리적 동기나 심층적 정신세계를 다루는 학문으로 인간 삶의 총체적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에 적합하다(양유성, 한계수, 조난영, 2022: 8).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퍼즐을 통해 'What'이 아닌 'How'를 찾아 인간의 경험과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Clandinin & Connelly, 2007). 임상희(2018)는 만 39세의 아동상담 경력 13년 차인 비혼 아동상담자의 아동상담 경험을 통해 비혼 아동상담자의 삶과 상담 경험을 탐구했다. 그 결과 비혼 아동상담자로서 자기의 상황을 수용하고 건강하고 적절한 '자기 이해와 자기화'가 필요함이 논의했다. 윤혜경(2020)은 내러티브 탐구라는 관계적 맥락에서 여성상담자의 상담과 자녀 양육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에 담았다. 그는 여성상담자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10년 이상의 상담 경력과 10년 이상 자녀 양육을 병행해 온 연구참여자 3인을 선정했다. 그 결과 자기 존재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타인의 존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자기와 타인에 대한 돌봄 경험이 어떻게 자녀 양육으로 이어지는지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상담학에서 주로 다루는 이야기는 무엇보다 치유 이야기를 의미한다(양유성, 한계수, 조난영, 2022: 45). 상담에서 상담사의 조기 종결 경험을 연구한 이은영(2015)은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조기 종결로 인한 무능과 상심의 경험이 상담자의 삶에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됐음을 알게 되었고, 자살 위기개입에 대한 상담자 경험을 연구한 이현주와 김수진(2022)도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상담자가 대리외상의 경험에서 성장을 이루고 삶의 의미와 소명을 찾았음을 밝혔다. 상담자의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는 상담자가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성장하는 상담 과정의 중요한 가치를 보여주었다.

둘째, 상담 경력과 관계없이 비행청소년 상담에 관한 연구는 박사학위 논문 1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편(안정화, 2022)과 학술지 논문 2편(신혜란, 2019; 이주영, 이아라, 2015)이 있다. 청소년기는 성인도 아동도 아닌 주변인으로 감정과 행동이 과격하고 거칠며 심리적으로 동요가 심한 특성으로 '강한 바람'과 '성난 파도'를 뜻하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불리며, 신체·인지·심리적 변화와 혼란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다(이자영, 정경은, 하정희, 2021). 그럼에도 비행청소년을 상담한 상담자의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안정화(2022)는 근거이론 방법으로 학교폭력의 발생과 처리 과정을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고자 했다. 근거이론은 새로운 이론을 창출하는 방법론으로 데이터 자체에 근거를 두어 이론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다(Glaser & Strauss, 1999). 그 결과 학교폭력이 학교 전체의 문제라고 인식과 징계가 아닌 회복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신혜란(2019)은 근거이론 방법으로 보호관찰청소년을 상담하는 3년 이상의 자원상담자 11명의 심층면담을 통해 보호관찰 상담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보호관찰청소년 상담 과정과 상담의 특성을 연구했다. 그 결과 '의욕적으로 상담을 시작했다가, 현실적인 타협을 해가며 앞으로 계속 나아감'이 핵심 주제로 나타났다.

이주영과 이아라(2015)는 학교폭력 가해자 대상 상담에서 상담자의 경험과 인식을 탐색하고자 가해자 상담 경험이 있는 12명의 상담자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고 합의적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합의적 질적연구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장점을 결합한 방법으로, 사례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개별적인 요소를 이해하고 연구자 간 합의를 통해 결론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그 결과, 상담자들은 내담자들의 비자발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상담 관계를 맺는 것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각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들은 선입견과 편견 없이 내담자를 대하고, 억울한 정서를 다뤄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상담 성과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행동이 감소하는 것이라고 인식했다.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숙련상담사의 비행청소년 상담 경험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행청소년 상담 경험에 관한 연구가 있긴 했지만, 상담자의 경력을 3년 이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상담자의 변화를 깊게 탐색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숙련상담자의 경험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담자의 주요 발달 주제를 담는다. 초심상담자에 대한 연구(송수경, 2016; 장동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진, 원지혜, 윤현준, 2018; 홍지영, 김진희, 2018)가 내담자 저항, 직업적 윤리, 직업 적응 등을 다룬다면, 숙련상담자에 대한 연구는 성찰(김동영, 최진아, 2020), 좌절과 극복(김혜미, 오인수, 2016), 영성(김신애, 2018) 등의 주제가 있다. 숙련상담자들의 연구 주제와 같이 숙련 단계가 되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Kottler, 2014). 초심상담자가 상담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한 미래의 영향으로 좌절을 경험한다면, 숙련상담자는 다른 상황에서 다양한 책임과 보호 체계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한다(김혜미, 오인수, 2016). 이 연구는 이전에 없었던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숙련된 상담자의 상담 경험을 내러티브로 탐구하면서 비행청소년 상담에 있어 초심상담자의 막연한 불안과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여러 발달단계에 있는 상담자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비행청소년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비행청소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상담자가 지녀야 할 태도와 자세, 필요한 제도나 상담기술 등을 논의할 수 있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Ⅱ. 이론적 논의

1. 비행청소년에 대한 이해

1.1. 비행청소년의 개념

청소년 비행은 성인기에 이르지 않은 청소년들에 의해 행해진 법적 및 사회적 규준 위반 행동을 포괄적으로 일컫는다. 비행이란 개념이 특정한 연령의 부적절한 행실만을 지적한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도덕적・윤리적・사회적 및 법률적 측면에서 청소년의 옳지 못한 특정 행동을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은 일반적으로 반항성장애나 품행장애와 같은 임상적 개념과 절도, 강도, 폭력, 기물파손, 약물사용과 같이 「형법」에 의해 금지된 행동과 흡연, 음주, 무단결석 등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위비행을 포함한다(이미리, 김춘경, 여종길, 2019). 우리나라는 형사 정책적으로 형벌법령을 위반한 청소년의 범죄와 촉법행위뿐 아니라 앞으로 형벌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우범행위를 포괄해서 처벌보다 보호사건으로 심리하고 있다(소년법 제4조).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생리적・심리적・사회적・교육적 특수성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소년법」[8]에 해당하는 소년의 연령은 19세 미만이며, 개입의 필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① 우범소년: 10세 이상의 소년으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불복종하거나 가정에서 이탈하고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 등 아직 형벌법령의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가까운 미래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촉법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한다.

8)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③ 범죄소년: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해당 청소년을 '소년', '소년범', '비행청소년', '가해 청소년' 등 다양한 용어로 연구주제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였다. 이는 어원적인 의미보다는 연구의 대상과 주제, 연구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 성격이 짙었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미성년자로 지위비행을 저지른 청소년과 소년법이 적용된 19세 미만의 자를 포함하여 '비행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2. 비행청소년의 특성

비행청소년 문제는 크게 개인적 요인의 특성과 개인 외적 주변의 환경적 특성이 있다. 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환경적 특성을 함께 보는 것은 청소년의 다양한 비행이 특정한 하나의 이유로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이다(이자영, 정경은, 하정희, 2021). 예를 들어 부모의 양육 태도와 상호관계 등이 폭력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정승민, 2016)거나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이 비행과 관련이 있다(권윤정, 2017)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모두가 비행을 선택하지 않는다. 즉, 한 개인이 지닌 특성과 그 외 환경적 특성들이 상호작용하며 비행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각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1.2.1. 비행청소년의 개인 특성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으로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이 대표적이다(이현림 외, 2019).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서 존중하며, 자신이 역경을 극복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인간 심리의 중요한 요인이다(Brandon, 1969). 자아존중감이 발달하면 타인을 수용하고 자신의 단점도 그대로 받아들이며 문제상황에 도전하고,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게 된다. 자아존중감은 청소년 시기에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 경험에서 형성되는데, 급격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한 변화와 혼란 속에서 자아존중감 발달이 저해되면 부적응 상태에 놓이게 된다(이현림 외, 2019). 특히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에 대한 큰 걱정과 불안으로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반응하며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의 경향을 보인다(Satir & Baldwin, 1983).

낮은 자아존중감은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공격적 행동, 자살, 우울 등의 부적응 행동을 보이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내부 반응에 초점을 두고 가출, 약물남용, 성관계와 같은 수동적인 정서 중심적 대처를 한다(유상현, 변상해, 2018; 현명선, 김경희, 김선아, 2004). 반면,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사회 규범을 내면화하며 건강한 심리발달을 이루어 범죄나 비행과 같은 부적응 문제를 예방한다(노영수, 변상해, 2021). 따라서 청소년기의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고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방법은 자아존중감을 증대시키는 것이며, 이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인 자기효능감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이는 위험 행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신성철, 최성열, 2019).

자기통제력은 상황적인 요구에 맞게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시적 충동이나 즉각적인 만족을 구하는 행동을 억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다(이현림 외, 2019).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쾌락 추구를 지연하고 장기적인 손실을 고려하며 분별력과 조심성이 있었으며, 공격성이 낮고 타인의 고통에 예민했다. 그러나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성격이 급하며 즉각적인 욕구 충족과 위험한 행동을 선호했으며 타인의 고통에 무심했다. 즉, 낮은 자기통제력은 비행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Gottfredson & Hirschi, 1990). 대개 비행청소년은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으로 이루어졌으며,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들은 비행을 충족시키기 위해 비행집단을 형성하는 형태를 보이며 서로 연관되어 있다(Jennings et al, 2013).

1.2.2. 비행청소년의 환경 특성

청소년은 가족, 유명인, 교사, 친구 등을 잠재적 역할모델로 인식하고 동일시하며 많은 영향을 받는다(MacCallum & Beltman, 2002). 비행 문화에 노출된 청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소년은 부모나 교사가 제대로 역할모델을 하지 못하는 경우 비슷한 범죄성향이 높은 친구나 선배들의 영향을 받아 비행의 연쇄 고리에 갇히게 된다(남민영, 이예경, 2016). 따라서 청소년기에 누가 역할모델이 되며,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는 청소년이 자기를 형성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① 가정환경적 요인

청소년 비행의 외부적인 영향 요인은 주로 가정환경, 학교 및 교사와의 관계, 사회환경으로 분류되는데, 특히 가정환경의 요인은 청소년 비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 비행으로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경우 부모나 친인척에서 약 25%가 법적 처분을 받았다(이정임, 2020). 가정은 초기 사회화의 주체로서 사회에서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곳이다(이현림 외, 2019). 따라서 좋지 못한 가정환경은 청소년의 사회화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비행청소년의 경우 이혼 가정, 한부모 가정, 재혼 가정, 조손 가정, 폭력 가정 등 일반청소년 가정에 비해 결손 가정의 비율이 높았으며 결손 가정이 아니더라도 가족 구성원 간에 정서적 교류가 없거나 갈등이 심한 경우가 많다(이자영, 정경은, 하정희, 2021: 26). 또한, 가정환경은 청소년기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가정 내의 불화나 학대가 높을수록 위험 행동은 증가한다(도현지, 한상철, 2020). 특히, 가정불화는 가출, 유해 업소 출입, 음주, 흡연, 집단 따돌림과 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비행을 저지르도록 한다(김혜금, 조혜영, 2016). 가정환경의 요인은 청소년의 학교적응 곤란에 영향을 미치며 위험 행동을 불러온다(김윤경, 2018). 즉,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인 부모와의 관계 영향은 다른 환경적 요인들에도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의 비행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재비행 감소를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안정 애착 형성으로 사회적 능력이 향상되도록 방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노영수, 변상해, 2021).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② 또래 요인

청소년들에게 학업 성적은 폭력, 절도, 성범죄와 같은 비행 유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윤상미, 2012). 학생들은 학교 성적이 낮을수록 비행에 현혹되었으며, 학교생활에 만족도가 낮고 교사의 관심을 받지 못할수록 비행 행동의 빈도가 높아졌다. 이때 친구의 비행은 청소년의 비행 행동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한다(이현림 외, 2019). 청소년기 친한 친구의 정서적 지지와 상호교류는 학교 적응뿐 아니라 성인기의 대인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이윤정, 박미화, 2014).

또래(peer)란 신체 발달 및 정신연령이 비슷하여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대상이다(Perry & Bussey, 1984, 임한나, 이주희, 2022 재인용). 청소년기에는 청소년 활동의 중심이 가정에서 점차 학교와 또래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다(김진구, 2017). 이러한 변화로 인해 청소년들은 부모보다는 또래에게 더 의존하게 되며, 그들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김숙향, 2018). 그러나 일방적으로 사랑과 돌봄을 베푸는 부모와는 다르게 또래와의 관계는 상대의 의도를 해석할 수 있는 적절한 상호작용 기술이 필요하다(정옥분, 2015). 따라서, 청소년은 또래 집단 내에서 고립되거나 배제되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하며, 이를 위해 주변 또래의 행동을 주시한다. 그래서, 또래 집단 내에서 묵시적으로 형성된 집단 규범에 맞춰 행동하는 특성이 있다(전자배, 2019).

③ 사회환경적 요인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사회는 그들의 성장과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소년들은 학교 적응력이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김숙향, 2018). 공동체 의식은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결속력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나타낸다. 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과 소속감을 결정한다. 지역사회의 의미는 생활 공동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청소년이 인식한 주변 환경을 포함한다. 현대사회는 가정의 중요성이 약화되면서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사회화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생태학적 요인들은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청소년 비행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한우재, 정인관, 2021).

지역사회의 낙후와 사회적 통제 기능의 약화는 청소년들의 일탈적 행위를 증가시키며, 비행청소년들과의 잦은 교류는 많은 청소년이 비행을 경험하게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통제 능력이 약화 될수록 청소년들의 일탈적 행위 확률이 높아진다(현다경, 2017). 청소년기는 활동 영역이 확장되는 시기로 지역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상호교류를 방해한다. 서덜랜드(Sutherland, 1939)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유전이 아닌 학습으로 발생한다고 정의했다(Gaylord, & Galliher, 2020). 비행은 타인과의 접촉 빈도, 지속성 정도, 접촉의 대상에 따른 우선성, 친밀함의 강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일어난다(이윤호, 2019). 따라서 자주, 오랫동안, 강하게 법 위반에 노출된다면 당연하게 비행의 확률이 높아진다(정누리, 2019).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2. 비행청소년과 상담

2.1. 비행청소년 상담의 특성과 방향

상담의 상(相)은 상대와 마주 대하며 변화를 이뤄내는 과정으로 나무(木)를 바라보는(目) 형상을 통해 비언어적 메시지의 중요성을 담고, 담(談)은 말(言)을 통해 불꽃(炎)이 튀는 형상으로 열정적인 대화를 포함한다(오인수, 한혜원, 전은경, 김민정, 2022). 인간은 상호작용을 통해 원만한 관계 형성의 능력을 키운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심리적, 신체적 방임은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형성하게 되어 타인의 정서적 지지와 보살핌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된다(윤명희, 2017).

부모와의 관계에서 애착이 유리된 자녀는 초자아나 도덕적 가치에 대한 교육의 결핍으로 문제행동을 하게 된다(이명숙, 한영선, 손외철, 2017). 애착외상(attachment trauma)은 양육자와의 정서적 친밀도가 높은 의존관계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외상, 학대, 혹은 방임을 의미한다(Allen, 1995). 애착외상은 행동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인관계나 사회적 능력을 저해하여 생애 전반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Allen, 2010). 또한, 그 후유증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한다(Allen, 2013).

내담자가 아동기에 부모와 맺은 애착 경험은 상담자와의 작업동맹에도 영향을 미치며, 상담의 성과를 결정하게 한다(김지민, 장재홍, 2009; 최인화, 2007). 상담 관계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해석하는 내담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Pistole, 1999). 상담자는 내담자의 정서적 안정과 돌봄을 계속 제공하고 내담자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며 자기정체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안정된 애착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충동성과 자기통제력을 향상한다(노영수, 변상해, 2021; 정누리, 2019; 최남식, 박기환, 2020).

청소년의 법적 처분 과정은 청소년뿐 아니라 부모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삶을 설계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려는 내적 힘을 부여받는다(배대길, 유영달, 2022). 그러나 부모가 이러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다면 상담자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는 상담 현장에서 이러한 부분에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 내담자는 상담자의 전문적 개입과 정서적 관계 경험에서 작업동맹을 맺는다고 지각했는데, 상담자의 친절함과 편안함을 중요하게 판단하였다(권윤정, 장재홍, 2017). 청소년 내담자는 상담자가 '잘 듣고 활발하게 반응함', '따뜻한 보살핌', '온전한 이해', '함께 머무름',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등을 보일 때 공감받는다고 지각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발달적 특징에 의한 독특한 측면을 보여주었다(오예현, 장재홍, 2015).

청소년 비행의 많은 사례가 성인 범죄로 전이되지만, 모두가 그렇게 되지는 않으며, 탈비행에 성공한 사례도 적지 않다(Laub & Sampson, 2003). 청소년 비행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그들이 비행을 시작하는 이유와 지속하는 이유에 주목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왜 비행을 중단하는지, 즉, 탈비행으로 관심의 초점을 옮기기 시작했다(김경숙 · 남현우, 2015). 현대의 비행심리학은 비행발생(crime acquisition)과 탈비행(desistance)이라는 두 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Serin & Lloyd, 2009). 비행 발생은 북미 중심의 위기 욕구-대응 모형을 선호하는 비행 감소 전략모형으로 비행 당시의 위험요인과 결핍된 욕구를 발견하여 충족시킴으로써 재비행을 방지한다는 인과적 원리의 교정 패러다임이다. 탈비행은 최근 영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조류를 형성하며 흐르는 신경향적 접근으로 비행 발생 당시의 원인보다 비행에서 벗어나는 변화 과정을 더욱 강조하는 위험성-욕구-반응성 원칙(Risk-need-responsivity principle: RNR)으로 비행 중단을 목표로 삼는 방식이다(김경숙, 남현우, 2015).

비행청소년들이 탈비행을 시작할 때는 부모의 애착이나 감독과 같이 지속적인 유대감을 제공하는 것이 탈비행의 효과가 높았다. 그러나 이미 탈비행자로서 정체성을 형성한 이후에는 비행에 대한 반성과 긍정적인 설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지 기술의 개입이 필요했다(권해수, 강호성, 2020). 정진(2022)은 "탈비행화는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필요한 가족, 학교, 또래 집단과의 원만한 상호작용을 통해 잠재적 사회통제를 경험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공감능력, 사회성, 의사결정성, 학업효능감, 진로효능감을 증대시켜 청소년 개인의 내외적 환경요인을 극복하고 이후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적 출발선이다." 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비행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모두 생활양식에 큰 차이가 없으며 청소년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기 한정 비행자에게 개입하는 것이 생애 지속 범죄자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생애과정에서 청소년 비행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다양한 비행경력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인생사건, 애착관계, 사회적 자본, 사회유대감 등을 통해 탈비행이 가능하다고 보았다(Laub & Sampson, 2003).

탈비행의 과정은 개인과 환경과의 역동적 상호작용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발달로써 성공적인 방향으로 '변화' 하고 '선택' 하며 인생 발달 궤적을 만들어 간다(김경숙, 남현우, 2021). 청소년의 탈비행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부모나 선배, 교사 등과 사회적 유대를 통한 조언과 정보 습득이 필요하다(이상인, 2018). 결국, 강력한 처벌보다 인도적 접근을 통해 청소년 비행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Moutsopoulou & Mallouchou, 2022).

2.2. 비행청소년 상담과 숙련상담자

비행청소년 상담은 자기이해를 증가시킴으로 낮은 자아존중감과 자기조절능력 그리고 내재화된 공격성 문제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김은영, 2009; 문장원, 2012; 박현선, 2007; 장미연, 김원중, 2016). 따라서 비행청소년을 상담하는 상담사는 내담자의 성장과정, 기질 및 성향 등을 폭넓게 파악하고 이해한 상태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하며, 비행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역할도 고민해야 한다(이현림 외, 2019).

국내의 상담사 역량 관련 연구는 대부분 진로상담이나 다문화상담과 같은 특정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비행청소년을 상담하는 상담자의 역량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라수현, 김현령, 고홍월, 2016). 다만, 비행을 포함하여 고위기 청소년 상담에서 효과적인 상담자 역량을 살펴보면, 전문적 태도와 전문 지식이 구성되어 있었다(김동인, 현은정, 우예영, 박준영, 2020). 전문적 태도는 "진정성과 공감, 치료적 관계 형성, 헌신적 태도, 침착한 태도"로 나타났으며, 전문지식은 "매뉴얼 숙지와 자원 및 법에 대한 지식"으로 상담의 경력이 전문성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상담 경력은 상담자의 작업동맹과 상담성과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김미진, 권경인, 2019).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상담은 내담자의 긍정 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며 상담자는 성공적인 상담 결과를 위한 최고의 요인이다(Ahn & Wampold, 2001; Corey & Corey, 2013; Kim, Wampold, & Bolt, 2006; Lambert & Okishi, 1997). 성공적인 상담은 상담 기법이 아닌 상담자 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상담학이 도입된 이후 상담자 발달에 관한 이론과 체계, 교육에 관한 연구가 꾸준하게 진행되면서 숙련된 상담자에 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김진숙, 2001; 김혜인, 최한나, 2017; Orlinsky & Rønnestad, 2015; Skovholt & Rønnestad, 1992). 숙련된 상담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다. 호간(Hogan, 1964)은 숙련상담자를 전문가로서 상담에 대한 동기가 안정적이며 깊은 통찰력에 이르는 단계라고 언급하였고, 이 단계가 되면 상담자는 자신의 상담적 가치관을 본격적으로 실현한다고 하였다. 상담자의 전문가 발달에 대해서는 결정적 사건이나 체험으로 인해 상담자에게 통찰이 일어나고 성장한다는 연구도 있으나 모든 상담자에게 해당하는 일반적인 발달 과정은 아니었다(Woodside et al., 2007). 또한, 동일한 상담 자격증을 획득했다고 해서 같은 수준의 발달을 이루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었다(Skovholt & Rønnestad, 1992).

상담자가 내담자를 인격체(개성적 주체)로 성장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상담자의 '온전한 인격'이 중요하다(이부영, 2011). 상담자는 무엇보다 스스로 발달이 이뤄진 상태로 내담자를 만나야 하며, 거짓된 발달을 주의해야 한다(Skovholt & Rønnestad, 1992). 따라서 상담자는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잘 알고 있어야 하며, 내담자의 병적인 생각이나 느낌으로부터 전염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상담에서는 숙련된 상담자들도 때때로 내담자와의 관계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자기 유능성에 대한 회의감을 경험하기 때문이다(김혜미, 오인수, 2016). 그럼에도 상담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경력 수준을 발달 수준으로 갈음하여 객관적 자료로 활용하기도 한다(김계현, 문수정, 2000). 에릭슨과 레만(Ericsson & Lehmann, 1996)은 10년 이상 경력이 지났을 때 전문성이 따라온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전문성이란 경험 그 자체보다 상담자의 발달과 관련된 성찰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숙련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권혜경, 이희경, 2013; 김혜미, 오인수, 2016; 이명우 외, 2005)에 따르면 상담의 전문성은 상담자의 개인적 성숙과 경험에 영향을 받았다. 상담자의 개인적인 상처나 좌절 경험, 특정한 문제를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호소하는 내담자들과 현장에서 오랫동안 함께 했던 경험 등 개인적·직업적 다양한 형태의 경험이 상담자로서의 성장을 도왔다. 숙련상담자는 좌절의 경험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좌절과 성장을 선순환으로 인식했다(김혜미, 오인수, 2016). 또한, 풍부한 사례를 경험하는 것을 상담 훈련에 최우선으로 지각하고 있었다(장유진, 2021). 숙련상담자는 높은 수준의 자기 인식으로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배울지에 대해 자발적인 선호가 뚜렷이 나타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담에 대한 배움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였다(Rønnestad & Skovholt, 2001). 즉, 숙련된 상담자들은 위기를 치료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미숙한 지점에서 다시 도전하며 전문가로서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Skovholt, 2003: 336).

상담자는 개인적이고 전문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해 나가는 존재로 상담자가 높은 수준에서 자아 통합을 이루면 융통성 있고 창의적이며 지속적인 자기성찰을 하게 된다(김정업, 2019). 또한, 상담자의 상담 경력이 많아질수록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에 대해 스스로 배우고 배움을 추구하려는 자발적인 선호가 뚜렷이 나타났다(김신애, 2018). 따라서 개입이 어려운 상담일수록 숙련된 상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3. 상담과 타자성

3.1. 타자성의 개념

서양 근대 철학의 특징 중 하나는 '주체성'의 철학이다.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자기 존재의 확실성을 근거로 이성적 추리를 통해 다른 진리들을 하나씩 연역해 나갔다. 그의 '나는 생각한다'로부터 시작된 주체성의 철학은 생각하는 자아와 생각되는 대상의 세계를 분리했다. 이처럼 근대 철학은 '주관이 어떻게 있는 그대로 대상을 알 수 있는가?'라는 인식론적 과제를 다루며 발전했다. 하지만 출발부터 회의론과 불가지론을 내포한 철학은 허무주의로 쉽게 이어졌다(박찬구, 2018: 154). 이와 반대로 타자철학은 주류문화와 소수문화의 평등한 공존을 추구하는 철학으로, 인간관계에서 상호이해와 존중하는 태도를 중요시한다(노상우, 황혜연, 이진복, 2022).

타자가 철학의 범주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헤겔의 변증법 기본구조에서 유래한다. 헤겔의 변증법은 서로 차이 나는 것들, 즉 대립적인 것을 제시하지만 결국엔 부정의 부정, 정반합의 운동을 통해 차이를 동일적인 것, 전체성에 종속시키는 작업이다(서동욱, 2002: 183). 헤겔은 의식의 앎과 즉자[9]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앎의 계기'와 '진리의 계기'를 구별했다. 전자는 '타자에 대한 어떤 것'인 의식에 대해 존재하고, 후자는 '이 관계 밖에서' 의식과 대상의 관계와 무관하게 존재한다. 헤겔은 전자를 '개념' 또는 '대타존재'라고 부르고, 후자를 '대상' 또는 '즉자존재'라고 부른다. 헤겔은 의식뿐 아니라 즉자존재도 의식 안에 있다고 주장한다. 즉자가 이미 의식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의식의 제약을 넘어서는 검사의 기준이 이미 의식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헤겔의 제안은 우리 의식이 의식 안에 나타난 즉자를 통해 간접적인 방식

9) '즉자'와 '대자' 그리고 '즉자대자'는 헤겔의 용어이다. '즉자'는 '그 자체', '안쪽'을 의미하며, 묵시성과 직접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자체로 있으나 자기와 마주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하며, 대상과의 구분이 없는 상태일 수 있다. '대자'는 '자기와 마주한 것'을 의미하며, 명시성과 매개성을 특징으로 한다. 느낌의 주체는 즉자적 자기인 반면, 의식의 주체는 대자적 자기이다. '즉자대자'는 대자적 자기가 즉자적 자기로부터 이탈하여 다시 즉자적 자기로 돌아온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자기를 뚜렷이 의식하는 상태로서 자기충족적이고 자립적이다(고영준, 2014).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으로 즉자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헤겔은 칸트가 주장한 '앎의 제한'을 넘어선다(성창기, 2020: 114). 즉, 헤겔은 타자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변증법을 정립하고자 했다. 타자는 주체의 저편에 있는 두 번째 것으로서, 첫 번째 것의 부정자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변증법은 첫 번째 것의 타자로 정의되는데, 이는 매개하는 역할로 자기 안에 포함된 모순으로 볼 수 있다.

헤겔의 자기인식은 타자(대상/진리)를 바탕으로 한 반성이다. 타자와의 관계에서 인식은 자기를 성찰하는 토대일 뿐 아니라, 타자를 통해 자기 안의 새로운 자기를 계발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유헌식, 2016: 46). 즉, 순수한 자기인식을 위해 절대적인 타자 존재를 인정하며, 인격적인 타자를 통해 반성하며 자기동일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영순, 2023). 따라서, 타자와의 관계에서 인식은 자기를 성찰하는 기초일 뿐만 아니라, 타자를 통해 자기 안의 새로운 자기를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후설은 헤겔과 같이 타자의 타자성을 급진적으로 인정한다(최경섭, 2011: 110). 후설은 주체의 지향성을 도입하여 주체와 타자들 사이의 관계를 논했고 그 결과로 타자의 개념을 등장시켰다(서동욱, 2022: 62). 후설이 타자를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존재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고자 했기 때문이다(이종주, 2011). 후설은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타자와의 상호작용에서 나 자신을 인식하고 이해함으로써 존재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믿었다. 또한, 세계에 대한 선입견으로 이루어진 자연적 태도를 버리고, 선입견의 지배를 받는 태도에 입각한 판단중지(Epoche)를 강조했다. 후설의 타자 이론은 상호주관적인 것으로서의 세계를 구원하는 것을 목표로 타자와 자아 간의 '공존'을 강조한다. 공존은 나와 타자 사이에 하나의 공통적인 시간 형식이 형성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시간적 공동체'라고 표현한다. 이 시간적 공동체는 근대적 사고방식의 상속으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헤겔이 '지금', '여기'라는 시간적 일치로 공동체를 이루는 조건을 말할 수 있다. 후설은 타자와의 공통적 시간을 '현재'라고 설명했다(서동욱, 2022).

후설의 철학은 하이데거, 사르트르, 레비나스, 그리고 메를로-퐁티에게 영향을 주었고 이들은 각자 독창적인 사상으로 발전시켰다. 하이데거, 사르트르, 레비나스는 초기 저작부터 후설과는 다른 입장이었지만, 퐁티는 주로 지각의 현상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학에 집중하며 후설의 현상학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다. 특히 타자이론에 대해서는 세 사상가가 후설의 타자경험 이론을 거부하고 유아론으로 극복을 모색하는 반면, 퐁티는 후설의 타자경험 이론을 지속 발전시켰다(이종주, 2011). 하이데거는 인간 현존재가 세계-내-존재이기에 모두 서로에게 타자이면서도 동시에 현존재(Dasein)라고 하였다. 현존재는 아프리오리(A priori)인 공동존재(Mitsein)로부터 성립되며 본질적인 공동존재이다. 공동존재는 개인들의 집합체 개념을 넘어선다(Heidegger, 1994). 하이데거는 타자가 현존재와 공동운명체로서 특별한 존재 방식을 맺기 위해 타자 혹은 타자와 분리된 자기를 규명하기보다 타자와 그때그때 관계 맺는 방식에서 자기를 규명하고자 하였다(박현정, 2012: 61). 이는 자기와 타자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 타자와의 갈등적인 관계를 경험한다는 것을 전제한다(정정호, 2001; 임현진, 2017).

하이데거는 이러한 공속[10]관계에서 현존재의 존재 방식을 '배려'에서 찾았다(이관춘, 2021: 355). 인간은 세계-내-존재이기에 세계에 대한 인간의 존재는 본질적으로 배려라는 것이다. '내－존재'는 현존재가 친숙한 세계에서 다양한 존재자들과 실천적이고 실존적으로 교섭하는 방식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더 근원적으로 존재자들의 발견이 가능한 세계의 근원적 개시성과 실존에 대한 근원적 개시성을 의미한다(이종주, 2011: 72). 세계-내-존재로서의 현존재는 다른 존재자, 즉 '눈앞의 존재'와 '손안의 존재자'에 대해 걱정한다. 또한 다른 현존재에 대해서는 배려의 태도로 무언가를 행하거나 보살핀다. 하이데거는 이를 걱정과 배려를 합쳐서 '염려'라고 말하고, 현존재의 염려를 곧 '현존재의 존재'라고 여겼으며 이러한 존재 방식이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이관춘, 2021: 396).

사르트르는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 영향을 받아 타자론을 펼쳤다. 사르트르는 헤겔의 대타존재 이론을 비판하며, 대타존재를 물적 존재로 이해하는 건 대자존재 간의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르트르는 자기의식과 대타존재 간의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며, 자신에게 '타자'가 무엇인지와 그와의 관계를 보고자 하였다(이성환, 2014: 469). 사르트르

10) 엄태동(2016 : 18)은 하이데거의 Zusammenngehörigkeit를 '공속'(共屬)이란 용어로 번역하고, 김형효(2002 : 42)는 '불일이불이'(不一而不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서로 나눌 수 없이 깊이 얽혀있고, 둘이면서 하나라는 의미이다(김도남, 2021: 148 재인용).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에 따르면 자기 자신만의 주체성과 실존은 타인이 존재하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 사물의 본질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데 우리의 의식 또한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며, 자기의식은 다른 자기의식과 대립하게 된다. 이것이 자기의식의 실체이다(서동욱, 2022: 146).

사르트르는『존재와 무』에서 인간의 실존적인 기투[11]를 그려냈다. 이 기투는 대자존재로서의 인간이 진정한 존재로 이행을 추구하기 위해 즉자에서 대자로 항해를 전개하는 과정이다. 그 예로 사르트르는 일상에서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였다. 사람들은 대상성을 지니며, 서로 눈길을 주고받을 때만 서로를 타자로 의식하게 된다. 또한, 대상들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눈길을 주고받을 때 서로의 세계가 불안해지거나 무너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사르트르는 이러한 대자존재로서의 인간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사건이 바로 타자와의 만남이라고 주장했다. 대자는 자신이 즉자적인 상태를 벗어나려고 할수록 자신과 타자의 운명적인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대자가 자신이 대자인 한에서 항상 대타존재이기 때문이다. 사르트르의 이러한 주장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서도 나타나는데 대타존재로서 타자와의 만남은 인간의 실존적 사건으로 드러난다(이서규, 2013).

레비나스는 후설과 하이데거의 현상학적 사유에서 출발하여 타자를 논한다(Levinas, 1995). 레비나스는 후설의 지향성 개념을 수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식의 소유를 중단했다. 또한, 레비나스는 시간을 존재와 다른 어떤 것과의 만남의 조건으로 이해하며, 익명적 존재에서 의식의 홀로서기를 표현하였다. 즉, 하이데거가 타자를 존재자에 의해 은폐되고 망각 된 존재로 보았다면, 레비나스는 타자를 주체에 의해 부정된 타자로 말한다(최상욱, 2019). 레비나스는 서양의 전통적인 존재론이 동일자의 철학과 힘의 철학, 자아론 등이 폭력과 억압을 가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비판한다. 그는 자신의 형이상학에서 존재론의 전체성에 대립하는 무한성을 강조하는데, 이때의 형이상학은 자아의 세계를 벗어나 타자를 향하는 운동 자체를 의미한다(박민철, 2011).

소수문화에 대한 책임은 주류문화의 본질이 될 수 있다. 레비나스의 타자 중

11) 기투는 부정의 존재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지 않는 대자존재의 본질을 나타낸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이러한 기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실존의 시작이다(이서규, 2013).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심성은 자기부정이나 주체성의 몰수와는 관련이 없다. 책임은 주체의 선택이나 헌신, 자유의지와 관련이 없고 주체는 이미 타자를 위한 무한한 책임의 존재이다(Levinas, 1982). 이는 타자의 독특성과 독립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는 것에 기반하며, 이에 대한 대응은 냉담하고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동정심과 배려를 필요로 한다(박연규, 2017).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마주하는 다수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레비나스는 진실한 관계가 주체가 타자의 얼굴에 대한 응답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언급했다. 주체는 타자의 호소와 요청에 대답하는 수동적 입장에서 타자와 관계를 형성한다. 레비나스는 얼굴과의 대화를 나누는 타자 중심의 관점을 강조한다(노상우, 황혜연, 이진복, 2022). 타자의 얼굴은 '시선'과 '말'로 실체화되는 것으로, 타자의 실현은 타자의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하는 것이다(강영안, 2005: 180). 레비나스는 타자가 유한한 주체와의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무한성에 주목했다. 타자는 무한의 발자취를 보여주며, 주체의 사고 과정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무한성을 가지고 주체의 사유 구조를 넘어서는 충만성을 가졌다(노상우, 황혜연, 이진복, 2022). 또한 타자와의 만남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윤리적 요구를 제시한다(정정호, 2001).

레비나스는 인간의 주체성이 타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었으며, 이는 윤리적 책임으로 타자를 대신하며 사는 삶으로 귀결된다고 보았다(배경임, 2017). 이러한 만남은 자기중심적이고 한계적인 시각을 벗어나 더욱 신성하고 의미 있는 존재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더 깊은 수준에서 각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눈앞의 타자는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된다(박찬구, 2018: 155). 결국 타자와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윤리적이며 타자의 요구는 끝이 없으므로 상호호혜적인 관계가 아니라 절대자의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다.

메를로 퐁티는 후설의 현상학에서 영향을 받았다. 후설은 사물 구성이 주관적인 신체에 의해 이루어지며, 신체는 영혼과 경합하는 이중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체를 물리적 사물과 경험하는 주체로 이해하며, 신체의 규정성은 감각과 운동감각으로 되돌아간다고 주장했다(최재식, 2009: 10). 메를로 퐁티는 인간 경험의 신체 및 지각적 성격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을 강조한다. 그는 철학적 행위는 체험된 세계로의 복귀라고 주장하며, 학문의 추상화된 설명을 부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정하고 근본적인 체험으로 진입해야 한다고 했다. 메를로퐁티의 철학은 사르트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도로, 메를로퐁티의 실존은 신체를 통해 결정되며, 신체는 공간과 시간과 관련하여 거주하는 방식으로 이해된다(서동욱, 2022). 몸은 애매한 존재방식으로 드러나지만, 상호감각의 주체이다. 몸은 감각되는 것과 '교류', '지향적 관계', '교섭'의 방식으로 작동한다(김종현, 2003). 이는 신체를 더 중시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체화된 의식, 신체에 달라붙어 있는 의식과 그러한 의식과 관계하는 타자 및 세계에 주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정지은, 2017). 메를로 퐁티는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타자성에 대해 강조하며, 인간 경험에서 타자와의 만남이 항상 우리의 신체적 인식에 의해 중재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이 인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문화와 역사적 맥락에 따라 형성된다는 것을 강조했다(신인섭, 2007).

헤겔에서 시작하여 여러 철학자를 거치며 제시된 다양한 타자에 대한 철학적 관점은 타자의 역할과 세상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말하고 있다. 헤겔은 주체와 대상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였으며, 타자를 자기의 부정자로 정의하였다. 헤겔에 따르면 타자와의 관계는 자기를 성찰하고 발전시키는 필수적인 조건으로 개인의 정체성은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후설은 주관적 의식의 본질과 대상 사이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의식의 투명성과 개념을 탐구하였고 무엇보다 타자를 중요하게 인식했다. 하이데거는 후설과 같이 인간의 존재와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했다. 하이데거는 직접적인 경험과 해석을 통해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였고 시간의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사르트르와 레비나스는 개인과 타자의 자유와 상호의존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사르트르는 타자를 자유와 의식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타자는 주체로서 그 시선은 자아를 고착화하였다. 반면 레비나스는 타자를 다른 자유나 의식이 아닌 약자로서 주체의 위상을 갖지 못한 존재이다. 이러한 점에서 레비나스의 타자는 윤리적 의미의 타자이다. 또한 레비나스의 타자는 헤겔의 타자와도 다르다. 레비나스는 동일성과 절대적으로 구별된 타자성을 강조하고, 양자 사이에서의 절대적인 비대칭성을 주장했지만, 헤겔은 자기 자신의 타자개념에 기반하여 타자성을 이해하며, 동일성과 비대칭성의 동일성을 강조하였다(조종화, 2014).

레비나스가 타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윤리적 책임에 중점을 두었다면, 메를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로 퐁티는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 신체적 인식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타자성은 자아를 의식화하는 속성이며, 타자를 지향하며 형성된다. 한국사회에서도 타자철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우리 사회는 남성이 여성을, 내국인이 이주민을, 이성애자가 동성애자를, 시민이 난민을 혐오하며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배제하고 있다(이승훈, 2021: 119). 혐오감은 자신의 부정적인 것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심리작용으로 특정 타자 집단을 차별화하고 분리하는 사회적 도구로 주로 사용된다(박인철, 2021: 59).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명제로 지향적 의식이 서로 마주칠 때 서로를 규정하려는 '투쟁'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이때 타인의 의식은 나의 의식과 마찬가지로 대상을 자유롭게 규정하려는 지향적 의식으로 방해물이 된다. 왜냐하면 타인의 의식은 나의 의식과 마찬가지로 대상을 자유롭게 정립하려는 지향적 의식이기 때문이다(서동욱, 2022: 137). 타자철학은 인간의 의식에 대한 탐구이다. 타자성은 의식 있는 주체의 인간이 인간 밖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환대하며 그들과 소통하고 관계 맺기를 시도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 주체와 대상이 함께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인간의 인식과 세계, 의식과 객체의 관계를 연구하고 개인의 경험과 세계의 상호관계를 생각해야 한다. 타자성은 타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결국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공존하며, 인간과 인간 간의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

3.2. 상담자의 타자성과 자기성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효율성과 생산성 중심의 교육제도에서 비행청소년의 존재는 사회적 배제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따라 공존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김영순, 2017: 74). 비행청소년들도 자신이 원하는 집단에 들어갔을 때 공존을 경험할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자기와 다른 타인을 이해하고 공존의 삶을 살아간다. 따라서 우리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타자를 인정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실천하는 역할을 해야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한다(김영순 외, 2022: 64-73).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그리고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상담자는 비행청소년을 사회의 문제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대상으로 역할을 인정함으로 타자성을 실천한다. 다른 말로 상담자와 내담자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상담의 성패와 높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Jenning & Skovholt, 1999; Kim, Wampold & Bolt, 2006).

상담자는 내담자와 함께 공존하는 존재로 상담자의 타자성은 내담자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환대하며, 내담자와 깊이 소통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특히, 비행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없는 문제에서 공격성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레비나스의 '무조건적 환대'가 더욱 필요하다. 상담자가 비행청소년을 보호하고 돌보기 위해서는 이들의 이질성을 차이를 '개방'과 '맞아들임'의 자세로 수용해야 한다(이은미, 강혜정, 2021). 상담관계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와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 상호작용을 통해 내담자의 세계를 이해한다. 그러나 상담 현장의 특성상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상황에 대한 단일한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으며 상담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변수들이 등장하기도 한다(김혜인, 최한나, 2017).

청소년 비행 문제는 경쟁적 사회문화에서 파생된 결과이다. 문화는 사람들 간에 공유됨으로써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각자의 문화적 배경과 경험으로 학습된다(김영순 외, 2022: 16). 비행청소년의 경우 친구, 부모, 교사와 같은 타자들의 법 위반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학습하게 되며, 이는 청소년 개인의 주관적인 사고과정을 거쳐 비행과 재범으로 이어진다(아영아, 2015). 헤겔은 변증법적 형벌이론을 통해 형벌의 목적을 법의 침해된 회복, 인격체들 간의 상호인정의 실현, 그리고 자유의지의 실현으로 정의하였다(조극훈, 2018). 헤겔의 관점에서 상담자는 비행청소년을 자기의 부정자로 보고, 상담자는 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를 성찰하고 발전시킨다고 할 수 있다.

타인은 나와 다른 가치평가를 하는 존재이다. 개인은 물론이고 집단, 국가, 문화 등이 어떤 것을 선이나 악이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힘에의 의지 발현이다(이관춘, 2021: 390). 하이데거는 현존재를 타인들과 함께 사는 공동존재로 보며, 타인들과의 차이를 균등하게 하거나 자신의 고유한 현존재를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만회하기 위해 차이를 염려하며 살아간다고 설명한다(이종주, 2022). 상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담자의 직업 선택의 동기와 경험은 직업적 가치를 부여하고 열악한 환경이 닥쳤을 때 이후 진로 선택을 좌우하게 한다(김세일, 2013; 오윤서, 장유진, 2021). 상담자의 개인적인 상실과 고통의 경험은 상담자 발달에 결정적 사건이 되고 이러한 개인적 경험은 내담자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현희주, 신애자, 2020). 상담자는 내담자가 가진 특수한 사회·문화적 요소에 대한 민감성을 지니고 자신의 문제와 분리하여 상담 목표를 설정한다(김혜진, 김현주, 2017). 상담자는 문제 증상이 아닌 내담자 존재에 집중하며, 내담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배우며 함께 성장한다(박소연, 유미숙, 2021; 박소현, 2021).

우리가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할 때,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 기술, 태도, 동기 등 탁월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전문성을 파악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특징으로서, 전문가로서의 존재를 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파편적 측면으로 전문성을 이해하는 것은 전문성의 일부를 보여주는 방법이지만, 전문성의 본질은 드러나지 않는다(Heidegger, 1998). 전문성의 본질은 공속관계 속에서 염려, 배려, 심려 등의 마음을 쓰며 보다 높은 품질 표준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성은 고정되고 고착된 존재자적 특성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드러내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운데 존재한다(류재훈 외, 2017). 또한,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은 의도적인 노력과 전문적 성찰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학습이 내적 변화로 이어진다. 그러나 성찰하지 않으면 전문성 발달이 일어나지 않고 정체를 겪게 된다(Skovholt & Ronnestad, 1992).

후설은 타자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체에 대한 성찰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김영필, 2012).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과거는 현대로 올 수 없다(Löwith, 2011). 우리 사회는 소통과 대화의 부족으로 포용을 강변하지만, 대부분 자신에 대한 성찰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요구로 일관한다(박길성, 2012: 638). 인간은 자기 한계를 의식하여 갖는 고통과 불안 속에서 이상적인 자신을 사유함으로 숭고의 감정을 경험한다(오윤정, 2022). 결국 세계와 나, 나와 타자 사이의 모든 문제는 자기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자기의 삶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핵심 조건은 자기성찰 능력이다(Giddens, 2010).

상담에서 타자성과 자기성찰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타자성을 추구하며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타자를 바라보는 것은, 나와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타자가 나와 같은 주체라는 것을 존중할 수 있는 성찰적인 자아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최승은, 2015). 공존은 상호의존성을 본질로 하는 나[자신]의 존재 조건으로 '나'는 타인과의 공동존재로서의 인간 실존의 물음에서 시작된다(이관춘, 2021: 334). 상담자는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에게 공감적 이해와 위안을 주고자 한다(주은선, 2019: 739). 상담자의 상호주관성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상담자가 도움이 필요한 내담자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지만, 상담자로서 성장을 목표로 슈퍼바이저와 관계 경험을 하는 병행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이준호, 박문현, 2018: 211).

상담자는 내담자가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기 경험을 개방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담자는 상담자의 인격적 태도, 의사전달 방식, 공감 능력, 자아에 대한 이해 능력 등을 배우고 닮아가길 원한다(김동영, 최진아, 2020: 23). 상담자는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수치심을 극복할 때 진정성이 발현되고(홍지선, 2018), 회복탄력성과 문제 대처 역량이 향상되며 상담자로서 성장을 이루게 된다(김경인, 2022). 그리고 일련의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상담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면서 보람을 경험하고 자신만의 상담 방법을 터득한다(권경인, 김지영, 2019). 이러한 상호의존적인 공존에서 상담자는 자기성찰을 통해 내면의 이질적인 정신 요소들을 인식하고 극복하며 상담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한다(김명희, 천성문, 윤정훈, 2021). 인간의 실존이 본질을 앞선다는 사르트르의 말처럼 인간은 현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현재 발생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다(권혁정, 2021).

비행청소년을 상담하는 상담자들의 타자철학은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를 성찰하고 발전시키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상담자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 비행청소년의 신체적 인식을 이해하며, 의식있는 주체로서 인정하고 환대한다. 상담자는 비행청소년과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 존중과 배려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한다. 이를 통해, 상담자는 비행청소년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으며, 그들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4. 소결

청소년기는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발달변화를 겪는 시기로 자신의 중요한 발달과업을 이루며 건전하고 긍정적인 성장을 이룬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들은 학업성취와 학교적응 문제, 가정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와 갈등을 겪으며 자아정체감이 결여되고 욕구불만과 갈등으로 일탈행동이나 비행과 같은 부적응 행동을 일으키기도 한다(김준호 외, 2018). 더욱이, 청소년 비행은 청소년기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상당수 비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결국 성인 범죄로 성장한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김지민, 손진희, 2017).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비행이란 청소년의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및 법률적 측면에서 청소년의 옳지 못한 행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의 규범을 부정하고 배척하는 반사회적인 행동이다(이현림 외, 2019: 9).

비행청소년 문제는 개인적 요인과 개인 외적 주변 환경의 관계적 특성으로 나뉜다.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으로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이다. 낮은 자아존중감은 부적응 행동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수동적인 대처를 유발하며, 낮은 자기통제력은 비행의 위험요인이 된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가족, 유명인, 교사, 친구 등을 동일시하며 역할 모델로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 문화에 노출된 청소년은 범죄성향이 높은 친구나 선배들의 영향을 받아 비행에 빠질 수 있다.

최근 한국 사회는 나와 다른 타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 비행청소년의 문제도 이와 맞닿아 경제적·사회적 차별과 배제 속에서 다양한 비행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분열과 갈등 속에서 타자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가 중요해졌다. 타자에 대한 논의는 헤겔의 변증법에서 유래되었으며, 타자는 대립적인 것을 동일적인 것으로 종속시키는 작업이다. 헤겔은 의식과 대상의 관계를 '앎의 계기'와 '진리의 계기'로 구별하며, 의식 안에 즉자존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타자와의 관계가 자기를 성찰하고 새로운 자기를 발전시키는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말하며, 순수한 자기인식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타자존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설은 주체와 타자들 사이의 관계와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타자의 개념을 도입했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다. 후설은 자아를 타자로 정의하고, 인격적 자아의 본질과 주위 세계와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려고 했다. 또한 타자와 자아의 공존을 강조하며, 이를 시간적 공동체로 설명한다. 하이데거, 사르트르, 레비나스, 퐁티는 후설의 현상학에 영향을 받았으며, 퐁티는 후설의 타자경험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관심을 가졌다.

비행청소년을 상담하는 상담자들의 타자철학은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를 성찰하고 발전시키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상담자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 비행청소년의 신체적 인식을 이해하며, 의식있는 주체로서 인정하고 환대한다. 상담자는 비행청소년과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 존중과 배려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한다. 이를 통해, 상담자는 비행청소년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으며, 그들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회복력을 이용하여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성장한다. 상담자의 발달과정은 자아 통합과 자기성찰에 의해 이루어지며, 경력이 많아질수록 자발적인 학습 선호도가 나타났다. 따라서 상담 관계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세계를 이해하고 내담자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배려해야 하며,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따라 타자와 관계 맺는 방식에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비행을 하는 아이들도 같다. 이에 어른은 타자를 인정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 상담자는 비행청소년을 공존의 대상으로 인정함으로써 타자성을 실천한다. 상담에서 타자성과 자기성찰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타자성을 추구하며 타자를 바라보는 것은, 나와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타자가 나와 같은 주체라는 것을 존중할 수 있는 성찰적인 자아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결국, 상담자는 내담자와 함께하는 상호의존적인 공존에서 자기성찰 능력을 강화하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Ⅲ. 연구방법

1. 내러티브 탐구

본 연구는 질적연구의 한 유형인 내러티브 탐구로 숙련 단계의 상담자가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와 그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내러티브 탐구는 경험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다(Clandinin, 2015; Clandinin & Connelly, 2007).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낸 이야기를 말하면서 그 이야기를 재확인하고 수정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 이야기를 다시 살아낸다(Clandinin, 2015; Clandinin & Connelly, 2007). 본 연구에서 참여자인 숙련상담자들은 상담을 시작하고 10년 이상의 경력이 쌓여가면서 '숙련'이라는 위치에서 자신이 살아낸 상담 경험을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면서, 그 경험을 다시 살아낸다. 그 과정에서 참여자는 자신의 경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숙련상담자의 내러티브 안에서 일어난 사건과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경험, 삶의 과제나 문제해결, 시대적 문화적 배경, 공간적 특성 등을 통해 비행청소년 상담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내러티브 탐구는 듀이의 영향을 받아 시간성, 사회성, 장소의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다(Clandinin & Connelly, 2007; Clandinin, 2015). 본 연구에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의 개념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시간성은 과거 경험이 현재의 삶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나 미래에 미치는 영향으로 참여자들이 상담자가 되고자 했던 과거 사건에서 처음 상담을 시작한 시점과 현재 그리고 상담자의 과거 경험과 미래 지향까지의 시간을 모두 의미한다. 사회성은 개인과 사회 상황을 동시에 유념하고 있는 상태로 초심에서 숙련이 되기까지 상담자의 개인적 사회 상황과 청소년 비행의 사회적 변화를 유념하여 작업하였다. 이 공유 차원은 인간이 어떤 경험을 하던 그들이 처한 상황, 만나는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장소는 내담자와 만나는 상담실, 가정, 보호시설, 소년원 등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적 의미와 앞으로 벌어질 특정 장소의 공간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성과 연결되어 있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2. 연구 절차

2.1. 연구참여자 선정

숙련상담자의 개념에서 대다수 상담자에게 일정한 수준의 수련 과정은 상담자로서 발달 수준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나 발달은 동일한 수준과 일련의 연속성을 보이지 않는다(Duncan & Reese, 2016). 상담사 경력에 따른 단계는 통일된 기준이 없으며, 연구자마다 다른 기준(김신애, 2018)을 적용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상담전문가들이 숙련상담사의 특성(남희경, 2016; 심흥섭, 1998; 전수경, 2016; Skovholt & Rønnestad, 1992)으로 언급된 숙련상담자의 조건과 상담자 발달의 동향 연구(정옥신, 2019)의 결과 등을 참조하여 숙련상담자의 기준을 적용했다. 다만, 비행청소년에 대한 상담 방식은 기관에 따른 차이가 있어 특정 상담으로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선정에 따로 기준을 두지 않았다(권경인 외, 2012).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에 맞는 연구참여자를 의도적으로 선택하기 위해 목적표집(purposive sampling)의 방법을 사용했다. 목적 표집은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는 대상을 표본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숙련상담자의 비행청소년 상담에 대한 경험을 탐구하는 연구는 숙련상담자가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자기의 경험을 면면이 드러낼 수 있는 자세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참여자를 구성하고 선정하였다. 첫째, 연구참여자는 숙련 단계 상담자로 비행청소년 상담 경력이 10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다. 둘째, 상담 기간 중 전체 상담 활동에서 비행청소년 상담이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담자이다. 셋째, 석사 이상의 상담 학위를 소지한 유급 상담자이다. 석사 이상의 조건은 상담학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과학자 실무자 모델을 염두하였다. 마지막으로 넷째, 자기의 경험을 꾸밈없이 진솔하게 개방하고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진술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함께 경험의 의미를 구성하기 때문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에 연구참여자의 풍성한 경험뿐 아니라 연구자와의 상호관계도 중요하다. 본 연구자의 참여자들은 연구자의 직장 선배나 학회의 지도자로서 연구참여자 선정에 고려할 점이 있었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이 그들의 경험에 대해 얼마나 솔직하고 호의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검토하고 고민했다. 연구자는 후보에 올렸거나 추천받은 5명의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의 의미, 그리고 연구참여자의 권리가 담긴 연구참여자 모집 공고문을 발송하고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5명의 상담자 모두가 연구 참여에 동의하면서 본 연구의 참여자가 되었다.

질적연구는 소수의 사례에서 개인의 주관적 체험과 의미를 깊이 있고 풍부하게 도출한다(Hoyt & Bhati, 2007).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상담 경력은 <표 Ⅲ-1> 연구참여자 소개에 제시하였다.

<표 Ⅲ-1> 연구참여자 소개

참여자	상담 시작	경력	학위	상담 시작 기관	현 소속 및 지위
A	2009년	14	박사수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B	2009년	14	박사수료		대학상담실 상담사
C	1999년	24	박사	소년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D	2011년	12	박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리랜서 상담사
E	2011년	12	석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첫 번째 연구참여자 A는 2009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파트타임으로 상담을 시작했다. 이전에 사설센터에 있었지만, 불안정한 근무환경은 그에게 맞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진로 선택에 있어 직업적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였다. 그는 청소년상담사 1급을 소지하였고 현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센터장이다. 연구자와는 2016년 연구자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입사하면서 인연이 되었다. 그는 연구자가 퇴사한 이후에도 든든한 동료이자 선배의 모습으로 어려움을 나눌 수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있는 조력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선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이었다. 하지만 전과는 다르게 A가 센터의 기관장이 되면서 업무량이 많아졌고, 자녀들의 나이가 어려 여유로운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쉽게 연락하지 못했다. 그러나 센터장으로서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강명령 대상자들만 상담하고 있다고 하여 다시 그에게 부탁하게 되었다.

두 번째 연구참여자 B 또한 A와 같이 2016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인연을 맺었다. 2009년부터 상담복지센터에 근무하던 B는 당시 상담팀장으로 카리스마가 있었고 매우 열정적인 상담자였다. 연구자와는 친분을 내세울 만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당시 비행청소년 상담의 비중이 다른 상담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다른 상담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참여를 부탁하게 되었다. B는 최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대학의 상담센터에 있다. B는 면담 전 연구자와 메일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나누며 연구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이 비행청소년이었다는 것을 밝히면서 청소년들의 비행 문제에 상담자뿐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연구참여자 C는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며 연구자가 속한 학회의 슈퍼바이저이다. 그는 20대 중반부터 소년원의 집단치료에 참여하여 20년 이상 비행청소년 관련 현장(학교폭력 피해·가해 교육기관, 대안학교, 쉼터, 소년원, 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소년원은 약물전담 소년원에서 5~6년 정도 집단치료를 하다가 약물전담 소년원이 없어지면서 여자소년원에서 10여 년 동안 집단치료를 운영했다. 연구자는 다른 연구참여자들이 대부분 사회 내 처분의 대상자를 상담한 경험을 제공해 주어 교정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의 경험을 깊이 있게 탐색하기 위해 연구 참여를 부탁했다. C는 자기의 경험이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는지를 연구자와 함께 논의하였고 현장 텍스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었다.

네 번째 연구참여자인 D는 기독교 사역을 하다가 2011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파트로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는 이전에 교도소나 보호관찰소 등에서 교육을 한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법원과 경찰서, 보호관찰소 등에서 비행청소년 관련 상담과 집단교육을 주로 맡게 되었다. D는 연구자가 적합한 연구참여자를 구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을 때 A에게 매우 적합한 상담자가 있다고 추천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을 받아 만나게 되었다. D는 청소년상담사 1급과 임상심리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등의 자격을 갖추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D가 하는 주된 업무가 연구자와 가장 비슷한 형태라는 점을 알게 되면서 그의 경험을 더 특별한 기대감이 생겼다. 하지만 D가 최근 원하던 자격증 시험에 낙방하고 실망감으로 소진을 경험하고 있었기에 사전면담지와 1차 면담 그리고 2차 면담에서 연구 참여의 자격에 대한 고민을 던졌다. 연구자는 소진이나 진로의 문제는 누구나 한 번에 완결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함께 지속되는 과정으로 보았기에 오히려 상담자의 이러한 어려움이 드러나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연구 참여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관심으로 연구를 구성하게 되었다.

다섯 번째 연구참여자 E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노인전문 기관의 센터장으로 일하다 상담자로의 직업전환을 이룬 경우이다. 그는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면서 클라이언트의 가족들을 이해하기 위해 가족치료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상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E는 상담을 배울수록 자기의 청소년기가 떠올랐고 '내가 청소년기에 이와 같은 상담을 받았더라면 나는 좀 더 달라졌을까?' 라는 생각이 종종 들었다. E는 2011년부터 프리랜서로 청소년 상담을 하다가 2019년 코로나로 인해 일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근으로 취업했다. 스스로 생계형 상담자라고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E는 인터뷰 내내 연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며 연구자의 질문을 곱씹고 연구자를 배려하는 인격적 성숙함을 풍겼다.

2.2.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내러티브 탐구에서 구성하는 텍스트는 객관적인 테스트라기보다 경험적이고 간주관적인 특성으로 인해 '데이터' 라는 용어 대신 현장 텍스트라고 한다 (Clandinin & Conelly, 2007). 본 연구의 현장텍스트를 구성하기 위한 주된 방법은 심층면담이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의 본격적인 면담 전 연구의 목적과 성격이 연구참여자들의 경험과 부합할 수 있는지 연구참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서면면담을 진행하였다. 이후 서면면담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는 여러 차례 연구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같은 상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담자로서 그리고 비행청소년 상담의 선배로서 비행청소년 문제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며 비행청소년 상담자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심층면담을 통해 상담 과정에서의 경험과 그 경험과 관련된 자신의 직업적 가치의 변화와 개인적 성찰 경험을 다루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상담을 시작한 후부터 지금까지의 연보를 구성하고 상담자로서의 공적인 삶과 상담자로 살아가기 위한 개인적 삶의 고비와 애씀을 돌아보며 자기의 경험을 성찰하였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자기의 살아온 삶을 한눈에 바라보며 삶의 순환을 이해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말과 행동에서 느껴진 감정과 생각을 기록하고 연구자의 성찰 또한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연구자는 면담 내용을 녹취하고 전사한 후 이해되지 않거나 보충이 필요한 부분은 정리하여 다음 면담의 질문으로 구성하고 다음 면담이 어려운 경우 메일이나 전화로 물어 확인했다.

본 연구의 심층면담은 2022년 11월 18일부터 2023년 3월 17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1차 심층면담에서 다시 한번 연구참여자의 자발적 참여 의사를 확인했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편의에 맞춰 면담 시간과 장소를 결정했고 참여자별 심층면담은 각 2회로 쉬는 시간 없이 120~180분 정도 진행했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후 자료수집을 위한 녹음을 했다. 면담에서 수집된 자료는 당일 전사를 원칙으로 하였고 전사가 끝나면 녹음된 파일은 바로 삭제하였다. 3차와 4차는 Ⅳ장을 구성하면서 연구자가 참여자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혹은 중요한 주제를 누락시킨 것은 아닌지 피드백을 받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별 면담 일정은 <표 Ⅲ-2>와 같다.

<표 Ⅲ-2> 연구참여자별 면담 일정

구분	서면면담	1차	2차	3차	4차
A	2022.11.18. 이메일, 전화	2022.11.21. 참여자 센터	2022.12.05. 참여자 센터	이메일 전화	SNS, 전화
B	2022.11.19. 이메일, 전화	2022.11.22. 참여자 센터	2022.12.08. 참여자 센터	이메일 전화	SNS, 전화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C	2022.11.24. 이메일, 전화	2022.11.26. 참여자 센터	2023.12.23. 참여자 센터	이메일 전화	이메일 전화
D	2022.12.09. 이메일, 전화	2022.12.11. 참여자 센터	2022.03.17. 참여자 센터	이메일 전화	SNS, 전화
E	2023.01.25. 이메일, 전화	2023.01.30. 참여자 센터	2023.02.13. 참여자 센터	이메일 전화	SNS, 전화

2.3. 중간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

중간 연구 텍스트 작성은 현장 텍스트 분석과 해석의 시작점이며, 다층적이고 다양한 현장 텍스트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염지숙, 2022). 내러티브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분석이 아니라 삶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생각하는 것으로 그들의 경험적 기원과 밀접하게 연관 짓는 것이다(Clandinin, 2015: 57). 다우니와 클랜디닌(Downey & Clandinin, 2010)은 현장 텍스트에서 중간 연구 텍스트로, 중간 연구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 이동할 때 주목해야 할 점에 대해 깨진 거울이라는 은유를 사용했다(염지숙, 2022: 138). 이는 거울이 깨진 패턴에 주목하면서 깨진 조각을 다시 짜맞추기보다 이 깨진 조각들의 특이성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경험의 특이성에 주목하면서, 현장 텍스트를 반복해서 읽었다. 이때 참여자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이 있는지, 그 일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면서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 안에서 작업하려고 노력하였다. 참여자들의 상담 경험 이야기는 각자가 지닌 경험의 고유성에 따라 다양했으며, 중간 연구 텍스트는 내러티브 기술(narrative accounts)(Clandinin, 2015: 17)의 형태로 작성되었다. 중간 연구 텍스트 작성 중 궁금한 점,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는 현장 텍스트로 돌아가 확인하거나 추가의 짧은 면담을 진행하였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2.4.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

현장 텍스트에서 중간 그리고 마지막 연구 텍스트로의 이동은 복잡하고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이다((Clandinin, 2015: 73). 연구 텍스트는 기존의 형식주의나 환원주의로 돌아가지 않고 연구자와 참여자의 다양하고 다층적인 삶이 잘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염지숙, 2003). 연구자는 연구 텍스트 작성에서 시간성, 사회성, 장소의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 내에서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했다(임진영, 2016). 또한, 독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이 연구가 독자에게 어떤 가치가 있을 것인가를 고려하여 연구 텍스트를 구성(Clandinin & Connelly, 2007)하고자 했다.

연구자는 시간성과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청소년기부터 비행청소년 상담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숙련상담자가 되기까지의 경험을 서술했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눈으로 그의 세계를 이해함으로 일어난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였다(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사회성을 염두하면서, 연구참여자가 상담자로서 내담자인 비행청소년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였는지와 이러한 상호작용의 경험과 관련된 슈퍼바이저, 동료, 가족과의 관계 경험을 기술했고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와의 상호작용 방식도 함께 서술했다. 장소성과 관련하여서는 내담자가 존재하는 공간에서 관련 기관의 공간까지 확장하여 연구참여자가 상담자로 성장하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내러티브 분석 전략 중 의미를 분석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주제 분석 방법을 선택했다. 주제 분석은 텍스트의 내용을 탐문하는 것으로 '어떻게 이야기되었는가'보다 '무엇이 말하여졌는가'가 중요하다. 또한 주제 분석은 연구참여자가 알려주는 것보다 연구자가 들은 것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조영달, 2015: 295-296). 따라서 연구자가 되도록 많은 이야기를 수집한 후 귀납적으로 개념의 틀을 만드는 전형적인 묘사 전략으로 여러 사례의 공통적인 주제 요소를 찾아 이론화하는 데 유용하다. 연구자는 중간 연구 텍스트를 바탕으로 비행청소년 상담이라는 특수한 상담의 영역에서 숙련상담자라는 역할의 상담 경험을 통해 비행청소년 상담의 독특성을 조망할 수 있는 Ⅴ장을 구성하였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3. 연구의 윤리와 신뢰성

상담은 무엇보다 내담자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기에 비밀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와 더불어 연구참여자의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준수했다. 특히 '비행'이라는 조건에서 '청소년'이라는 취약한 대상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실명 대신 가명을 사용했으며 민감한 정보는 무작위로 변형하거나 삭제하는 등 윤리적인 문제의 위험에 대비했다. 또한, 연구 시작 전 연구윤리 과목을 이수하고 잠재적인 윤리적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했다. 그리고 2022년 11월 15일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221008-2A)을 얻었다.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참여자와 관계를 맺는 경험에 대한 경험이다(Clandinin & Connelly, 2007: 189).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전반에서 무엇보다 참여자의 권리 존중을 우선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하기 전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절차를 안내하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동의서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와 의미 있는 작업을 하기 위해 연구자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주의했고, 면담 중 연구참여자가 원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녹음을 중단하고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1차 심층면담 전에 서면면담지를 공유하고 참여자들의 이야기가 더 풍성하게 나올 수 있도록 준비했다. 면담의 내용은 최대한 연구 목적에 맞춰 진행하였고 참여자의 이야기를 경청의 자세로 따라갔다. 또한, 모든 면담 장소 및 시간 선정은 연구참여자의 편의에 맞춰 결정했다.

내러티브 탐구가 학문적 구조 속에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이야기가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있다. 따라서 내러티브 탐구의 가장 큰 딜레마 중 하나는 연구 텍스트의 검증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의 의미 구축 과정에서 연구자의 편견, 기억의 오류, 상황에 대한 오해, 분석과 해석의 과정에서 내러티브에 대한 진정성이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김영천, 2013: 192).

본 연구는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을 지양하고 연구의 엄격성 확보하기 위해 구바와 링컨(Guba & Lincoln, 1989)이 제시한 진정성 준거를 따를 것이다. 구바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와 링컨은 전통적인 질적연구의 타당도를 수정한 1989년 「제4세대 평가(Fourth Generation Evaluation)」를 출간했다. 진정성 준거는 제4세대 평가에 가장 적합한 타당도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고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조재식, 허창수, 김영천, 2006: 72-74).

첫째, 공정성(fairness): 연구결과에 대한 모든 참여자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구바와 링컨은 협약(negotiation) 과정에서 공개적이고 동등한 기술과 권력을 유지하면서 관련성 있는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존재론적 진정성(ontological authenticity): 연구참여자들이 연구 과정에서 이해의 폭이 확장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셋째, 교육적 진정성(educative authenticity): 존재론적 진정성에서 발전된 형태로 참여자들이 외부 주체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통해 교육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넷째, 촉매적 진정성(catalytic authenticity): 촉매적 진정성은 다루는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평가로부터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증거를 말한다. 다섯째, 전술적 진정성(tactical authenticity): 전술적 진정성은 자기 증언, 다른 그룹에 대한 평가 시도, 연구참여자와 연구자 유사성으로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를 위해 연구참여자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연구자는 중간 연구 텍스트 작성 후, 내러티브 기술의 초안을 참여자들과 함께 읽고,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러티브 기술을 수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 연구 텍스트를 작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의 신빙성이 향상하면서 연구참여자의 삶에 대한 연구자의 관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연구참여자들은 상담자로서 자기 성장을 발견하고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를 벗어나 비행청소년 문제를 폭넓게 인식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편견과 선(先)이해 등을 검토하고, 분석 과정에서 지도교수와 박사 이상 2인의 피드백을 받아 연구자의 판단이 참여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Ⅳ. 비행청소년 상담 경험 이야기하기

1. 연구참여자 A의 내러티브: 상담자의 정체성 찾아가기

1.1. 손가락만 빨던 찌질이의 변신

A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센터장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그는 매우 리더십이 있고 강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장난기 많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A가 상담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은 성인이 된 이후였다. 그는 병역 특례로 3년간 복무 중 갑작스러운 공황증세가 생기면서 삶의 변화 동기를 맞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공황에 대한 인식이 적었고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했다. 그는 알 수 없는 병에 두려움을 느꼈고, 갑자기 공황이 찾아오면 진정제를 맞는 것밖에 다른 방법을 알지 못했다. 그러다 병이 심해지면서 신경증으로 상담을 처음 받게 되었다. 그는 온화한 미소로 자신의 마음을 읽어주는 상담자를 만나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 점차 상담의 매력에 빠지면서 상담자의 특성이 자기와 비슷하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나도 상담을 하면 좋겠다’라는 새로운 꿈이 생겼다.

A는 상담을 공부하면서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즐거웠고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인생도 재미있어졌다. 그리고 자신의 가정환경에서 왜 상담사를 직업으로 선택했고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 “[나의 청소년기는] 찌질이죠. 뭐 다른 말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한숨) 그냥 [뭔가] 하고 싶은데 (잠시 멈춤) 그냥 그 뭐랄까 ‘손가락만 빨고 있는 찌질이?’ (중략) 비행청소년 만나면서 [비행에 대한] 아쉬움이 들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되게 부러운 것도 있었어요. 자기주장을 한 거잖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그런 과감한 선택을 한 거잖아요. (중략)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도 있고 아이들이 부러운 것도 있고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그는 자신이 상담자가 된 과정에서 자신이 했던 선택들이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지난 과거의 자기 경험이 지금의 선택을 하게 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해 선택한 상담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자신을 도왔다는 것을 이해했다.

1.2. 안전한 상담을 위한 안정된 환경

A는 석사졸업 후 병원 세팅이 되어 있는 센터에 들어갔다. 병원과 협력하는 구조라 많이 배울 수 있겠다는 큰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상담 경력이 적은 초심상담자라서 그런지 조기 종결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A도 조기 종결로 인해 상심이 크던 차에 센터에서는 조기 종결의 원인을 찾겠다며 A를 지속적으로 압박했고, 결국 3개월을 버티다 스트레스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 “너무 힘들었어요. 뭐냐면 드랍이 돼버리니까 그런 스트레스 또 압박도 있었고 (중략) 어쨌든 초심인데 이거를 보호를 잘 안 해주고 ‘원인이 뭔 거 같냐’, ‘이렇게 되면 오래 못 한다’ 매일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죠”

A는 이 사건으로 상담사도 하나의 직업으로 안정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상담을 시작하고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가 이야기하는 안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A는 연구자와 직업적 안정에 대한 욕구와 긴장감에 대해 논의하면서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은 일에 대한 몰입을 방해한다고 하며 자신의 직업적 긴장과 불안감을 밝혔다.

A는 2008년 상담복지센터에 입사해 본격적으로 상담을 시작했다. 청소년을 만나는 것은 그에게 즐거운 일이었고 남자 상담자라는 특성으로 다른 상담자들이 꺼리는 어려운 사례도 자주 받으면서 상담에 대한 자신감도 쌓여갔다. A는 경력이 쌓이면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승진에 도전했다. 그러다 우연히 센터장 공채 소식을 접하고 삶의 변화를 꿈꾸게 되었다. 그는 현실적으로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역할이 ‘상담자’에서 ‘행정가’로 바뀌는 것은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였다. 또한, 센터장의 위치에서 혼자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은 점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차 많아지고 사업이 커지면서 책임감과 외로움도 늘어갔다.

> “체제가 바뀌어야 하더라고요. (중략) 게다가 여기가 평가를 되게 중요시하고 다음에 실적, 그러니까 이거를 못 하면 어쨌든 저 스스로 여기서 평가를 못 받게 되니까. 센터도 이미지가 떨어지는 거죠. 어쨌든 상당히 좀 부담이 됐고 원치 않은 포지션에서 그런 업무를 한다는 게 힘들었어요.”

A는 행정가와 상담자의 두 역할을 모두 해내기에 버거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에게 직업적 안정이란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상담에 집중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었다.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안정된 환경을 만들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다시 상담자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싸워나가야 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1.3. 교육가와 상담자 그 사이의 혼란

A가 상담을 시작한 센터에서는 비행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남성 상담자가 맡았다. A는 센터에 남성 상담자가 별로 없는 관계로 상담을 시작하면서부터 비행청소년 상담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었다. 연구자는 비행청소년을 만난 경험이 A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가 가장 궁금했다. 하지만 그는 연구자의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않고 한참을 침묵하였다. 연구자가 이런 침묵이 어색한 듯 가볍게 웃자, 그도 연구자를 의식하듯 어렵게 입을 떼고 “제 대답이 식상하게 들리겠지만 아이들에게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연구자는 그의 침묵에서 이 말의 무게를 가늠해 볼 수 있었지만, 무엇을 배웠는지는 추측하는 것은 어려웠다. 누구나 각자의 경험에서 성찰이 일어나는 사건과 경험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A는 초심에서 비행청소년을 만났을 때 ‘왜 그럴까?’, ‘왜 이게 안 되는 걸까?’라는 의문이 가장 많이 들었다. 교육을 좀 하려고 하면 상담에 오지 않거나 연락을 피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무기력을 느끼기도 했다. 어떤 날에는 10번씩 약속을 미룬 아이에게 화가 치밀어 올라 잠을 이루지 못한 적도 있었다. 그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러나 경력이 쌓이고 많은 사례의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들의 가정환경과 이들이 경험했을 세계가 그려졌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그들의 행동이 이해되고 자연스럽게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유연해졌다.

> “비록 잘못됐었을지언정 그 순간 그 아이는 그 선택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초심 때는 교육적으로 많이 했다가 뒤늦게 애들 입장에 대해서 아니까 그게 인정이 되니까.”

A는 연구자의 감탄에 그럴만한 일이 아니라며 초심상담자 때 받았던 성폭행 가해 청소년의 사례를 회상했다. 그는 비행 상담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막막하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런데 상담실에 들어가 막상 아이를 보니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너무나도 어리고 밝은 아이라 그 사건 내용도 믿어지지 않았다.

> “그때는 초심이어서 깊게 들어가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중략) 배경이 어쨌든 재범하지 않게끔 잘 지도하는 목적도 있지만, 아이가 사회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 교육적으로는 많이 했는데 아이의 어떤 내면의 어떤 이루어지는 그런 인지적이라든가 정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세하게는 좀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A는 아이가 잘못은 했지만, 이미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했는데 상담으로 인해 자신을 자책하면서 괴로워할까 봐 더 파고드는 게 어려웠다. 연구자는 A의 어두워진 표정에서 그가 걱정한 ‘괴로움’의 주체가 누구 인지에 대해 질문을 했다. 아이가 느낄 수 있는 괴로움을 상담자가 짐작한 것인지 누군가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게 만드는 자신에 대한 괴로움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A는 연구자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두 가지 감정이 모두 있었던 거 같다고 하였다. A는 초심상담에서 겪었던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지금은 그래도 더 버텨줄 힘은 생긴 것 같다며 어깨를 들썩이고 가볍게 웃었다. 연구자 또한 비행청소년 상담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비행을 했는지 묻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마치 이러한 질문이 아이를 불편하게 만들어 라포형성에 방해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이러한 경험에서 아이들과 경험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했던 긴장을 이야기하자 A는 자신이 느꼈던 괴로움 또한 그 긴장과 비슷했는데 경력이 쌓이면서 점차 그런 긴장은 무뎌진다고 하였다.

1.4. 하나의 씨앗이 될 수 있다면

A는 초심에서 숙련으로 상담의 경험이 쌓여갈수록 상담자로서 성장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내담자의 부족한 동기는 상담자가 어쩔 수 없는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비행청소년들은 처벌의 하나로 상담을 받으면서 상담에 대한 동기가 없었고 심지어 상담자를 하나의 도구처럼 이용하기도 했다. A는 시간만 채우려는 아이들의 태도와 아무런 선택이 없는 자기의 상황에서 무력감을 느끼게 되었다.

> “정 안 되면 이게 [처분 변경] 해야 하는데 그 과정까지가 좀 쉽지 않은 거죠. 안 나와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그만하면 되겠다고 해서 신청 변경을 해야겠다. 했는데 또 왔어요. 와서 ‘그래 이제 잘해보자’ 라고 다시 이제 서로 구조화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아이도 다 수긍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안 돼요. 연락이, 기한이 있으니 또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까 한다는 건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비행청소년 상담은 내담자 특성상 재범으로 인해 여러 상담자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A는 자신과 상담했던 아이가 다른 상담자를 만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가 염려하는 것처럼 자신의 상담이 정말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이 되었다. 연구자 또한 상담을 시작한 이후로 계속된 고민이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영역의 고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솔직한 A의 이야기에 부족함을 숨기고 싶던 마음이 들통난 듯 부끄러웠다.

> “최소한의 뭐랄까요. 도움 효과는 아니어도 이 사람이 그래도 ‘나에게 되게 애를 썼구나’, ‘나를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줬구나’ 이게 저는 그래도 그나마 아이한테 좀 그다음 상담이라든가 다음 과정에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그냥 씨앗이라고 할까요. 그런 자원이 되고 싶은 거죠.”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A는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아이들의 선택을 인정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초심상담자일 때는 간식을 신경 써서 챙겨주거나 상담 전에 공들여 연락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면, 경력이 쌓이면서 아이들이 던지는 말에 긍정적인 지지나 반응을 보이는 데 신경을 썼다. 그는 아이들이 살아온 환경에서 대개 부모와의 소통의 부재를 경험하며 긍정적 지지가 부족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A는 '상담자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했고 부모는 아니지만 마땅히 아이들이 경험했어야 할 정서적 지지를 해주기로 결심했다. A는 아이들이 자기의 자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상담자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느꼈다. 초심상담자 때는 오히려 그런 마음이 커서 부담을 느끼기도 했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며 적절하게 반응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연구자는 그의 경험을 통해 연구자가 그동안 지녔던 부담감이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연구자가 A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했을 때 아이들도 충분히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겠다"고 반응하자 그는 쑥스러운 듯 멋쩍게 웃었다.

1.5. 여전히 쉽지 않은 상담

A는 밝은 성격으로 비행청소년들과 격이 없이 관계를 형성해 갔다. A는 아이들과 웃음 코드가 잘 맞는다고 생각했고 자지가 배려하는 만큼 아이들도 자기의 뜻을 따라줄 거라 믿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A와 편한 관계가 되자 오히려 상담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았고 상담 약속도 미루기 일쑤였다.

> "아이가 온다고 하니까 믿었는데 애는 안 오고 저는 또 일이 있으니까 일정을 놓치고 근데 애들이 끝내야 하는 기간들이 있거든요. 넘 가볍게 대해주니까 아이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도 있었던 거 같아요"

연구자는 상담자의 상담 경력에 따라 아이들의 이러한 반응에 차이가 있는지 물었다. A는 10년 이상 비행청소년 상담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쉽지 않구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나’ 를 느꼈다고 말했다. 그의 말끝에 한숨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면서, 그 한숨의 깊이에 연구자와 A 모두 크게 웃어 버렸다. 연구자는 중급상담자로서 비행청소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숙련상담자의 ‘쉽지 않구나’ 의 의미가 경력이 쌓여도 달라지지 않는 것인지 새로운 어려움이 또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했다.

> “일정도 그렇고, 아이들하고 관계를 맺는 게 있잖아요. 이제 동기가 없는 아이들하고는 동기를 부여하면서 본인이 어쨌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이거를 잘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처분을 내려준 거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 일이 없겠죠.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어쨌든 상담자와의 그런 관계가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잠시 생각에 빠지며 침묵함) 저하고 안 맞는 애들하고 혹은 아예 마음이 닫힌 아이들하고는 이거를 유지하는, 이거를 계속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숙련상담자가 되어도 비행청소년 상담의 어려움은 여전했다. A는 수강명령 대상자들을 만나면서 시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과 상담자와 긍정적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는 점이 늘 답답했다. 그는 자신의 성격이 자유롭게 풀어주고 강요하는 부분이 없어 대상자들과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다가, 자신이 전화를 자주 못 하고 소홀하게 대했던 것은 아닌지 지난 상담을 성찰했다. 그는 센터장이 된 이후 갑자기 회의가 잡히거나 출장을 다녀오는 일이 잦아지면서 사전에 전화로 상담 시간을 확인하거나 상담에 오지 않는 대상자들에 대한 사례관리가 미흡했었다고 하였다. 그는 이제 숙련이 되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여전히 상담 현장에서 후회와 아쉬움이 메아리처럼 남아 있었다.

1.6. 나는 괜찮은 상담자인가?

A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청소년기를 보냈을 때 성인 이후에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내담자들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도울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늘 고민했다. A는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차단하는 전략을 세웠다. 그는 가정 내에서 부모와의 갈등이 비행의 원인이 된다면 내담자와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갈등을 줄일 방법을 탐색하고 부모 교육을 진행했다. A는 많지는 않지만, 일부의 아이들은 상담자의 이러한 노력을 알아주고 삶을 변화하고 감사함을 표현한다고 전했다.

> “대부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종결되고 나서 나중에 연락이 와서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상담이 자기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었다. 선생님이 옆에 있어 줘서 되게 힘이 되었다. 뭐 이런 말들이 가장 고맙죠.”

비행청소년들에게 좋은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상담자의 자기 정체성을 더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A는 내담자를 만나 교육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공감적이고 온정적인 상담자가 될 것인지 순간순간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다. 그렇기에 비행청소년 상담을 위해서는 내담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상담자 본인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서로가 안전할 수 있다.

A는 면담 과정에서 자신의 지난 상담 경험을 돌아보며 여운이 남는다고 하였다. 그는 현재와 미래의 삶에 급급하게 살다 보니 과거를 돌아보는 기회가 없었는데 면담을 통해 현재 쓰고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알게 되었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커졌다고 했다. 연구자는 A와의 면담에서 보이지 않지만, 그가 어떠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이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상담자’를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이게 기준이다 보니 ‘제가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 속상하고 답답하고 화나는 감정을 저는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는 면담을 마치면서 지금 자기의 모습이 그동안 지향했던 좋은 상담사의 모습과는 다르다며 ‘나는 괜찮은 상담자인가’라는 성찰의 질문을 던졌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2. 연구참여자 B의 내러티브: 임상에서 배운 나만의 철학

2.1. 실망이라는 무기를 휘두름

B는 자신이 유독 비행청소년 상담을 많이 했던 이유가 자신의 청소년기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청소년기를 '반항'이라는 단어로 소개하였다. 연구자는 너무나 반듯한 그의 이미지에 반항이라는 용어가 자칫 '과장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연구자가 말이 안 된다는 듯 '반항이요?'라고 되묻자, 그는 전교 2등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최하위권이 되기까지의 생생한 경험을 들려주었다. B는 고입 시기가 되면서 어울리던 친구들을 따라 공고[공업고등학교]나 농고[농업고등학교]에 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의 성적이 좋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강제로 떨어져야 했다.

그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아무리 공고에 보내달라고 사정해도 아버지와 학교장의 반대로 공고에 지원할 수 없었다. 그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거기 가면 분명히 우리 아버지는 좋은 대학에 가길 바라겠지', '나는 개미처럼 공부나 하겠지'라는 반감이 일어났고 그때부터 반항의 길로 들어섰다. 그 시작으로 무단결석과 가출을 감행했고 화가 난 아버지의 통제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점점 더 실망스러운 성적표로 반격을 꾀했다. 그는 결국 전교 2등, 학급 1등으로 들어간 학교에서 1년 만에 전교 꼴등의 역사를 썼다.

연구자는 처음 B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뛰어난 성적을 가진 자녀에게 기대한 마음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었기에, 어린 학생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며 스스로 삶의 주인임을 주장하고 있었을까 궁금함이 들었다. 연구자가 만나는 아이 중에 이런 사례가 없었기에 그의 이야기가 더욱 흥미로웠다. 그는 연구자의 반응을 보며 단지 고등학교의 진로 선택의 문제뿐 아니라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자신이 주체가 되지 못하는 상황을 견디기 어려웠다고 했다.

> "친구들하고 학교도 잘 안 가고 가출도 많이 하고 나는 그냥 여행 간 건데 이제 우리 아버지는 선생님은 이제 가출이라고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친구들하고 이게 한 달. (한 달이요?) 이렇게 길면 한 달 이렇게 갔다 오고 가출도 하고, 자세히 얘기하기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는 어렵지만, 하여간 흔히 우리가 비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웬만한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본드도 불어보고 절도부터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애들한테 다른 상담자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게 없었어요. 나 같고 친구들 같으니까."

B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구자가 지금 만나는 청소년이 30년 뒤에 이러한 모습이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웃음이 터졌다. 가출, 흡연, 음주, 절도, 폭행, 본드까지 짧은 시간 폭주하듯 쌓아온 비행경력이 대단했다. 연구자는 그의 청소년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만나는 아이들의 부모가 느끼는 실망이라는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짐작되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2.2. 100개의 칼자국과 90%의 좌절

B는 청소년상담 기관에서 다른 상담자들이 꺼리는 비행청소년 상담을 도맡아 하면서도 어려움을 잘 몰랐다. 자기의 경험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쉽게 공감할 수 있었고 웬만큼 큰 사건에서도 놀라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10년 이상 경력이 쌓이고 사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익숙해지기보다 좌절의 경험이 늘어났다.

"한 90% 이상이 좌절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같이 센터에 일해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상담자가 되게 유능감을 느끼기에는 최악의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늘 좌절스러워요."

연구자 또한 최근 상담하던 아이가 갑작스럽게 구인되어 상담자로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던 터라 그의 좌절에 공감이 일어났다. B는 연구자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전에 상담했던 한 여중생의 사례를 떠올렸다. 연두(가명)는 보호관찰을 받는 중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해 심한 자해 행동으로 폐쇄병동에 입원했던 내담자이다. 여름에 반팔 티셔츠 차림으로 센터에 처음 방문했는데 티셔츠에 가려진 부분을 제외하고는 빼곡히 칼자국이 나 있었다. 그는 상담실에 들어가 아이와 칼자국을 세다가 100개를 넘기고 숫자 세기를 포기했었다. 연두는 상담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마지막으로 상담자에게 전화했던 일은 웬만해서 놀라지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않는다는 B에게도 충격이었다. 늦은 밤 연두의 수화기 너머에는 사이렌 소리가 크게 울리고 있었다. B는 직관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아이를 진정시키며 무슨 일인지 물었고, 연두는 자기가 사람을 찌르고 도망 중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절망을 느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에게 자수하라고 권고하는 것밖에 없었다.

>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구요. 여자애가 좀 빼빼하고 호리하고 그냥 그러니까 꼬마애가 사과하라고 하니 술 먹은 20대 남자애들이 하겠어요? ‘에이 조그만 게’ 이러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서 가방에 있던 칼을 꺼내서 한 명을 찌른 거죠.”

연두와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상담자로서 늘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다. 그럴 때면 일에 대한 회의가 밀려오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반복되는 좌절에서 상담자로서 부족함을 탓하며 버티는 것이었다.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는 눈이 마주치면서 한동안 말없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의 한숨은 반복된 실망과 좌절에 대한 서로의 공감과 위로였다.

2.3. 답을 찾아가는 아이들

B는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쟤는 도대체 무슨? 왜 저런 얘기를 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담자들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었다. 조금만 생각해도 크게 문제가 될 상황인데 바로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하거나 CCTV 등의 증거가 있어도 절대 아니라고 발뺌하는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른 뇌 구조를 가진 새로운 생명체 같았다. 비행으로 분류된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다 보니 마음을 얻는 애씀의 과정이 상담의 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이제는 관계가 잘 형성되어 친해졌다고 생각되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다반사라 상담자의 인내가 요구됐다. 관계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맺기에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기에 장기적으로 상담이 진행되면 좋겠지만, 법원에서 처분으로 상담을 받게 되면 통상 10회에서 15회기의 단기 상담이 현실이었다. 상황에 따라 더 선택해서 할 수는 있지만, 내담자들에게도 처벌이다 보니 동기가 떨어져 연장 없이 회기만 채우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어떤 상담자들은 '차라리 그냥 자해하고 우울한 애들을 만나겠다'며 사례를 넘기기도 했다.

B 또한 아이들을 향해 전혀 답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자신을 찾아왔던 박미니(가명)를 통해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미니는 상담실 바닥에 침을 뱉으며 '아저씨가 뭔데 지랄이세요'라는 말로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했다. 그런데 상담이 종료되고 10년쯤 지나 상담자에게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해 왔다. B는 자신의 판단과는 다르게 잘 살아가는 미니를 통해 깊은 반성을 했다.

> "진짜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가 한 10년 지나서 인사를 꼭 하고 싶다는 거예요. (중략)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너무 잘 지내는 거에요.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것도 하고 나름 직장생활도 하고 결혼할 남자친구도 있고 너무 성실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내가 애들을 못 믿었구나' 되게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게 이 친구의 인생 마지막 날 모습이 아니겠지'라고 늘 생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연구자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자신의 상담자를 기억하고 다시 만나기까지의 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되지 않았다. 연구자 또한 한 사람의 상담자로서 미니가 지독한 사춘기에서 벗어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힘의 뿌리에 상담자의 진심이 닿아 있었다는 것이 가슴 벅차게 감사함으로 느껴졌다. B는 미니 외에도 강간미수로 센터에 의뢰되었던 범이(가명) 이야기를 꺼냈다. 범이는 상담 내내 말도 없던 아이였는데 수년이 지나 입대를 앞두고 연락이 왔었다. 범이는 상담을 거부하면서도 상담자가 전해준 편지에서 자기를 믿고 응원해주는 상담자의 진정성을 받아들였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상담이 잘 안되니까 편지를 썼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러 면에서 좀 많이 화나는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 근데 난 네가 그렇게 평생 살 것 같진 않다.' 뭐 그런 내용이었던 거 같아요."

B는 그때의 일을 회상하며 아이들이 어떻게 변할지는 정말 모른다며 변화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을 강조했다. 연구자는 B의 이야기 속에서 아이들은 어른들의 걱정보다 진심을 받아들이는 지혜와 더 잘 살아가는 힘이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느껴졌다.

2.4. 25일의 심판과 새로운 도전

B는 '약속된 시간에 오면 만날 수 있는 기다려주는 선생님'이라는 좋은 어른의 모습을 남기고 싶었다. 그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기의 사정으로 상담에 늦거나 시간을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늘 상담 시간 10분 전부터 일을 멈추고 내담자를 기다리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다. 또한 5회차 상담이 있으면 상담 전에 1회차부터 4회차의 모든 상담 일지를 미리 숙지하였고, 15회차 상담이 있으면 1회부터 14회차까지 매번 다시 반복해서 읽으며 내담자들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만큼 내담자를 만나는 데 진심이었고 상담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상담에서 별로 배우는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며 자신의 한계를 느꼈다. 그는 결국 80번이 넘는 25일을 보내고 직장을 나와 대학원에 입학했다. 현실적인 상황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그가 세운 25일의 규칙을 스스로 어길 수는 없었다.

"매달 급여일이 25일인데, 25일마다 제가 그 달력에다가 내가 이번 달에 상담자로서 배우거나 혹은 생각하게 된 거나 상담자로서 내가 성장하는 데 뭔가 도움이 된 게 있는지를 늘 적었거든요. 월급이 1순위가 되면 나 여기 그만둬야지. 월급도 얼마 안 됐는데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점점 쓸 게 없더라고요. 별로 배우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계만 계속 느끼니까 이제 여기서 뭔가 이렇게 좀 변화를 줘야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B는 평소 존경하던 교수님을 따라 박사과정에 들어섰다. 대학 상담실은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도 받았고 청소년 상담이라고 해도 호소하는 문제나 내담자의 환경에 큰 차이가 느껴졌다. 그는 새로운 센터에서 첫 상담을 한 후 큰 충격을 받았다. 내담자가 일주일 동안 상담했던 내용을 떠올리며 자신의 문제를 돌아봤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그는 내담자의 말은 전혀 믿을 수 없었고 마치 사기를 당하는 것처럼 전혀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센터에서 내담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온전히 수용하는 데 꼬박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정도로 바뀐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다.

>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학교에 상담하는 거 정말 천국 같았어요. 여기 학교 처음. 왔을 때 이런 데가 있구나. 내가 정말 힘든 데 있었구나. (중략) 근데 조금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뭘 모를 때 학사 졸업하고 바로 좀 힘든 데서 일찍 매를 맞은 것 같아요.”

비행이라는 문제행동에는 수많은 사건이 있고 행동 양상은 다르지만, 내담자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상담에서 상담자를 성장할 수 있게 도운 것은 내담자의 솔직한 이야기였다. 그는 만약 그 내담자가 진짜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책으로만 경험했을 텐데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의 ‘귀함’을 깊이 느꼈다. 그는 상담 초기에 아이들을 만나기 전 의뢰서를 통해 미리 어떤 문제를 지닌 아이인지 평가했던 과거를 고백했다.

그는 매달 25일 아이들에 대해 그리고 상담자인 자기에 대해 늘 성찰한 시간이 쌓여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아이들의 행동에 ‘나름의 사정과 이유가 있겠지’라는 마음가짐이었다. 연구자는 B의 이야기를 들으며 연구자의 내담자뿐 아니라 쉽게 평가되는 아이들이 떠오르면서 어른인 우리가 얼마나 여유있게 그들을 이해하고 기다렸었는지 돌아보며 반성하게 되었다.

2.5.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B에게 비행청소년 상담은 90%의 좌절과 죽을 만큼의 힘든 상황 속에서 기쁨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과 보람을 남겼다. B는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10대에 방황하던 자기와 친구들의 모습이 떠올랐고 톡톡 튀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다. B는 매번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이들에게 훈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사랑이 전제된 훈육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저지른 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많은 상담자가 비행청소년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야기하며 자기의 초심상담 경험을 떠올렸다. 그는 처음 내담자를 만났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커서 좋게만 아이들을 대했었다. 그러나 경력이 쌓이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아이들을 보게 되었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도와 교육을 하게 되었다.

> “따뜻하게 품어주기도 해야 하지만 따끔하게 해줘야 할 얘기는 해줘야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쨌든 법을 어긴 건 누군가한테 해를 입혔다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그게 부당하고 억울하더라도 책임질 수 있게 해줘야 해요.”

연구자는 상담 경력이 쌓이고 이제는 만나는 대상도 다양해졌는데 비행청소년 상담에 대한 B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했다. 그는 10년 이상 비행청소년을 상담하면서 바꿀 수 없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꼈다고 한다.

> “지속적으로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는, 학대를 당하고 있는 상황. 전혀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가지만 가정에 돌아가면 여전히 그 아이가 겪어내야 할 환경은 그대로인 상황들 그리고 뭔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지를 갖고 해보고 싶어도 주위의 자원이 너무 없어서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경우가 많죠”

그에게 지금의 비행청소년 상담 현장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았다. 학대나 열악한 환경에서 ‘꿈’을 버리고 낙담을 호소하는 아이들에게 현실적으로 상담자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는 게 한없이 아쉽고 안타까웠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이 상담자가 그 손을 놓지 않고 언제라도 내담자를 도와야 한다고 했다. 연구자는 B의 이야기를 들으며 2001년 개봉했던 영화 ‘달마야 놀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자’에서 큰 스님이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는 과제를 주자 건달들이 독을 물에 빠트려 물을 채운 장면이 떠올랐다. B는 그때의 건달들이 주변 상황과 관계없이 물을 채워야 한다는 신념으로 독을 물속에 던진 것처럼 아이들을 만나면서 상황을 따지기보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더욱 만나기를 자처했다.

2.6. 근사하지 않으면 어때요?

B는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보이는 문제행동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이 꼬리표처럼 달고 오는 사기, 폭력 등의 의뢰서가 아니라 그 아이의 살아온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다 그만한 이유나 사연을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다른 내담자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다시 말해서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우울, 불안, 강박의 증상은 어쩌면 눈속임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증상에 몰입하면 정작 그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비행청소년 상담을 통해 알게 되었다.

B는 자기의 자녀를 볼 때도 이런 점을 놓치지 않다 보니 어느새 매우 관대한 부모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믿고 누구 한 사람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게 아니라 모두가 힘을 모아 아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하였다.

> “공부 안 하면 어때요? 공부하기 싫어할 수도 있지. 나중에 때 되면 하겠지. 물론 이제 아이들이 법적으로 연루가 되면 글쎄요. 그러면 부모로서 속상하긴 하겠지만 또 다른 뭔가 달라질 기회들이 분명히 있겠지.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아이들처럼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중략) 어쨌든 그 사회 안에서 이상하다고 문제가 있다고 배척하고 사는 건, 저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B는 한 사람의 상담자로서 경험하고 배워왔던 것들에 마음을 다해 삶에 적용했다.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알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상담자로서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는 어른으로서 반성해야 하는 일이었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기 때문이다.

> “2009년에 일 시작하면서부터 열심히 슈퍼비전 다니고 그랬죠. 한 2015년 정도 고비가 왔어요. 힘들어도 내담자들은 만나고 싶은데 선생님도 같이 같은 기관에 있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일 전체를 100이라 봤을 때] 100중에 내담자를 만났는데 쓰는 게 아무리 많아야 50%를 넘기기가 어렵잖아요.”

B는 온전히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박사학위 취득 후 혼자만의 1인 상담실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근사하지 않으면 어때요?’ 라는 말을 던졌다. 그리고 10년 뒤 자기의 모습을 떠올리며 ‘저는 매우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내담자들 만나고 있을 것 같아요. 상담하고 글 쓰면서’ 라며 아이처럼 해맑은 미소를 지었다. 연구자는 누구보다 호기심 많고 열정적인 B를 만나면서 한 사람의 어른이자 선배 상담자로서 존경의 마음이 들었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3. 연구참여자 C의 내러티브: 새로운 인생의 드라마

3.1. 이해의 무게에 짓눌림

C는 대학을 졸업하고 우연한 계기로 약물 전담 소년원에서 집단치료를 시작했다. 그는 그곳에서 13살의 어린 나이에 부탄가스 중독으로 소년원에 오게 된 한 바다(가명)를 만났다. 바다는 상담자를 향해 밝게 웃으며 이곳에서 나가면 앞으로 다시는 이런 곳에 오지 않겠다고 선포했다. 하지만 바다는 이미 논리적인 사고가 되지 않았고, 지리멸렬하고 과장되게 말하는 뇌 손상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다. C는 바다의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 '꼭 그렇게 될 수 있게 하자' 고 독려했다. 그런데 몇 년 후 분류심사원에서 너무나 해맑게 웃으며 C를 반기는 바다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C는 변함없이 열악한 환경과 반복되는 비행에서 참담함을 경험했다. C는 소년원에서 상담을 시작하면서 그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삶의 무게와 고통의 깊은 골을 공감해야 했다.

> "처음 소년원이라는 곳에 가서 이 아이들의 얘기를 듣는데 얘네가 우리 엄마 아빠보다 더 늙어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많은 경험이 너무 많은 부분들에 어찌 보면 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치렀어' 얘기하는 그 안에 담긴 이 아이들의 삶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과연 이들을 만날 깜이 될까에 대한 두려움과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담 회기가 늘어날수록 C의 두려운 감정도 커져갔다. 그는 밀려오는 생각과 두려운 감정들이 꽤 오랜 기간 해결하지 못할 숙제와 같이 느껴졌다. 그는 거의 모든 세션이 끝날 때마다 슈퍼바이저에게 달려가 자신이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꼈는지를 눈물로 풀어냈다.

> "정말 많은 슈퍼비전을 받은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중략) 근데 정말 좋았던 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즉시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콜하면 응대하는 무슨 119 센터 같은 긴급 지원망이 저한테는 되게 든든한 슈퍼비전이었죠. '너의 마음이 이런 거잖아' 뭐 이렇게 읽어주고 지지해주고 내가 버텨야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하는 이유가 뭔지를 얘기해 주고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할 수 있었죠.”

슈퍼바이저는 언제나 그의 말과 감정을 그대로 수용해 주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된다. 뭐 하려고 하지 마. 뭘 하려고 하는 순간 넌 망하는 거다’라는 말로 본인이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 것처럼 그도 아이들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했다. C는 집단치료를 하고 한 5년까지도 ‘내가 뭘 할 게 없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과 조바심을 경험했었다.

연구자는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내 생각처럼 상담이 이뤄지지 않을 때마다 ‘내가 도움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두려움이 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C의 솔직한 고백은 나에게 위로를 건낸 듯 반가웠다. 그는 쉽지 않았던 그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 버티는 힘을 키워나갔다. C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기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좋은 세션을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무난하다고만 치부했었던 자기의 삶에서 결핍을 찾고 상처를 회복해 갔다.

3.2. 참담한 현장 속에 피어나는 희망

C는 소년원에서 약물로 인해 이미 뇌가 망가지고 치아까지 모두 녹아버린 아이들을 만나면서 상담자로서 무기력을 느끼곤 했다. ‘지금 여기에서 내담자를 만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는 아이들의 삶에 어떤 통찰과 변화를 줄 수 있을지 막막했다. 아이들은 이곳이 싫어 당장 나가고 싶다고 했지만, 막상 이곳을 나가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혼자 살아가야 하는 환경에서 살아가야 했다. C는 ‘이 순간 드라마를 하면서 잠깐의 행복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이 순간만큼이라도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싶기도 하고 오르락내리락하는 마음을 달래며 집단을 만나기도 했다.

“다시 들어올지 아예 집으로 갈지 결정하는 게 너무 불안해요. 그럼, 그게 주제가 돼요. 그걸로 역할극하고 미래 투사해서 재판 장면도 해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가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거든요. (중략)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안심이 된다 그럴까. 연습한 만큼 좌충우돌한 만큼 고민되는 부분들이 좀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걸 경험하는 거죠."

희망(가명)이는 어린 시절부터 동네의 봉고차 할아버지에게 오랫동안 성추행을 당했다. 희망이는 자신을 'IBM(이미 버린 몸)'이라고 칭했다. 희망이는 자라면서 주변 남자들과 쉽게 성관계를 맺으며 지내다가 성매매로 소년원까지 오게 되었다. 희망이가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집단 내 역동이 파도처럼 일어났다. 희망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집단원들이 희망이의 이야기에 크게 공감했고 자신의 이야기를 토해내기 시작했다. 상담자도 믿기 어려울 만큼 그 안에 있던 집단원 대부분이 비슷한 경험이 있었고, 수많은 상처의 이야기는 서로에게 공감과 위로가 되었다. 아이들은 상처받고 외로웠던 그들의 삶을 만나고 위로했다. C는 이 아이들이 슬픔을 꺼내 놓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가오는 삶에 희망을 품기를 소망했다. 그는 아이들이 자기의 말을 꼭 기억해 주길 바라며 '이후의 삶에도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고 지금과는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C는 아이들이 꼭 달라지지 않더라도 이 순간 스스로 괜찮고 좋은 아이라는 경험 하나가 쌓인다면 절대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일에 대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 이후부터 너무 아이가 달라진 거예요. 그 그룹 자체가 이 아이의 용기에 같이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이제부터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꼭 이 방법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좀 달라졌던 경험들이 있어요. 다음 세션에 왔을 때 아이들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면 정말 눈물 나죠."

C는 희망이 외에도 자기의 문제에서 벗어나 대학에 가거나 유명인이 되어 방송에 나올 정도로 성장한 아이들을 바라보며 일에 대한 동기를 다시 일으키곤 했다. 비행청소년 상담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청소년이라 더 변화의 가능성이 있었다. 상담자의 역할은 아이들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이고 아이들은 이를 기반으로 다시 힘을 내었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3.3. 교양을 버리고 시선을 맞춤

C가 집단치료를 하면서 가장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은 아이들과 제대로 소통하는 것이었다. 교육자로 갔을 때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긴 했지만, 상담사로서 아이들과 소통하려고 하면 거센 반감을 겪게 되었다. 초심에서는 공부했던 것을 바탕으로 존중을 표현해도 아이들은 그와 소통하기를 원치 않았다. 오히려 언제까지 그런 표정과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시험이라도 하는 듯 수없이 찌르고 힘을 겨루었다.

> “기본적으로 인간이 인간을 대한다는 것 자체가 훈련이 안 된 거죠. 너무나 자기 그런 것들을 조절 장애 뭔가? 조절이 안 되는 이런 것처럼 느껴지게 위협하고 협박하고.”

C는 프로그램을 구조화하면서 담당자들도 무조건 참여자로 활동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에서 빠지도록 조치했었다. 그럴 때면 아이들은 더욱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다. 어떤 아이들은 상담자에게 어떤 호빠가 좋았는지 내가 알려주겠다며 농락하려고 했다. C는 그곳에 있는 다른 아이들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행동을 그저 봐줄 수도 없었다. 어떤 순간에는 상담자를 무시하고 이 집단을 마음대로 주무르려는 아이와 정면으로 붙어 싸운다는 표현이 적절할 만큼 서로를 제압해야 했다. C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그 아이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의 세계로 들어가 그 아이의 언어로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C는 그 순간을 ‘민낯이 서로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수준으로 만남이 이루어졌고 결국 아이도 상담사도 그 시간의 출렁거림을 버티는 힘을 얻어 갔다.

> “아이들이 ‘넌 월급 받고 가는 거잖아. 강사료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나오면 저도 ‘내가 강사료 받든 말든 너는 네 의무를 해야 하는 거잖아’ 라고 나가는 거죠. 그전과는 달라졌죠”

C는 이러한 일들이 특별한 일이 아닐 만큼 간간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그 안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에서 일어난 경험을 아이와 풀어내면서 집단을 성장하는 기회로 만들었다. C는 아이들이 그 행동을 왜 하게 되었는지, 지금의 감정이 어떤지, 집단은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나누며 또 다른 역동을 만들었다. 그러나 기관의 특성상 아이들이 다른 사건들과 맞물려 있는 경우 깊이 있게 다 풀어내지 못한 상태로 다른 곳으로 이송되는 일들이 생기기도 했다. C는 이런 상황이 '서로에게 버려진 느낌'을 갖게 한다고 하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연구자는 이 부분에서 연구자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느꼈다. 연구자가 만나는 아이들은 대부분 사회 내 처분을 받은 아이들로 대개는 상담자가 일방적으로 버려진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순간 아이에게 느껴지는 배신감과 실망감은 일에 대한 회의를 줬었는데, 만일 내가 만나는 아이도 그런 '버려진 경험'을 하게 된다면 나는 이전의 좌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느껴질 것 같았다.

3.4. 정체성과 역할의 혼란

C는 상담 경력이 쌓여가면서 상담사로서 감당할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에 대한 경계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는 아이들이 지닌 현실적인 문제에서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했다. 기관에서는 형식적인 교육이라도 짧은 시간에 많은 아이가 교육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길 원했는데 이는 상담사로서 C의 철학과는 전혀 맞지 않았다. 그는 상담에서 무엇보다 아이들의 자발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힘을 믿고 자신의 철학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자기 문제에서 한 가지라도 스스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했다.

>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과 감당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한 경계 짓기를 하는 방법, 이걸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혼란이 있었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드라마가 특히 그렇잖아요. '나는 그 순간에 혼란은 있었지만, 이 아이들을 믿었고 내가 나를 신뢰하는 만큼 그 집단도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저한테 되게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C는 숙련의 단계가 되면서 가장 성장한 부분이 바로 교육가와 치료사 사이의 경계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밝혔다. 치료사로서 아이들이 마음껏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아이들을 믿었고 그 믿음은 경험을 통해 점점 더 확고해졌다. 연구자는 사이코드라마의 기법 중 재연에서 아이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리화하거나 피해자를 조롱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드라마를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이 가능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드라마에 대한 힘은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졌다.

> "상호작용 내지는 좀 새로운 자극 한 번은 경험하게 하자. 딱! 이거예요. 한 번만 좀 다른 경험을 하게 하자. 이 친구들도 맨날 자기네들이 했던 어떤 비행을 이렇게 곱씹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한 번은 '뭐야' 이런 뭉클함 내지는 더 큰 분노? 내지는 내가 화가 났던 대상이 아닌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이 한 번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항상 목표였던 것 같아요."

C는 집단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만들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선명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었다.

3.5. 걱정과 불안이 슬럼프가 되다

C는 소년원을 다니며 때로는 활동에 필요한 시간 확보나 장소 등 안전한 치료 세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시간을 쪼개어 집단을 운영했다. 어떤 때는 전혀 상담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에서 떠밀리듯 해야만 했다. 주변의 동료 상담자들은 상담자가 자신을 먼저 보호해야 한다면서 그를 말렸지만, 오히려 그 동료와 싸워가며 불나방처럼 아이들을 향해 달려갔다.

> "주변에서 '야 너 그만둬. 너 망해 먹겠다. 야 너 다쳐. 그만 너무 오래 했다' 이런 그런 얘기들을 들어가면서 도대체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 거야 이렇게 싸워가기도 하면서 이랬던 시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열정으로 똘똘 뭉쳐 지침이 없어 보이던 그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다. 그의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녀의 미래가 잘못될 것 같은 불안함을 느꼈다. 아이들을 걱정한다고 던지는 말들이 자녀들에게도 상처가 되었고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아이는 엄마를 향해 '정신 차려'라는 말로 현실을 보게 했다. 남편 또한 C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잠시 멈췄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였고 C는 가족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보기 위해 그의 날갯짓을 멈췄다.

> "그때가 딱 우리 아이들 청소년기, 그 걱정되는 시각으로 우리 애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딱 얘기를 하더라고 엄마 내가 소년원 갈 일도 없지만. 거기서 엄마 만날 일은 더 없어. 엄마 정신 차려! 이러는 거예요. (중략) 내가 무섭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소년원이나 분류심사원 일은 줄이고 학교 밖 청소년 내지는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쪽으로 옮겨갔어요."

C는 이 일을 계기로 소년원이나 분류심사원 대신 학교밖청소년이나 학교폭력 가해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다. C는 이때의 기간이 슬럼프였던 것 같다고 하며 웃었다. 연구자는 슬럼프를 겪으면서 아이들을 계속 만나는 게 괜찮은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을 만날 때만큼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항상 죽다가도 살아나는 느낌 뭐 이런 거 있잖아요"라고 하였다. 그는 슬럼프로 인해 상담 환경을 바꾸면서 잃어버렸던 자발성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새롭게 만나게 된 비행청소년들은 다시 그를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3.6. 다른 세계를 통해 나를 돌보다.

C는 힘든 일이 생기면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누렸다. 그는 혼자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기도 했지만 가장 많은 시간은 운동에 할애했다. C는 오랜 기간 배드민턴을 했는데 그곳에 가면 각자 하는 일이나 성향이 크게 달라 마치 '다른 세계' 같았다. 연구자는 몸은 피곤하더라도 다른 세계가 있어 즐겁고 좋다는 C의 말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나에게 다른 세계가 있나?' 이 질문을 놓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고 생각해 보니 내 주변에는 대부분 비슷한 공부를 하는 상담자들과의 만남만이 있었다. C는 연구자에게 다른 세계가 있어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고 지금 하는 일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다고 조언해 주었다.

> “눈이 엄청 왔거든요. 엄청 쌓였어. 평상시 그렇게 많이 안 오는데 그래서 어제 그 눈길이 미끄러운데도 사람들이 우리 클럽은 다 나와서 1등하고 밤 10시에 너무 배가 고파서 ‘국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밥 먹고 소주 한 잔 하고 집에 왔더니, 막 1시가 넘었더라고, 너무 피곤한데 좋아요.”

C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자신을 불러준다면 기꺼이 어느 곳이든 아이들을 만나러 가고 싶지만, 대학교수라는 위치와 이제는 50을 바라보는 나이로 오히려 기관에서 불편해한다며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연구자는 그가 아무리 드라마를 하고 자기 삶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교수라는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꾸준히 상담을 할 수 있었던 힘이 궁금했다. C는 연구자의 질문에 길에서 만났던 내담자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 “학교에서 찍힌 아이들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동네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너무 반갑게 ‘선생님 알아요’ 하고. 저는 도망가고 싶은데 이 녀석들이 와서 이렇게 너무 따뜻하게 인사하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경험이 좀 몇 번 있었어요. 다르더라고요. 제가 나쁜 짓을 해서 누가 알아가 아니라 나 저 선생님 알아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너무 너무 자랑스럽게 막 얘기한다는 그 느낌. 우리 애들이 우리 엄마 자랑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럴 때 되게 좀 묘하게 좋더라고요.”

C는 비행청소년 상담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아이들의 범죄에 놀라고 모범생이었던 자신이 이 아이들을 만나도 되는지에 대해 고민했었다. 그는 상담자로서 무엇을 준비하고 배워야 하는지 몰랐지만, 지금은 진정으로 아이와 상호작용을 제대로 했는지 혹은 어른의 시각으로 아이를 판단하지 않았는지 늘 확인하였다. 그는 인터뷰를 마치면서 이제야 공부하면서 내가 좀 철이 났다는 생각이 든다며 호탕하게 웃었다. 연구자는 아직 연구자의 초점이 내담자를 어떻게 도울 수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있을까에 멈춰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C와의 면담에서 어려운 상담일수록 지금 여기에서 나의 목적과 욕심을 버리고 내담자를 제대로 만나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4. 연구참여자 D의 내러티브: 반복된 소진의 무게

4.1. 혼란에서 찾은 상담자의 길

D는 교회 전도사로 일하면서 싫은 상황에서도 싫다고 말하지 못하고 매 순간 자신의 마음보다 상대가 원하는 행동을 해야 했다. 직업 선택 또한 어릴 때부터 익숙하던 교회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진로로 이어졌기 때문에 청소년기 유예된 정체감 혼란은 30대에 이르러 그를 찾아왔다. 그는 30대 후반에 새로운 일을 탐색하면서 이해할 수 없던 자기의 마음을 깊이 알고 싶었다. 그리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대해 '이런 것들이 뭐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자기와 자기를 넘어 주변의 타자에게 관심이 확장되었다. D에게 상담사라는 직업은 생계의 도구를 넘어 억눌렸던 자기 해방의 증표가 되었다.

> "제가 청소년 시기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오진 않았어요. (중략) 근데 그 비행하는 청소년 애들은 어쨌든 자기의 행동을 겉으로 표현하고, 그 모습이 또 다른 대리 만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에 대한 '동경' 저렇게 표현하고 사는 아이들에 대한 '부러움'도 내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D는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부모의 돌봄이나 양육 환경에 어려움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청소년기를 생각하면서 막연하게 이런 문제를 지닌 청소년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상담 시간조차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분노 감정을 느끼기도 했다. 그는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하고 신뢰가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D는 자신이 가진 철저한 시간 개념과 책임감의 틀을 먼저 인정하고서야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었다.

> "애들이 '지금 가요' 하는데 1시간 후에 오고 '왜 안 오니?' 물으면, '우산이 없어요.', '비 오는데 차비가 없어요.', '갑자기 친구가 사고가 나서 못 가요.' 이런 뻔한 거짓말을 하는 아이들에게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제가 아무렇지도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않게 받아주기까지 한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중간에는 미치겠더라고요.”

D는 도덕 개념이 너무나 부족한 청소년들을 만나면 아무리 숙련이 되어도 답답이 밀려왔다. 청소년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전제하고 있지만, 각각의 사례가 독특하고 다르기에 다양한 대처 방법을 모두 찾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최근 보호관찰 중이던 여학생 둘이 택시를 탔다가 손님이 놓고 내린 지갑을 갖고 내렸다. 아이들은 실수였다고 말했지만, 곧 거짓말이 들통났고, 지갑 안에 든 현금을 꺼내 둘이 나눠 가진 것 또한 다른 사건으로 처리가 되었다. 아이들은 자기 지갑을 챙기지 못하고 잃어버린 게 잘못인데 주웠다고 해서 이렇게 신고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청소년들의 이러한 미숙하고 비도덕적인 사고는 숙련상담자라고 해도 당혹스럽고 때때로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하였다.

D는 혼자 삶을 감당해야 했던 자신의 청소년기에서 어른을 필요로 했었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환경 속에 있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그때의 어른이 되어주려고 노력했지만, 자기와는 전혀 다른 청소년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4.2. 모호한 윤리와 책임에 허덕임

상담자는 도움을 요청하는 취약한 상태의 내담자와 상담 관계를 형성하면서 윤리적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D 또한 상담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후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어려움이 있었다. 그는 가장 최근에 상담했던 햇살(가명)이를 도우려고 했던 행동이 오히려 아이에게 피해가 되는 경험을 했다. 햇살이는 도박 중독에 빠진 학생이었다. D는 아이의 이런 행동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학교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학교와 협력적 관계를 꾀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알렸는데, 학교에서는 아이가 개선의 의지가 없다며 고3이었던 햇살이를 퇴학 처리했다.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일을 크게 만든 것 같아 학교에 전화해서 ‘선생님, 이 아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이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고 그냥 졸업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안 된 거죠. 아이한테 먼저 학교에다 이야기하겠다고 동의를 구하지 않았던 나의 실수 이런 부분들이 걸리죠."

햇살이 사건과 같이 여러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이게 맞다' 라는 판단으로 처리해도 결과까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후회가 남았다. 상담에서는 이런 경우에 슈퍼비전을 통해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비슷한 사례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같을 수 없기에 문제는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었다. D는 최근 [아동학대] 가정폭력으로 수강명령을 진행하면서 다른 기관에서 비행으로 건이(가명)라는 학생을 상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건이의 아버지가 바로 가정폭력의 행위자였다.

"이게 이중 관계라 슈퍼비전을 받았었는데, 슈퍼바이저는 제가 괜찮으면 상담을 진행해도 괜찮다고 해서 그냥 했었는데 그리고 아이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구치소에 수감 되면서 아버지가 자포자기했죠. 내가 불편하면 그런 선택을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잘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선택하고 후회했던 그런 답답한 마음도 있었어요."

D는 상담 중에 알게 된 사실이라 당사자들에게 말하지 않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건이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구치소에 수감되는 일이 발생했다. 건이의 아버지는 아들이 소년원에 갔는데 수강명령이 무슨 대수냐며 교육에 나오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벌금을 받게 되었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대화에서 상담자가 상담 관계에서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상담자의 확신과 도전을 생각하게 되었다. 상담자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고민했거나 혹은 경험이 많은 선배 상담자나 슈퍼바이저의 지혜를 구했더라도 결정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상담자의 몫이 된다면 너무나 큰 부담이 될 것 같았다. 숙련이 되어도 이러한 딜레마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모호한 상황에 대한 안내가 필요했다. D 또한 이런 부분에서 상담자들이 소진을 자주 느끼게 된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4.3. 희망을 품은 백조의 발길질

D는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을 정도로 주변에서 인정받는 상담자이다. 그는 상담실이 아닌 발로 뛰는 상담으로 어떤 상황이든 아이들을 도우려고 애썼다. 유독 그를 뛰어다니게 했던 사례로 영우(가명)가 있다. 영우는 고등학교 재학 중 부모의 이혼을 겪으며 방황을 시작하였다. 영우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몰랐고, 자해와 비행을 반복하면서 가족들이 자신의 고통을 알아봐 주길 원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함께 살던 아버지와의 갈등의 골은 깊어져 갔다. 상담자로서 이러한 상황이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아이가 버티고 있어 줘서 고마웠다. 그러나 이때 생각지 못 한 큰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는 자기 생일이 되자 엄마를 찾아가 엄마가 보는 앞에서 사랑을 확인받기 위해 자해를 했다. 그러나 엄마는 매정하게 돌아섰고, 아이는 격양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상태로 집에 돌아와야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영우의 오토바이가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와 부딪히며 영우의 머리가 바닥에 곤두박질쳤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해서 목숨은 건졌지만,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는 심각했다.

> “애가 우울증이 있어 약을 먹으라고 했는데 그때도 약을 안 먹더라고요. 우울증 약이 성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안 먹었어요. 스스로 조절하겠다고 해서 더 말을 안 했는데 아이 사고를 보면서 ‘내가 약을 먹게 강요했어야 했나?’ 이런 생각들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라는 생각들이 힘들었죠.”

D는 영우의 사고를 통해 자신의 역할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자신이 방관해서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닌지 자책이 들었다. 그의 슈퍼바이저는 영우를 돕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그에게 ‘상담사’, ‘사회복지사’, ‘전도사’의 정체성 중 하나를 확실히 선택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그는 슈퍼바이저의 말에서 자신이 어떠한 역할이나 방식보다 아이들을 우선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연구자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마치 역할의 카오스에서 빛줄기를 발견하고 빠져나와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한 영웅 같았다. 그는 아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을 찾아다니며 일정의 병원비를 지원받도록 도왔다. 그는 영우와의 인연은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끝났지만 사고 처리 과정에서 상담자의 정체성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비슷한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을 돕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달았다.

> “저는 뭐 핸드폰 언제든지 개방하고 ‘언제든지 연락해. 네가 불편한 게 있거나 힘든 도움이 있으면 연락해’ 하고 밤 10시에도 전화해 보고 문자도 하죠. (중략) 제가 되도록 가정을 방문해서 환경을 다 봐요. 환경을 보는 게 훨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부모랑 소통하는 게 있죠.”

D는 우아한 백조가 물 밑에서 쉬지 않고 발길질 하듯 상담자라는 옷을 드러내고 아이들을 위해 쉬지 않고 애써 나갔다. 연구자는 그가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연구자 또한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아이들을 만난다고 생각했었는데, D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 또한 그처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4.4. 익숙함에도 찾아오는 두려움

D는 청년 때부터 교회 행사나 프로그램으로 교도소를 들락날락했다. 그리고 상담을 시작하면서 교도소와 구치소의 집단 프로그램에 바로 투입되었고, 그의 범죄 상담 경력으로 자연스럽게 소년범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가 초심상담자였던 2011년 당시 청소년 비행 문제는 본드, 휴대폰 절도, 조건만남 등이 성행하였다. 비행은 주로 단순한 호기심이나 환경 문제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범죄 또한 비교적 단순했다. D 또한 꾸준히 비행청소년을 상담하면서 상담 기술도 빠르게 능숙해졌다.

D는 범죄자나 비행청소년을 자주 만나고 경력이 쌓이면서 무서운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최근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그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 아이들은 일반 비행청소년들과 다르게 자신들의 행동이 범죄로 보이지 않도록 계획적인 비행을 하고 있었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 “요즘 아이들은 좀 많이 약아졌죠. (약아요?) 약아지고 드러나지 않게 이게 딱 범죄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의 그런 머리가 있는 애들이 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중략) 어느 정도 인지도 있고 공부에 관심도 있고 집안이 그래도 보호 능력이 있는 아이들도 쉽게 범죄를 해요. 아이들도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처럼 저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라고 해요.”

D는 다른 사람의 경계를 침해하는 것이 범죄인데, 요즘 아이들이 자신의 범죄를 범죄인지 아닌지 모를 만큼 감춘다는 것에 무서움을 느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아이들의 놀이문화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서 범죄의 양상 또한 달라졌다. 그는 자신이 숙련상담자라고는 하지만 그 전 상담의 경험에서 얻어진 지혜와 통찰이 지금의 비행청소년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는 비행청소년을 상담하면 다른 상담자들이 경험하지 않았을 일에 노출된다는 것을 설명했다. 지우(가명)는 비행에 중독되었다는 표현이 맞을 만큼 지속적으로 비행 문제가 일으켰다. 상담자로서 달래보기도 하고 몇 차례 권고도 했지만,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 D는 며칠을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고민하다 결국 비행을 멈추기 위해서는 지우가 소년원에 가야 한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 “의견을 썼는데 이제 죽여버리겠다. 뭐 하겠다. 이제 협박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는 거죠. 핸드폰을 다 개방하고 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우의 부모는 지우가 소년원에 들어가고 D에게 몇 차례 협박을 해왔다. 다행히 실제로 폭력을 행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상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한동안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상담자가 보호받을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4.5. 역할의 한계에서 찾아낸 지혜

비행청소년 상담은 상담자의 역할만큼이나 교육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D는 청소년 내담자들을 만났을 때 아이들의 성 경험이나 피임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했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다. 그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키고 생명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확고한 철학이 있다.

그가 초심상담자를 막 벗어났을 2012년 무렵 본드 흡인으로 구인된 별이(가명)라는 아이가 있었다. 별이는 본드를 흡인하고 환각 상태로 성관계를 했었고, 심사원의 소변 검사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판사는 별이의 재판을 연기하고 별이가 어머니와 어떻게 할지 상의할 수 있도록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별이는 임신한 상태에서도 흡연을 계속했고 어머니는 상담자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낙태시켰다. D는 숙련상담자가 되기까지 비행청소년들의 생활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면서 오히려 윤리적인 부분에서 더 단호한 기준을 갖게 되었다.

> “지금은 낙태가 허용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제가 결정을 내릴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물론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이지만, 그 생명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건 맞죠.”

비행청소년 상담은 많은 부분 상담자가 도움을 줄 수 없는 영역의 문제들을 포함한다. 특히, 결핍된 가정환경이나 교육의 부재는 자연스럽게 범죄로 이어지는 문제가 그렇다. D는 최근 만났던 기혁(가명)이를 통해 각 개인의 독특한 상황을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기혁이 어머니는 학창 시절 우울증으로 10층에서 자살 시도를 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으나 사고로 인해 허리와 다리에 장애를 입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못했고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상태에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성매매였다. 그녀는 작은 원룸에서 아이를 낳아 키웠는데 그 아이가 기혁이다.

> “이 아이는 원룸에서 엄마랑 생활하는 게 쉽겠어요? 중학생 되고 이런 아이가 계속 비행하고 여자친구 만나서 가출하고, 담배 사러 갔는데 할아버지가 안 주니까 그 오래된 가게에 불 지르는 그런 아이였어요.”

기혁이는 결국 폭주하듯 비행이 반복되면서 상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당장에는 소년원에 들어가는 게 아이에게 힘든 일이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지만 오히려 비행을 멈추고 변화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런 어려움의 과정에서 D는 자기의 일에 헌신하며 일의 가치를 찾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아이들의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고 변화가 더디더라도 꾸준히 옳고 그름을 교육하면 작은 발전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

4.6. 좌절의 늪에 빠진 무기력한 수호자

D는 최근 심리적 소진으로 상담사례를 줄여나가려고 노력 중이다. 10년이 넘게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여러 차례 소진을 경험했을 텐데 경력이 쌓여가면서 소진을 대하는 상담자의 태도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했다. 그는 오히려 이전에 소진을 경험했을 때는 힘들지만 일을 지속하면서 그 시간을 버텼는데 이제는 그럴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것 같다고 하였다. D는 솔직한 심정으로 이제는 한계가 온 것 같다면서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안 되겠다는 자기 모습을 인정했다. 그리고 최근 상담했던 중학생의 이야기를 통해 자기의 마음을 대변했다.

> “자기는 착한 병에 걸려서 발달장애 있는 애를 도와주려고 하고 자살 위험이 있는 애를 자기 일처럼 나서서 해 준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 ‘네가 경계가 없어서 그런 거야. 해 줄 수 있는 만큼만 해 줘’라고 했는데, 그 돌봄에 대한 이슈가 저한테 있어서 (침묵) 그 비행 아이들이 대부분 돌봄이 안 된 애들이잖아요. (한숨) 내가 그렇게 함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게 내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D는 어린 시절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한 자신의 이슈가 상담자가 된 이후 돌봄이 필요한 내담자들을 만나며 채우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성찰하며 이 일을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했다. D는 연구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자신이 순수하지 않다고 생각하니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고 전했다. 연구자는 D가 외롭게 자신과 싸우며 버텼던 시간의 경험을 들으며 숙연해졌다. 자신의 경계를 지키겠다고 내담자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상담실 안에서 상담자의 옷을 입고 만나는 것이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어떤 힘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떠올랐다.

> “비행 청소년이나 힘든 애들 걔네가 원하는 건 다 뻔해요. 애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데 그걸 제공해 주지 못하는 좌절감. 거기서 오는 또 이중적인 저의 그 한계. 그걸 해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또 비참함 등이 또 있죠.”

D는 상담자로서 좌절을 느끼기도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자신의 진로나 꿈, 친구, 배우자 등은 선택할 수 있기에 상담자가 존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이렇게 소진되었지만 그럼에도 아이들과 함께 있게 된다고 하였다. 그는 자신의 무기력한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이 더 무기력하게 자신을 만든다고 하였다. 그는 앞으로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을 이야기하면서 상담자로서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는지 지표가 없으니 더 자격증만 따라다니게 되는 것 같다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표현하였다. 면담이 끝나가면서 D의 소진은 앞으로 그가 풀어가야 할 숙제로 남았다. D의 이야기를 들으며 연구자는 그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소진된 마음을 위로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연구텍스트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주고받으며 “누가 내 인생을 이렇게 기록해 준다는 게 위로가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연구자는 D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외로운 싸움의 길에서 잠깐의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 감사했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5. 연구참여자 E의 내러티브: 상담으로 이룬 화해

5.1. 센터장에서 초심상담자로의 전환

E는 사회복지 재단에서 센터장으로 있다가 센터에 문제가 생겨 의도치 않게 청소년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는 책임이라는 문제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소진을 겪으며 좀 더 가벼워지고 싶다고 생각했었다. 그는 처음 상담을 시작하면서 너무나 새로운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상담을 시작했다. E는 그런 자신을 생계형 상담자라고 소개했다.

> “재밌게 하고 열심히 할 만큼 했는데, 이제 역할이 주어졌을 때 인정은 받는데 그 뒤에 숨어있는 그 책임이 오로지 내 몫이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감당하는 게, 저는 어떤 불안 그러니까 아무리 애써도 이렇게 사고라는 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뒷감당이 불편하다’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이러한 배경 때문인지 E는 자신이 상담사가 된 것은 우연히 관련 공부를 했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면담을 진행하면서 자기의 청소년기에서 상담과의 인연의 끈을 찾았다.

> “제가 가족치료 하면서 제 안에 걸려 있던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좀 풀어졌던 상황이거든요. 가족 안에서 구조 역동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서 ‘내가 그랬구나’ 그것을 또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게 좀 청소년 시기에 좀 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방향성을 잡아주거나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좀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청소년 쪽으로 오게 된 것 같아요.”

E는 사회복지를 했었기 때문인지 초심상담에서는 심리·정서적인 문제보다 청소년들의 외부적 환경적 어려움이 더 잘 보였다. 그는 초기 2~3년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학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연결해 주면서 사회복지 접근을 하였다. 덕분에 아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었지만, 상담자로서 늘 부족함을 느꼈다. 그는 스스로 당당해지고자 상담을 시작하고 5~6년 동안 심리검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사와 관련된 공부에 집중했다. 때로는 주변에서 이제 그만하라고 말릴 정도로 충분히 인정받는 상담자가 되고 싶었다.

5.2. 내 안에 '욱'이 아이들의 분노를 이해함

E는 상담을 통해 진정으로 자기를 만나는 경험을 했다. 그는 자신의 '욱'이 어린 시절의 거절에서 온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상담을 시작하고 4~5년이 지나면서 유독 거절당하는 것에 취약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E가 초등학생 무렵 큰오빠의 친구가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다. 잘 놀고 밤이 되어 모두 같이 잠을 자게 되었는데 누군가 자기의 몸을 만지는 느낌을 받았다. E는 성장하면서 한 번쯤 그날의 진실을 큰오빠에게 확인하고 싶었지만, 큰오빠는 20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E는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거나 의지하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큰오빠에게 풀지 못했던 분노 감정은 고스란히 둘째 오빠에게 전이되었다.

> "오빠! 오빠를 불렀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악을 쓰면서 근데 이제 일어나지는 않고, 아무도 안 일어나고 나는 계속 울부짖고 오빠! 오빠! 하면서 근데 좀 있다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그런 그림이 저한테는 있었거든요."

그는 아이들도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채 진짜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하는 유사한 상황에서 엉뚱한 대상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고 이해했다. 민우(가명)는 환경이 너무 열악해 사랑받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분노가 교사에게 전이되면서 교사와의 관계가 힘들었다. 하루는 교사가 민우를 벌을 세우고 비난하는 말을 하자 민우는 바로 옥상으로 올라갔다. 다행히 문이 잠겨 있어 무사했지만, 자기가 옥상에서 떨어져 그 교사에게 책임을 물게 하고 싶었다며 강한 충동성을 보였다. 그는 민우의 표현에서 민우 안에 '욱'을 발견했다. 민우는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할아버지는 상담자가 아무리 설명해도 워낙 완고하여 바뀌지 않았다. E는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아이들의 욱하는 감정이 비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행을 지속하게 한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다.

> “부모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 이게 짧아지는데, 그런 부모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이게 계속 비행으로 더 연결되는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있었는데 되게 잘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학교에서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와 깐죽거림에 분노가 폭발돼서 때렸는데 두세 명이 때렸나 봐요. 근데 만나보면 되게 여리더라고요. 이 친구가 뭘 잘못했는지도 알고 근데 부모가 아이들을 이해하기보다는 ‘어떻게 해라! 이게 좋다. 이쪽으로 가라’ 하는 상황만 되더라고요.”

E는 부모가 아이들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잘 모르는 부분은 상담사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지시적이고 강압적으로 아이들을 대하면서 문제가 반복된다며 상담자로서 무기력해지는 지는 상황을 설명했다.

5.3. 배신감으로 돌아온 장학금

E는 사회복지사의 경험을 살려 기업의 장학재단에서 아이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관련 서류를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을 도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썼다. 봉구(가명)는 공고에 다니고 있었지만, 누구보다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다. 특히 수학학원에 다니고 싶어 했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었다. 비록 처벌의 하나로 상담을 시작했지만, 진지하게 진로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며 상담에도 성실히 참여했다. E는 장학 관련 서류를 도와주면서 이 장학금을 받게 되면 대학 학비까지도 지원된다는 것을 봉구에게 안내하고 아이가 꿈에 다가가길 기대했다. 하지만 학원비가 필요하다던 아이는 돈이 생기자마자 최신 휴대폰을 구매했고 더 이상의 장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연구자는 E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때 E가 느꼈을 감정이 전이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봉구에게 배신감이 느껴졌다.

> “이제 허탈하잖아요. 목적하고는 다르게 쓰이고 원래는 되게 좀 의지가 있는 친구였는데, 가면 갈수록 이상은 크고 행동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어서 그래도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이제 그 수학하는 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자격증을 취득하자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아쉽더라고요.”

E는 봉구와 같은 사례가 몇 차례 더 생기면서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도움을 주는 활동에 아쉬움과 허탈함으로 지쳐갔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서 아이들의 부모님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생활비로 써요. 학원비로 해서 그걸 관리를 하는데도 그래서 이제 계속 부모한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아이를 위해서 써야 된다’ 근데 당장 생계가 어려우면 그냥 쓰는 거죠.”

영선(가명)이는 우울증이 있는 엄마와 폭력적인 오빠와 살고 있었다. 영선이에게 집은 지옥과도 같았다. 그래서인지 아이는 늘 표정이 없고 굳어진 모습이었다. 그나마 다행히 미술을 하고 싶던 영선이가 장학금을 받게 되면서 아이도 웃음을 찾고 희망이 생겼다. 그러나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그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지원이 끊기게 되었다. 마치 눈앞에 이득만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꼴이었다. 연구자는 이렇게 지원을 연결해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E의 이야기가 매우 흥미로웠지만 거위의 배를 가른 인간의 단순하고 무지한 욕망이 만들어 낸 이러한 결론이 특별한 사례가 아닐 것 같았다. E 또한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이 작은 돈이 ‘유혹’이 될 수 있다는 절망감으로 더 이상 지원사업을 연결하지 않게 되었다.

5.4. 반복되는 거절에서 살아남기

E는 비자발적인 아이들과 상담 관계를 맺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어린 시절의 상처가 떠오를 만큼 힘든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학교밖지원센터 등에서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교육은 개인 상담보다 더욱 강한 거절을 느꼈다. 아이들은 자기 일상에 생긴 문제로 인한 처벌로 교육을 받으니 수동적일 수 있었겠지만, E의 입장에서 이러한 행동이 상담자를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게다가 소년보호관찰 대상의 ‘찾아가는 상담’은 사전에 연락해도 늘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환영받지 못했고, 그때마다 거절을 넘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경험을 했었다.

> “내담자나 엄마에게 연락하고 가도 안 일어나서 못 만나기도 하고 할머니는 계시는데 엄마도 좀 상담하려고 하면 엄마는 또 바빠서 안 기다리고 그러면서 몇 번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또 몇 번 가다 보면 애는 나와서 앉아 있잖아요. 근데 얘기할 준비는 안 돼 있고 그러면 뭐 얘기 몇 번 하다가도 애 막 졸려 하고 뭐 어쩌다 그냥 나오는 거죠.”

E는 어떻게 보면 주변 상담자들은 그래도 그 일을 꾸준하게 하고 있고 그냥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자신에게는 유독 어렵다고 했다. 그는 초심상담자 때 3년 정도 하다가 그 일을 그만두면서 ‘효율’이란 단어로 정리했다. 그렇지만 경력이 쌓이고 그때 일을 생각해 보면 그 거절당하는 감정을 더 이상 느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았다. 비자발적인 내담자를 상담하는 분야에서 저항의 감정을 느끼지 않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 연구자 또한 많은 저항과 거절당하는 감정에서 이 연구에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의 이야기에 더 공감할 수 있었다.

> “내담자가 자기 문제에 걸려서 상담을 안 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거절감을 계속 느끼는 중인 거예요. 머리로는 알잖아요. 그 친구 문제야 근데 제 안에서. (그러함에도) ‘능력이 있었으면 오게 했겠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E는 상담을 시작하고 7년까지도 늘 슈퍼비전을 받으며 상담해야 한다고 느낄 만큼 상담 과정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그래도 10년이 지나가면서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전에는 그런 문제를 혼자 감당하거나 슈퍼비전을 찾아다니며 의지하려는 마음이 컸었는데 이제는 신뢰할 수 있는 동료 상담자들에게 자기 문제를 개방하고 상의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5.5. 김장하러 가는 아이의 뒷모습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상담자가 부모들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일이 다반사였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부모의 상처로 인해 협조가 잘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E는 부모가 적절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시설에서 아이들을 더 잘 돌보게 되는 경우들을 보았다. 그는 보호시설에서 지냈던 진태(가명)를 상담했었는데, 아이가 상담 중 김장을 도우러 보호시설에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진태는 보호시설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했고 그곳에서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검정고시 합격을 했다. 그곳에서의 기억이 진태에게는 편안하고 좋은 기억이었고 좋은 관계 맺음의 경험은 지금의 상담자와도 좋은 관계 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었다.

> “그런 긍정적인 경험들이 있죠. 이제 저희도 듣다 보니까 늘 어떤 그런 상황이어서 좀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그렇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저희만 해서는 될 일은 아니라는 게 있어요.”

E는 진태와 같은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 게 아닌데 한번 비행이 시작되고 같은 무리의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재범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제도적으로도 처벌 중심으로 집행하면 처음은 좀 겁도 먹고 무서워하기도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마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자신의 죄가 다 없어진 듯 죄책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였다. 연구자도 비슷하게 소년원에 다녀온 아이들이 자신과 어울리는 친구들도 소년원에 다녀오면서 문제의식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느꼈기에 E의 답답한 마음을 공유할 수 있었다.

> “우리나라의 법의 체계가 처벌적인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좀 살고 나오면 퉁 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갈 수 있는 곳은 그런 곳이어서 그럴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E는 최근 센터에 온 고등학교 2학년 준우(가명)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이 작은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잘못을 했을 때 초기에 집중적으로 개입이 들어가야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하였다.

> “처음 만난 건 3년 전인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대형마트에서 친구랑 절도로 상담을 왔어요. 왜 물건을 훔쳤냐고 하니까 ‘절도에 성공했을 때 스릴이 느껴졌던 게 좋았다’고 하더라구요. 그 당시 엄마가 암 투병 중이었는데 발산할 곳은 없었고, 어울리는 친구가 절도하니 옆에서 돕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였는데, 나이가 어리고 기간도 짧아서 더 (상담) 진행이 안 됐죠.”

준우는 그 뒤로도 다른 사건으로 센터에 오고, 또 다른 비행으로 다시 상담받는 일이 생겼다. 그리고 한 3년 지나서 이전과는 또 다른 비행으로 센터에 오게 되었다. 연구자도 E의 이야기를 들으며 시설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이를 계기로 잠시 비행을 멈추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의견을 나눴다.

5.6. 상담의 시간만큼 늘어난 성찰

E는 인터뷰 과정에서 상담자로서 지닌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 사고 등을 규정하는 것에 마음이 무겁기도 했지만, 과거를 돌아보며 다시 상담자로서의 동기를 찾을 수 있었다. E는 경력이 늘어나면서 좋은 상담자가 어떤 상담자인가에 대해 고민했고 좋은 상담자가 되기 위한 자신만의 목표를 세웠다.

> “저는 체계적인 상담 진행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로, 진행이 안 될지라도 그 목표를 가지고 내담자를 변화시키거나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 과정을 시도하는 사람이 그런 거 같아요.”

E는 집단교육을 하다 보면 자기 강점을 찾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비행청소년들은 대체로 자기의 강점이 하나도 없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였다. 분명 활동에서는 대답도 잘하고 좋은 면들이 보였지만, 늘 남들보다 특별함을 찾으며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그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준 잘못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된 인식을 바꿀 수 있게 도와야 했다.

>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그다음 단계부터 조금 더 발전되어서 특별한 게 되는데 ‘쟤는 못 하는데 나만 하는 거’ 그런 것들만 찾고 또 이제 어른들이 자꾸 이야기할 때 ‘덜렁거리냐’, ‘산만하냐’ 이게 산만한 게 자연스러운 건데 이제 그런 지적들이 ‘나는 산만하네’ 그게 정체성이 되어가더라고요. 그게 좀 되게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들을 관점을 좀 다르게 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E는 상담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신을 세워갈 수 있었다. E는 상담을 처음 시작하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상담받는다고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필요하다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물으니 ‘누구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비행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아이들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를 문제 있는 아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문제로’ 그리고 ‘아이는 그 아이의 존재대로 따로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비행 문제와 아이를 분리하자는 그의 말에 순간순간 아이들이 얄밉게 느껴졌던 연구자의 미숙함을 반성하게 되었다.

> “저는 상담이 정말 이제 전 국민이 다 이 공부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상황에도 상처받고 아픔은 있는데, 그냥 이제 내가 보게 되면 관계가 회복되는 걸 느끼니까 저는 사람들이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제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6. 소결

Ⅳ장은 숙련상담가인 연구참여자들의 비행청소년 상담 경험의 내러티브를 연구참여자별로 서술한 장이다. A는 청소년 상담 이외에는 다른 상담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청소년 상담에 깊은 애정이 있었다. 그가 청소년 상담에 매력을 느낀 건 그의 원가족과 관련이 있다. 그의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성격과 교사라는 직업적 특성으로 작은 일에도 정확하고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은 넘을 수 없는 큰 산과 같았다. 그런 A가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은 공황장애로 힘든 시간을 겪고 진짜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찾았기 때문이다. 그는 상담을 시작하면서 '찌질이'의 옷을 벗고 생기있고 명랑하게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아갔다. 그는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자신과는 전혀 다른 것 같았던 아이들을 만나 그들을 이해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숙련의 과정이 되어가면서 자신만의 상담 방법을 만들었다. 그는 재범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관계'를 꼽았다. 상담 관계에 있는 아이들이 재범의 유혹에 빠지는 순간 자기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상담자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아이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려면 아이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긍정할 수 있는 '타당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A의 타당화는 그 아이가 그 순간 그럴 수 있었겠다는 깊은 공감과 이해였다.

B는 A와는 다르게 말투에 거침이 없고 털털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을 정도로 비행청소년 상담의 경험은 90%가 좌절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그의 좌절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기쁨과 보람이 함께 있었다. 그는 상담자의 역할이란 내담자를 돕는 일이고 잘 돕기 위해서는 내담자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례가 생기면 슈퍼비전을 찾아다니면서 관련된 책을 쌓아놓고 내담자가 이해될 때까지 탐독했다. 그리고 매 상담 회기를 녹음하여 반복적으로 들으며 상담의 현장에서 자기가 적절하게 대처했었는지를 성찰했다. 또한 상담 전에는 이전 상담 기록을 숙지하여 내담자가 했던 말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는 식당에서도 음식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는데 아이들을 만나는 일에 상담자가 어떻게 해야겠냐며 자신을 정비했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C는 소년원에서 내담자들을 평가하지 않고 지금-여기에서 깊은 만남을 갖기 위해 늘 자신을 성찰했다. 그는 비행청소년들의 '비행'이 아닌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보는가에 주목했고 아이들의 관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는 마치 불나방처럼 아이들을 찾아다녔고 때로는 그런 마음을 이용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담을 통해 자기의 삶이 바뀐 것처럼 아이들의 삶이 바뀔 수 있다면 그곳을 찾아가겠다는 자기만의 철학을 이어갔다.

D는 매 순간이 도전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여러 교정기관에서 강의와 상담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서 성인 범죄자를 먼저 교육하고 상담하다가 비행청소년을 만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최근 반복적으로 찾아오던 소진에 깊이 빠져있었다. D는 상담실이 아닌 아이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바쁘게 찾아다녔다. 일부러 집에 찾아가 가정환경을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찾아주기 위해 항상 뛰어다니는 상담자였다.

E는 사회복지시설의 센터장에서 청소년 상담자로 직업을 전환하면서 다른 상담자들과 다르게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아이들이 받을 수 있게 조력했다. 그러나 목적이 정해진 지원금을 생활비나 최신 휴대폰 교체 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과정을 목격하며, 사회복지적 접근보다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자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늦게 시작한 상담인 만큼 쉬지 않고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 여전히 모르는 이론이나 상담 기술을 접할 때면 자신의 한계를 느끼지만, 아이들의 긍정성을 믿으며 그 옆을 지켰다.

숙련상담가의 비행청소년 상담에 대한 경험은 상담자 각각의 삶의 방향에 따라 다르게 흘러가다가도 때로는 가볍게 혹은 깊은 만남을 가졌다. 상담자들은 각자의 청소년기에서 비행청소년에게 끌리듯이 다가갔다. 연구참여자들은 자기의 문제에서 내담자들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점을 발견했고, 성찰을 통해 변화된 상담자로 거듭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상담의 경력이 쌓이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처하는 방식도 변했다. 이들은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기다리고 버티는 힘을 키웠다. 그들은 때때로 찾아오는 소진에 쓰러지기도 했지만, 아이들을 믿으며 '새로운 힘'을 만들어 갔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Ⅴ. 비행청소년 상담 경험의 의미

본 연구는 10년 이상 비행청소년을 상담한 숙련된 상담가들의 상담 경험의 의미를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러티브 탐구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경험의 변화와 그러한 변화가 다른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구하는 데 관심을 둔다(염지숙, 2022: 118). 연구자는 연구참여들과 Ⅳ장의 내러티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이 겪었던 막막함과 어려움이 연구참여자들의 숙련도에 따라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며 위로와 희망을 얻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의 직업 선택에 대한 동기와 의미에서 연구자 또한 상담자로서 직업적 가치와 태도를 되돌아보고 반성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인간의 다양성과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연구자는 나의 개인적 경험과는 별개로 이 연구가 모든 비행청소년 상담자의 경험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두에게 같은 경험을 준다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한 이론의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숙련된 상담가들의 비행청소년 상담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는 Ⅴ장은 연구참여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를 찾기보다 연구참여자들의 상담 경험의 의미를 통해 비행청소년 상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상담자로서 비행청소년과 관련된 연구의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했으며 적극적으로 연구에 참여했다. 연구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매 순간 호기심 가득한 아이처럼 자신들의 내러티브로 들어갔다. 또한 비슷한 일을 하고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연구자에 대해 열린 태도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비행청소년인 내담자들이 경험했을 인간적이고 깊은 애정을 엿볼 수 있었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삶의 맥락에서 나타난 독특한 이야기를 존중하며 그들의 경험이 잘 드러나도록 의미를 탐색했다. 연구자는 연구참여들과의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얻은 ‘타자성’이 비행청소년 상담의 장에서 어떠한 새로운 의미를 더할 수 있는지 ‘이해와 공감’, ‘무한의 존중’, ‘연대와 협력’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1. 이해와 공감

이해와 공감은 연구참여자들이 상담자로서 비행청소년에 대해 막연하게 안다고 생각했던 고정된 인식들이 실제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와 그 의미가 어떠한지를 기술하였다. 청소년기는 발달단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으며 청소년 자신도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청소년기는 성호르몬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에 의해 매우 민감한 정서 반응이 나타난다(Jensen, 2019: 71). 이 시기의 높은 감수성은 더 쉽게 흥분하고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훈계, 간섭 등에 과민하게 대응한다(구혜영, 2015: 346). 또한, 청소년기 뇌의 불균형적 발달은 공감 능력의 부족으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오해석하고 사회적 상황에서의 미흡한 대처로 문제행동을 일으키기도 한다(강윤형, 2016). 따라서 청소년기에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이거나 충동적인 행동 반응이 일어나기 쉽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 성장과 더불어 경쟁적인 입시가 우선되면서 승자들만의 주류문화를 형성했다(신나영, 2021). 인간의 삶에서 차별과 배제는 사회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며 자기 존재의 부재를 경험하게 한다(Heidegger, 1998).

연구참여자들은 청소년기의 공통 경험을 바탕으로 투사적 존재로의 타자(이승종, 1997)인 비행청소년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비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은 예상할 수 없는 또 다른 개별적 특성을 드러내며 상담자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특히 비행청소년 중 형법에 저촉되는 보호관찰 대상 소년의 경우 알코올 및 약물 사용 장애와 정신질환 등과 높은 상관을 보였고 쉽게 재범을 일으켰다(정슬기, 이계성, 이재경, 김지선, 김수룡, 2015). 그럼에도 연구참여자들은 비행청소년들을 깊이 알아가기 위해 애썼고 마음을 주지 않는 그들과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 연구참여자들은 보호의 의무가 있는 어른이면서 혼란스러운 청소년기를 지나온 경험자로서 강한 책임감이 있었다. 그러나 대개 이해의 주체는 자기의 경험으로 타자를 판단하며 타자의 언어와 문화에서 오는 심리적 차이를 무시하기 때문에 완전한 이해가 불가능하다(한병철, 2012). 따라서 훈련받은 상담자들은 더욱 내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제대로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비록 그 대상이 저항적인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내담자라고 하더라도 상담자는 이들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Rogers, 2007). 결국 성공적인 상담을 하려면 상담자가 비행청소년들의 문제와 우려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때 그들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고 적절하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헤겔의 「정신현상학」은 '타자(他者)'가 의식의 개념으로 환원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의식의 타자는 의식에 대립하는 대상으로서 존재하며, 자체 존재로서 의식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근거가 된다. 이에 따라 의식은 자체 존재로서의 타자를 통해 진리를 획득하며, 의식과 독립해 있는 자체 존재는 실제로 '의식을 향해 있는 존재'가 된다. 또한, 의식 안의 타자로 입증되는 타자는 의식 연관으로 객관적 실재성과 진리성을 담보한다. 이에 따라 의식은 자기 밖의 타자를 '의식의 자기검사'로 개념화하고 지(知)와 진리를 비교한다. 이때 대상에 대한 의식의 지와 진리가 불일치하면 의식은 대상의 지를 변화하며, 의식의 지를 가능하게 했던 대상 자체도 함께 변화한다(유현식, 2016).

연구참여자들은 비행청소년 상담을 지속하며 타자인 내담자에 대한 정보가 축적될수록 의식의 개념이 환원됨을 경험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초심상담에서 비행청소년들의 배경이나 상황 또는 이전 삶의 경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문제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애썼다. 인간은 다량의 정보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휴리스틱스(heuristics)를 사용한다. 휴리스틱스는 문제의 복잡성을 줄여주지만, 내담자에 대한 편향된 판단을 갖게 한다(장유진, 2021). 연구참여자들은 상담의 횟수와 사례가 쌓여가면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아이들 각각의 그림자를 조금씩 볼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많은 대화를 시도하고 아이들의 집을 찾아가 환경을 탐색하고, 드러나지 않은 어려움과 요구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면서 그들의 감정을 공감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지(知)를 바꾸었고, 동시에 그들의 비행 행동에 대한 이해 역시 달라졌다.

C는 비행청소년 상담 경력이 5년 정도 지났을 무렵 성매매로 소년원에 들어온 아이가 성폭력의 피해자였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생각을 전환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C와 같은 경험을 지닌 아이들이 욕망에 찬 어른들에게 수없이 이용당하면서 사랑받는 방법을 잘못 배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D는 사고를 치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는 것으로 동네의 유명인이 된 아이들이 가정에서는 버려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D가 보기에 아이들은 상처받은 마음을 숨기고 결핍된 애정을 비행으로 채워서라도 자기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아이들의 상황을 알면 알수록 아이들에게 문제의 책임을 따질 수 없었다. 오히려 '나라면 저 상황에서 저렇게 버틸 수 없었을 텐데' 라고 느낄 만큼 열악한 환경을 종종 마주하면서 이러한 현실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대단해 보이기도 했다. 비행을 줄이려면 내담자가 자기의 분노가 충동적으로 행동화하기 전에 스스로 분노를 알아차리고 적응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김금정, 최윤경, 2018: 65).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이 만난 아이들 주변에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이 없었다. E는 교사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자살을 시도했던 아이를 만나면서 아이 주변에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어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에 놀랐다. 연구참여자들은 내담자들의 깊은 사정을 탐색하면서 이들을 다르게 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정말 가해자라고 불릴 아이들인가에 대한 의문을 세상에 던졌다. 참여자들이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가 모든 비행청소년에게 해당하는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내담자들에게 가해자만이 아닌 피해자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비행청소년들의 이면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례의 축적이 있었다. 초심 단계에서 내담자인 아이들의 문제행동만을 쫓았던 연구참여자들은 내담자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이들의 감정과 상황을 공감하며 어려움과 요구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중급 단계가 되면서 비행청소년 상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이들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험적 지식과 이해로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상담 현장에서 비행청소년들의 생각과 행동은 참여자들의 수용할 수 있는 차원을 벗어나기도 했다. 연구참여자에게 비행청소년에 대한 이해와는 별개로 상담 현장에서 비행청소년과 부딪히는 일상적 어려움은 또 다른 문제가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그들이 보이는 행동에 대해 '왜 그럴까', '왜 이게 안 되는 걸까', '쟤는 도대체 무슨,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라며 수없이 일어나는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생각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특히, 최대한 배려를 한다고 했는데 상담 약속을 쉽게 어기거나 말없이 연락을 끊어버리는 아이들의 행동은 익숙함이 아닌 더 깊은 상처가 되었다.

주체의 새로운 존재 방식은 타자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이미나, 2021: 5). 연구참여자들은 아이들의 반응에 많은 의문이 생기고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상담자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아무런 판단 없이 아이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훈련을 했다. 다행히 상담 현장에서 이러한 상담자의 마음이 내담자에게 전달되면서 상황이 반전되기도 하였다. B는 아이들이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가벼운 대화로 상담을 진행했고 아이들의 관심사에 맞춰 상담의 주제와 목표를 설정했다. 심지어 B는 상담실에 들어와 말없이 테이블 위에 칼을 꺼내 놓은 아이를 향해 “닌자냐?”라고 농담을 던질 정도로 유연한 대처를 보였다.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칼을 꺼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 사건으로 아이는 마음을 열고 상담자를 받아들였다.

A는 범행이 일어난 순간 아이들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선택했다고 믿고 그들의 세계를 온전히 수용했다. 아이들도 A의 반응에서 상담실을 안전한 곳으로 인식했고 경찰서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솔직하게 드러냈다. C 또한 상담자에게 도전하는 내담자들을 만났을 때 바로 잘못된 행동에 대해 교육하거나 지나치게 교양 있는 성인의 모습으로 상황을 정리하지 않았다. 그는 초심상담에서 그러한 교육적 접근에 대해 고민하기도 했지만, 이 아이들과 비록 싸우더라도 아이들의 수준으로 아이들에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그 아이들을 무시하지 않고 온전히 만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아이들도 C와 한바탕 감정을 털어낸 이후에는 그 일을 하나의 물꼬로 제대로 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워갔다.

연구참여자들은 숙련 단계가 될수록 상담자의 위치에서 비행청소년을 교정하기보다 주저 없이 내담자의 세계로 들어갔다. 이 방법은 경험의 의미에 따라 현존해 있는 객체들을 통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상호주관적 세계로의 접근이다(서동욱, 2022: 42). 상담자의 세계에서 아이들과의 진정한 만남은 어려운 일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었던 아이들의 세계에서 새롭게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의미 있는 상담이 시작할 수 있었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나’는 사랑이라는 상호인정의 관계 속에서 ‘타자’를 위해 존재함으로 ‘나’를 부정하지만, 오히려 ‘타자’에 의해 ‘나’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자기복귀의 과정을 거친다(권영우, 2016: 146). 이러한 관계는 이중적인 자아 부정의 형태로 각각은 상호인정을 받으며 사랑을 확인한다. 사랑은 상호인정의 관계를 형성하고 타자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와 사랑하는 자로 구성된다. 타자는 자아의 자기규정을 매개하고, 상호인정 속에서 ‘나’와 ‘너’는 서로를 인정함으로써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다. 이 관계에서 타자는 더 이상 개별자로서 대상화되지 않고, 상호인정을 통해 ‘타자로부터 사랑받는 나들(너와 나)’의 상호인정이 이루어진다(권영우, 2016). 이와 같은 논리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애정 관계는 내담자가 상담자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으면서, 상담자와의 상호인정을 통해 내담자의 자아가 발전하고 새로운 자기규정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중급 단계를 거치면서 그동안 받았던 수련이 빛을 발하듯 점차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을 느꼈다. 그러나 매번 새로운 아이와 그 아이가 몰고 오는 사건은 이전 사례와는 다른 새로운 도전이 되었다. 그리고 숙련 단계가 되어도 어른에게 마음을 닫은 아이들을 상대하는 것은 늘 부담이 되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숙련 단계가 될수록 지난 상담 경험에 미루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 그들은 아이들의 닫힌 문 뒤로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타인과의 연결은 소통으로 이루어지며, 소통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전종윤, 2023: 389). 연구참여자들은 비자발적인 내담자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노력했다. 그들은 사비로 간식을 챙겨주고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유머를 사용하였으며 좀 더 전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슈퍼비전의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모든 사례가 같지 않았기에 이들의 노력은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받거나 문제가 되기도 했다. D는 최근 학교에서 도박 중독에 빠진 고등학생을 의뢰받았다. 그런데 아이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도박뿐 아니라 다른 비행도 엮여있었다. D는 아이를 돕기 위해 이 문제를 학교에 보고하였는데 학교에서는 D의 계획과 다르게 고3이었던 내담자를 퇴학시켰다. 어려운 사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슈퍼비전을 받고 동료들과도 상의했지만, 결과적으로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아이가 피해를 보면서 상담자로서 자신을 자책하게 되었다. A는 습관적으로 유머를 통해 내담자와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다가 내담자가 화를 크게 내면서 사과해야 했던 상황을 떠올렸다. 그는 생각해 보면 상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농담이었는데 자신의 방식이 잘 못 되었다고 반성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이러한 실수는 괴로운 시간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실수를 통해 자신의 한계와 불완전성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는 상담자로서의 반성으로 자신을 성장시켰다. 그 과정이 달갑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반성에서 일어난 성찰은 상담자 개인의 문제를 분리하고, 비행청소년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자원이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실수와 애씀의 과정을 반복하며 자기만의 소통 방법을 찾아갔다. A는 아이들의 삶에서 온전히 이 아이들의 선택이 옳았다고 지지해 주는 누군가가 있었을까에 대해 고민했고 누구보다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선택에 대해 타당함을 경험하도록 도왔다. C는 매일 반복되는 비행에서 벗어나 지금-여기에서 '새로운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보게 하자라는 목표로 아이들을 만나 드라마를 진행했다. D는 언어 표현이 잘되지 않는 아이들이 충분히 자기를 표현하도록 모래놀이 치료나 푸드테라피 등을 상담에 활용했다. E는 대리적 부모 역할을 자처하며 아이들에게 결핍되었던 정서적 돌봄을 제공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의도적으로 내담자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유지했고, 내담자의 작은 변화에도 크게 반응하며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레비나스는 '내가 타자에 의해 나의 책임을 다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며 존재론을 넘어 타자가 윤리적 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제시했다(전종윤, 2023: 376). 연구참여자들은 내담자인 비행청소년들로부터 자기의 책임을 묻고 행동 동기의 주권을 넘겼다. 활발한 의사소통은 타자와의 상호작용에서 공감을 이끌고 화해나 연대를 도모하는 가능성을 열어준다(임지혜, 2017: 109). 참여자들이 내담자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유지하고 작은 변화에 크게 지지하며 노력을 인정해 준 것은 타자성의 핵심 원리인 상호작용과 공감을 구현한 것이다. 이러한 소통은 내담자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정서적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내담자의 자기 선택을 존중하고 타당함을 경험하도록 도왔다. 누군가를 돌보는 것은 숭고한 사랑과 헌신, 희생의 이미지를 지닌다(김희원, 권민균, 2021: 129).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돌봄은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의 관계에서 돌봄 윤리를 생성하며, 관계적 윤리로서 돌봄은 보편적 윤리가 될 수 있다(Noddings, 1984). 연구참여자들은 심층면담을 마무리하면서 자신들의 돌봄 행위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논했다. D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진짜 아이들을 위한 건가라고 했을 때 나는 아는 거죠. 내가 내 욕심으로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깊이 보고 싶지 않아요.” 라며 심층면담에서 돌봄을 주제로 자기가 드러나는 것에 불편함을 이야기했다. B는 “애들이 어린 시절의 내 모습이고 친구들 모습이니까 뭔가 바꿔주고 싶은 게 있었죠. 그러니까 애들 부모가 뭐라고 하면 역전이도 일어나고 화나고 했죠.” 라며 아이들과의 상담 과정에서 자기의 욕구가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를 밝히며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헤겔은 『정신현상학』에서 욕망을 통해 자기의식이 타자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인정으로 발전한다는 원리를 제시했다(연효숙, 2004). 의식에서 자기의식으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욕망의 구조는 ‘논리학’의 존재론에서 본질론으로 이행한 상태의 구조와 유사하다. A는 가부장적인 가족의 분위기 속에서 자신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성장통을 경험했었다. 그는 “저는 아니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고 싶은 거죠.” 라며 자신의 결핍이 아이들을 위한 삶의 동기가 되었음을 이야기하였다.

우리에게 타자는 자기 결핍의 존재로 타자를 향한 지향은 대화의 차원을 열어 소통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타자와 밀접한 연결을 맺게 한다(전종윤, 2023: 389). 연구참여자들은 자기와 닮은 아이들의 삶의 조각을 통해 아이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타인으로부터 이해와 공감을 받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실존과 생존에 필수적이며 목숨을 살리는 결정적인 힘과 같다(정혜신, 2018: 57). 더불어 공감에 대한 사유는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 공존을 가능하게 한다(이미나, 2021). 연구참여자들은 심층면담의 과정에서 그동안 해오던 상담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돌아볼 수 있었고 누구보다 자신들이 원했던 공존의 존재로 비행청소년의 삶을 공감할 수 있었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2. 무한의 존중

연구참여자들은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비행청소년들의 특성이 일반 청소년들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비행청소년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독특한 사고와 행동을 나타냈고 음주나 흡연, 성 경험 등 성인과 유사한 유흥문화를 향유하고 있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해체,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우울과 충동성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지니고 있었다.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특성을 비교한 신나영(2023)의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비행청소년은 공격성과 반사회적 성향, 자기통제 능력 부족, 부모-자녀 소통의 어려움, 부모 간 갈등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가 아닌 '비행'으로 그 대상의 폭이 크고 연구참여자마다 주로 만나는 대상의 비행 특성이 달라 비행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일반청소년들과의 분명한 차이를 드러났다.

연구참여자들은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이러한 특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로서 독특한 도전에 직면했다. A는 비행청소년들이 오토바이 무면허, 절도, 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으면서도 웃고 장난치는 모습을 보면서 탈비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었다. B 또한 대체로 비행청소년들의 톡톡 튀는 사고와 행동을 귀엽다고 인식하면서도 이대로 성인이 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수용될까에 대해 걱정했다. D는 일반 청소년 상담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사례로 임신이나 낙태 문제를 논하며 상담자로서 많은 에너지가 빼기는 것을 감수해야 했다. E는 아이들이 돈을 벌고 싶다거나 공부를 다시 하겠다는 결심을 해도 실제로 뭔가를 노력하거나 애쓰는 일에서는 쉽게 포기하거나 도망치는 모습을 보며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초심상담에서 이러한 비행청소년의 특성을 문제로 바라보았고 아이들을 교정하기 위해 적극적인 교육을 펼쳤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이 애를 쓸수록 아이들은 상담자들을 피하며 점점 멀어져 갔다. 그럴수록 참여자들은 아이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개인적인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면서 노력했다. 하지만 참여자들에게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의 태도는 배신감마저 들었다. A는 집에 들어가 잠드는 순간까지 아이들의 표정과 말투가 생각나면서 분한 감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정이 일어났고 결국 개인적인 삶의 경계가 무너지는 경험까지 했다. E는 집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했었는데 내담자들의 차가운 반응에서 어린 시절 상처가 떠올라 하던 일을 그만두기까지 했다. 상담자의 책임감이 크면 클수록 상담자는 높은 압박감을 받으며 직업적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강선아, 김안나, 최보영, 2020: 18). 소진을 겪은 상담자는 상담에 대한 부담, 불안, 죄책감 등의 감정을 느끼며 상담의 질을 떨어트린다(최윤미, 양난미, 이지연, 2002). 따라서 상담 현장에서 상담자가 자신을 다치지 않게 경계를 설정하는 일은 성공적인 상담을 위해 중요한 일이다. 경계는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 '적절한'과 '부적절한'의 차이를 정의하는 용어이다(Rønnestad & Skovholt, 2001: 48). 그러나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경계 설정은 상담자의 상담 경력이 쌓이고 나서야 가능한 일이다(Skovholt, 2003: 277). 우리가 타자와의 공존을 위해서는 타자를 지배하거나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를 버리지도 않는 것이 필요하다(Walzer, 1997). 상담 현장에서는 초심보다 숙련이 되었을 때 상담자가 전문적인 자존감을 획득하고 내담자와 밀접하게 공존한다고 본다(Rønnestad & Skovholt, 2003: 48).

상담자의 전문성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재구성된다(Bruss & Kopala, 1993; Reid et al., 2008). 본 연구의 참여자인 숙련상담자들도 전문가로서 자신에 대한 고민과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점차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자신감을 획득했다. 상담자가 상담에서 피로감을 느낀다면 더 이상 내담자에게 어떤 치료적 힘을 줄 수 없다. "어느 시점부터는 그 선을 잘 구분 지으면서 더 벗어나지 않게끔 그래서 제 일상이라든가 생활까지 침범당하지 않게끔 나를 잘 지키는 것 같아요. 딱 여기까지 경계를 좀 명확히 하면서 할 도리를 다했다. 서로를 보호하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A). A는 개인적 삶과 상담자로서의 자기 역할에 대한 경계를 설정했다. 그리고 상담자의 욕심으로 내담자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기 위해 내담자를 위한 경계도 만들었다. A는 내담자와의 경계는 그들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닌 존중의 태도로 그들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방법이라고 했다.

D는 초심상담에서 희생적인 돌봄을 실천했었다. 아이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가정 형편을 살폈고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 상담일을 맞추다 보니 개인적인 시간이 거의 없었다. 그래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생각에 만족감이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느껴지기도 했지만, 쏟아붓는 정성을 알아주지 않고 비행을 지속하는 아이들을 보면 서운함이 몰려왔다. D는 초심 단계가 끝나가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해줘야 하지?' 라며 지쳐갔다. 그리고 소진된 자신을 보며 이러한 희생이 잘못된 방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경계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E는 내담자들에게 느꼈던 차가운 거절의 상처가 자기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비행 문제가 그들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비행 행동과 이 친구의 정체성 그러니까 사람과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리하려고 해요." (연구참여자 E). E는 상담자의 경계가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뿐 아니라 상담자가 지닌 자기 문제에서도 내담자와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초심 단계를 지나면서 상담자가 자신을 돌봄으로 내담자들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였다. 상담 현장에서의 실천적 지식은 숙련상담자의 중요한 특성으로 상담의 측면에서 상담자의 지혜라고 볼 수 있다 (Goodyear, 1997: 262). 연구참여자들은 비행청소년 상담을 지속하며, 이들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적절한 경계를 세워갔다. B는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말로 상담자의 지나친 개입과 일방적인 노력에 대해 주의를 주었다. A는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아쉬움이나 속상함 혹은 어떤 기대감 등도 있겠지만 지나친 기대는 오히려 상담자에게 상처가 된다고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상담자로서 자신의 일상이 침범되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상담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안 되는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인식이 포기가 아닌 내담자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경계 존중이라고 설명했다.

상담 관계는 일반적인 인간관계와 다르게 전문적인 관계로 모든 관계의 책임은 상담자에게 있다(홍지선, 2018). 상담자는 내담자가 거부하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유대관계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타자에 대한 무한의 존중과 존재의 의미를 강조한다. 연구참여자들은 비행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약자[12]에 속한 내담자와 관계를 맺으며 관계의 윤리를 지키고자 경계를 세웠다. 그들은 내담자들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경계의 존중을 지켰다. 이는 레비나스의

12) 비행청소년 문화는 지배적인 주류문화를 이탈하여 형성된 독특한 문화로 사회적 약자의 개념에서 볼 수 있다(김영순, 2017: 189).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타자철학에서 강조하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존중과 보호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손영창, 2014).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숙련 단계가 되면서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비행청소년들의 삶을 평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비행청소년의 삶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와의 회복을 꾀했다.

연구참여자들은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비행이라는 문제의 시선을 넘어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적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해 애를 썼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행청소년들은 다양한 도덕적 문제를 상담 현장으로 끌어왔다. 연구참여자들은 비행청소년 상담을 위해 전문 수련이나 관련 자격증 등을 준비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준비했던지와 관계없이 실제 만남은 예상할 수 없는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A는 뉴스에 나올법한 성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을 만나면서 어머니와 누나가 있는 한 사람으로 내담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E는 교육비가 필요한 내담자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여 지원을 해주었는데 그 돈으로 최신 휴대폰을 구매한 내담자를 교육해야 했다. D는 남의 지갑을 주워 돈을 가져가고도 전혀 문제 인식이 없는 아이들에게 도덕성을 이해시켜야 했으며, B는 상담을 거부하며 상담실 바닥에 침을 뱉고 욕을 하는 아이를 타이르며 상담 수료 시간을 맞춰줘야 했다. 그리고 C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약물로 인해 치아까지 다 망가져 있는 아이들과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했다.

주체는 전체성 속에서 타자성을 존중하기보다, 포섭하고 흡수하려는 점에서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다(손영창, 2014: 290).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내담자들이 던진 도덕적 도전에서 자기성찰을 통해 상담자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갔다. 연구참여자들은 아이들의 도덕적인 문제를 아이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러한 도덕적 문제에 있어 이 사회의 어른이자 상담자인 자신의 역할을 성찰했다. 연구참여자들은 교육이나 상담으로 개입하기 전 내담자들과 진실하게 만나기 위해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존중하고 수용했다. 바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들에게는 늘 기다리고 버텨주는 역할을 자처했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아이들에게 “네가 뭘 해도 나는 여기 있을 거야”(연구참여자 A)라며 변함없는 모습으로 아이들을 기다렸다. 레비나스는 윤리학을 제1철학으로 내세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우며 타자에 대한 책임윤리를 제시한다. 레비나스는 도덕성의 문제에서 행위자를 주체로만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다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행위를 이해하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행위자를 통해 우리가 도덕적인 의무를 이행한다고 주장한다(맹주만, 2019). 연구참여자들에게 청소년의 비행은 도덕적인 도전을 제시하고, 자유와 책임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A는 아이들을 만났을 때 비행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 지금 아이가 어떠한 상황 속에 놓였는지 먼저 탐색했다. B는 처분 내용을 미리 보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 혹시라도 자신이 어떤 선입견을 지니고 아이를 만나는 건 아닌지 늘 자신을 점검했다. 또한 아이들을 만나서도 사건 자체보다 아이가 사건을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집중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상담 현장에서 내담자가 호소하는 우울, 불안, 강박 등의 증상에 상담자가 지나치게 몰입하게 되면 오히려 진짜 내담자를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비행 문제도 이와 같다고 설명했다.

C는 처음 상담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의 증상으로 사람을 보지 말라'는 슈퍼바이저의 가르침을 그의 상담 철학으로 새겼다. 그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아이들이 정말 그 문제가 일어나기를 원했을까에 대해 스스로 질문해 본다면 누구라도 그 아이들의 진정한 욕구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E는 부모님들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무시'라는 이슈에 빠져 자녀의 본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었다. 그는 아이들의 서투른 표현은 기다림과 교육이 필요한 것뿐인데 부모도 자신의 상처로 인해 온전히 아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비행청소년 상담을 '씨앗 뿌리는 것'과 비교했다. 그는 씨앗을 뿌리면 지금 당장 열매를 볼 수는 없는 것처럼 현재 아이와 주고받은 것들이 이후 아이의 삶에서 열매를 맺어갈 것이라고 하였다. 헤겔의 관점에서 교육은 마음의 발달을 현실화하는 원리로 개인은 주어진 것을 본성에 맞게 소화하고, 보편적 정신은 자기의식을 획득하고 자기를 생성하게 한다(고영준, 2014: 86). 연구참여자들은 비행으로 아이들을 규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선택의 가능성을 잘라버리는 것과 같다고 했다.

타자를 존중하며 맞아들이는 무조건적인 환대는 인식, 이해 너머에서, 혹은 인식의 계기를 배제할 때만 가능하다(손영창, 2014: 296). 연구참여자들은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내담자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접근 방식을 강조했다. 그들은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내담자들이 보이는 문제나 행동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어떤 이유로 그런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참여자들이 보여준 존중은 내담자들의 어떠한 자격을 따지는 것이 아닌 하나의 존재로서의 무한한 존중이었다. 상담자의 진정성은 내담자에게 충분히 수용 받는 관계 경험을 선사하고 내적 성장에 도움을 주며 이는 다시 상담자의 효능감과 만족감으로 순환적 관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이민수, 조한익, 2023). 연구참여자들은 내담자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정성'을 선택했다. 상담자의 진정성은 성공적인 상담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상담자가 진정한 모습으로 내담자와 현존할 때 치료는 촉진된다(Bugental, 1978; Frankl, 1984). 그러나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온전한 공감과 긍정적인 존중을 하기에 어려운 상황도 있다. 예를 들어, 상담자가 겪은 경험과 내담자의 상황이 너무 다르다고 인식할 때, 자신의 가치관과 다른 점을 발견할 때, 내담자가 상담자의 가치관이나 행동에 대해 비판적일 때가 그렇다(Rogers, 2007).

연구참여자들은 상담자의 철학과 태도가 결국 내담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담자의 자기성찰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D는 상담 횟수가 늘어나면서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역전이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려고 했고 내 안에 있는 문제는 회피하고 그걸 마주할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D). C는 숙련 단계에 들어서면서 이전에 다가가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여자 소년원의 아이들이 보인 히스테리컬한 모습에서 자신을 보았다. 그는 그동안 왜 그 아이들과 불편했는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편안함을 얻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자기가 지닌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E는 시간이 갈수록 내담자 중심이 아닌 상담자 중심이 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상담자가 자기를 온전히 성찰하지 않으면 결국 모든 피해는 내담자가 받게 된다고 경고하였다.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내담자의 재범은 매우 다루기 어려운 문제이다. 비행은 '습관화'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일단 시작된 재범은 초범에 비해 반복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대검찰청, 2021). 연구참여자들에게 비행청소년들의 재범은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같았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변화가 어렵겠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비행청소년들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이 비행청소년 상담에 갖는 주된 정서는 안타까움이었다. 그렇다고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참여자들이 처음부터 안타까움이라는 감정을 느낀 것은 아니었다. 비행청소년들이 지닌 도덕적 가치는 니체의 ‘노예의 도덕’[13]으로 자신들을 피해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반성이 없었고 처벌을 부당하게 생각했다. 이는 내담자를 수용하고 공감해야 하는 상담자에게도 난관이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사랑과 정성을 쏟았을 때 아이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때때로 목격하기도 했다. E는 반복되는 비행과 가정에서의 열악한 환경으로 소년보호시설[14]에서 생활하게 된 아이를 상담했다. 그런데 껄렁껄렁한 태도로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던 아이가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상담도 꾸준히 나오며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가능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비록 처분의 하나로 시설에 가고 상담을 받았지만, 아이는 평소 경험하지 못했던 격려와 따뜻한 도움을 느꼈고 어른들에게 인정받는 경험을 하며 전과는 다르게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을 낮추는 보호요인 중에서 개인적 요인에 건강한 자아관과 자아존중감 등이 있다(Carr & Vandiver, 2001). 상담의 현장에서 상담자의 긍정적인 지지와 관심은 내담자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여 변화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깨워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 상담자가 내담자의 변화 가능성을 믿어주면, 아이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동기를 얻게 된다. 상담자들이 상담을 통해 얻게 되는 긍정적인 특성에는 기쁨, 보상, 선물이 실재하며 이는 계속 유지된다(Skovholt, 2003: 32). 연구참여자들은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며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 게다가 때때로

13) 니체의 도덕은 강자가 추구하는 ‘군주의 도덕’과 약자가 추구하는 ‘노예의 도덕’이 있다. 군주의 도덕은 강자의 도덕으로 강자는 남에게 당한 적이 없기에 원한이 없고 남을 쉽게 용서하며 사태를 왜곡하지 않지만, 약자는 노예의 도덕으로 강자를 사악한 자로 여기고 강자가 자신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강자가 취하는 행동은 그 자체가 지배 욕망의 실현이고 이것이 약자에게는 모든 억압과 착취의 근원으로 생각한다(서동은, 2019: 25-26).

14)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근거 6호 처분을 받은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을 한다. <개정 2020.10.20>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전해지는 내담자의 감사 표현은 상담자에게 선물이었으며 무엇보다 그동안 애씀에 대한 보상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숙련 단계가 되면서 초심상담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강한 믿음을 아이들에게 느꼈다. 연구참여자들은 답이 없다고 생각했던 비행청소년들이 상담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회복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연구참여자들은 비행청소년들에게 상담자의 따뜻한 배려와 존중이 있다면 자신의 상황에서 잘 견디고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A는 그 비결에 대해 지금까지 아이들을 만나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바뀌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내담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재촉하지 않고 아이의 수준에 맞게 머무를 수 있다고 밝혔다. E는 이미 긍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믿어주면 된다고 했다.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대학교 들어가고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면서 한참 동안 상담 끝나고 또 연락했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좀 대견하기도 했죠.” (연구참여자 E).

연구참여자들은 내담자들이 현재를 잘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지역사회다 보니까 동네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너무 반갑게 ‘선생님 나 선생님 알아요’ 이 녀석들이 와서 이렇게 너무 따뜻하게 인사해 주고 막 이러는 거. 다르더라고요. 아이들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내지는 어떤 지점들의 뭔가가 있으면 얘네는 그대로 붕괴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참 좋은 대상인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C). C와 E는 상담자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전과는 다르게 생활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비행청소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몸으로 경험했다. D는 자녀들의 비행으로 힘들어하는 부모들을 만났을 때도 “원래 이렇게 빨리 사고 치는 애들이 또 쉽게 마음이 돌아서고 또 이 아이들이 또 나중에 더 잘해요” 라며 그들이 경험했던 아이들에 대한 믿음으로 위로를 전할 수 있었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3. 연대와 협력

진정한 사랑이란 자기 주변의 이웃이 아닌 더없이 먼 곳에 있는 사람과 앞으로 태어날 미래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다(Hutchins, 1999). 하이데거는 사랑이 인간의 존재와 직결된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사랑이 탄생한다고 하였다(Dastur, 2016). 사랑에 관한 철학은 우리 사회가 지닌 차별과 배제의 갈등에서 해소할 수 있는 준거이며, 인간의 자유와 창조성은 각 주체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김주휘, 2012: 162).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감각함과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세계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박찬구, 2018: 156). 연구참여자들은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비행청소년들이 비행에서 벗어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실천가의 전문성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새로운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한다(Schön, 1983). 연구참여자들은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상담자라는 하나의 정체성이 아닌 내담자가 필요로 하는 역할에 맞춰 유연한 태도로 자신의 역할을 변형시켰다. 그러나 규정이 없고 이전 사례도 없는 모호한 사례에서 명확하지 않은 역할은 상담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요구하며 부담을 주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해와 존중'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잘 알지 못했던 비행청소년들을 상담하면서 부딪히고 깨지기를 반복하며 자기만의 상담 기술을 만들어 갔다. 숀(Schön)은 실제 경험에서 이론적 체계화를 형성하고 이론을 토대로 실천적 지식 습득을 이루어 전문성 교육의 실천성을 강조하는 반성적 실천주의를 주장했다(Clandinin & Connelly, 2007: 88-92).

상담자에게 반성적 실천주의는 상담자의 전문적 자질과 실천적 지혜를 강조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초심 단계를 거치면서 상담자로서 자신을 보호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관계뿐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해 줄 동료와 슈퍼바이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담자에게 동료란 내담자를 돕겠다는 같은 목적을 지니고 비슷한 환경에서 삶의 많은 부분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동료와의 관계에서 상담의 기술적인 부분과 정서적 소진, 새로운 정보 등을 나누었다. 상담을 공부하면서 친구가 없어졌다는 D는 힘든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일이 생길 때면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마음을 나누고 위로를 받았다. D는 동료들의 객관적인 시각이 상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내가 능력이 있었으면 애들을 오게 했겠지”(연구참여자 E). E는 중급 단계에서도 내담자들이 상담에 비협조적일 경우 지나치게 자기반성적 성찰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럴 때면 동료들이 자신의 문제와 내담자의 문제를 분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반복된 생각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동료가 가장 가까운 공간에 존재하는 조력자라면, 슈퍼바이저는 연구참여자들의 역할 모델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앞서 나간 선배이자 스승이다. 슈퍼바이저는 상담사가 상담에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상담 현장에서 준비가 부족한 상담자는 상담에 대한 부담, 불안, 두려움 등의 감정을 경험하다 위기가 닥쳤을 때 자기 비난적 성찰에 쉽게 빠지게 된다(김은하, 백지연, 2019). 연구참여자들은 자기 전문성의 향상을 위해 자신에게 맞는 슈퍼바이저를 찾았다. A는 자신의 목표인 “좋은 상담자”의 모델과 같은 지도교수님을 따라 대학원에 진학했다. 그는 상담에서 사례 개념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자기의 슈퍼바이저를 볼 때마다 마치 하나의 과학 공식처럼 명확하게 내담자에 대해 분석하는 전문성을 높이 평가했다. B는 슈퍼비전을 받다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목숨을 걸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슈퍼바이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철학과 기술을 닮아가고자 했다. C는 슈퍼바이저를 통해 삶의 위로와 상담의 철학을 배웠다. C는 “너의 마음이 이런 거잖아.”라며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봐준 슈퍼바이저를 통해 내담자를 존중하는 힘을 키웠다. 연구참여자들은 각자의 롤모델이자 슈퍼바이저를 찾았고 그들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 꾸준히 준비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숙련 단계의 상담자가 된 이후에도 자기의 슈퍼바이저에게 배운 상담에 대한 자세와 철학을 잊지 않기 위해 자신의 삶을 먼저 점검하려고 노력했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은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리를 지어 살아간다(최상욱, 2019: 39).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타자와의 관계 맺기는 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요구된다(이미나, 2021). 인간은 공동체의 상호작용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주고받는 과정에서 갈등을 만들어 낸다. 아무리 선한 동기라고 하더라도 자신과 타인의 이익이 충돌했을 때 일어나는 갈등은 인간의 본능에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기인한다. 그러나 상담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역할을 자처하며 상담이 주는 보람의 가치를 자신의 이익에 우선한다(최현주, 2020: 96). 연구참여자들도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도움을 주려는 선의가 매우 강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내담자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내어주었다.

C는 아이들을 만나는 것 자체에 높은 가치를 두었기에 강사비가 없다고 해도 의뢰가 오면 어떤 곳이라도 달려갔다. 그런데 일부 기관에서 상담자를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례만 모아 의뢰하거나 이수 시간만을 채우려는 듯 좁은 강의실에 빼곡히 아이들을 채워 넣고 강사를 불렀다. C는 상담이나 교육을 진행할 수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저들이 왜 날 이 지옥에 넣는 거지"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아무리 선의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이용당하거나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 결단을 내릴 수밖에는 없었다. "지원사업을 이제 안 해요. 이게 어렵게 해도 엉뚱하게 돈이 나가기도 하고 관리가 안 되니까." (연구참여자 E). E 또한 선의로 시작한 일이 상담보다 주가 되면서 지원사업을 정리하게 되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언제까지 해줘야 하지?" (연구참여자 D). 연구참여자들은 선의로 시작한 일들로 인해 갈등과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 좋은 상담자가 되고자 베풀었던 선의의 마음이 기관이나 내담자들에게 쉽게 이용해도 되는 것처럼 무시당한 것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밀려오는 억울함과 서운함을 멈추고 자기성찰을 통해 누군가를 제대로 돌보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돌봄은 모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이자 윤리적 성격으로 인간이 잘살 수 있도록 세상을 바로잡고 유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Toronto, 2014).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돌봄(Sorge)'이 인간 현존재의 특징으로 본래의 자기를 이해하는 인간 실존의 가능성이라고 해석했다. 즉, 돌봄은 인간의 본성을 완성하는 과제로, 자유롭게 삶을 기획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 것이다. 이는 대지와 하늘, 신적인 것, 이웃과의 관계를 맺으며, 죽음을 향해 다가가며 자신 속에 머무는 방식으로 드러난다(공병혜, 2013). 현존재인 인간은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가진 존재자로서, 존재를 가까이에서 염려하며 돌보는 역할을 맡는다(김희원, 권민균, 2021). 돌봄은 인간의 신체적 측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면뿐 아니라 감정적인 측면까지 다루는 관계적인 행위로 상담과도 관련이 깊다(김경희, 2017). 상담자가 자신의 취약점을 알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직업적인 성장에도 중요한 문제이다. 상담은 공감적 애착으로 관계를 맺고 적극적으로 몰입하여 타인을 돕고 직업적인 분리를 하는 반복된 작업이다(Skovholt, 2003: 45). 이 과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를 돕는 동시에 분리된 자신을 돌봐야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현실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자기돌봄을 실천했다. A는 자기 삶의 변화를 위해 '자기 정체성'을 주제로 하는 집단상담에 참여했다. 그는 상담자로서 더 집중해서 상담을 하고 싶었지만, 기관장이라는 역할에서 오는 혼란으로 인해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없을 것 같다고 좌절했었다. 그러나 집단원들에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고 격려와 지지를 받으며 새로운 에너지를 받았다. C는 쉬는 날이면 테니스 클럽에 나가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운동을 하고 친목을 다졌다. 그는 '다른 세계'가 주는 활력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경험에서 또 다른 관점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E는 시간이 되면 혼자 여행을 다녔다. 낯선 곳에 갔을 때 느끼는 해방감은 지친 마음을 달래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힘을 주었다.

청소년 상담은 청소년이라는 특성으로 부모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청소년 상담에 대한 보호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이어지며 상담자들을 어렵게 한다(강서연, 금창민, 2023: 69). 연구참여자들은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부모의 무관심이나 잘못된 훈육방식과 태도가 성공적인 상담의 방해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은 상담자가 어떻게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의 어려움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든 비행청소년의 사례가 같지는 않지만, 가정에 방문해 보면 부모가 부재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다반사라 상담자로서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상담자로서 어쩌지 못하는 한계를 빈번하게 인식했다. 연구참여자들은 비행청소년들의 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고 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은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비행이 아니라면 이들의 존재는 어떻게 규정하는가와 같은 근원적인 존재의 물음을 통해 상담 관계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해 성찰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청소년들의 특출한 재능이 아닌 존재 그 자체의 특별함을 인정하며 그들을 얼굴 있는 타자로 인식했다. 존재란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규정할 수 없는, 손에 잡히지 않는, 알 수 없는, 무변광대함’이다(Heidegger, 1998). 이러한 성찰의 과정은 참여자들의 인격적인 성장을 불러왔다. 연구참여자들의 이러한 가치는 상담실을 벗어나 그들의 개인적 삶에도 영향을 주었다.

상담사는 다른 직업군과는 달리 전문성이 높아질수록 개인적 자기(personal self)와 전문적 자기(professional self)가 점차 융합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다(Skovholt, 2003). 특히 A, B, D의 경우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과 어른이자 상담사로서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에서 갈등을 조절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청소년 범죄를 깊게 자주 접하면서 부모로서 과도한 걱정을 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회에서 자녀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아이들과 잘 어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이자 어른의 역할임을 받아들였다.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이들을 둔 A는 “오히려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라며 매사에 아이들의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했던 자기의 모습을 반성했다. B는 “우리 아이가 그 사회 안에서 그런 아이들을 뭔가 다르다고 이상하다고 문제가 있다고 배척하고 사는 건 저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라며 비행청소년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자기의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였다. D는 가끔 특정 비행이 유행처럼 번지면 자녀들에게 엄하게 주의를 주기도 하지만 대체로 자녀들을 믿고 간섭하지 않으려고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처음 비행청소년 상담을 시작하면서 너무 많은 범죄 정보에 노출되고 불안도 커졌었다. 상담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행청소년들과 함께 공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마음 한편에 ‘내 아이’나 ‘내 아이의 친구’가 혹여 비행 문제에 엮이지 않을까 두려웠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비행청소년들을 보며 같은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타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서로가 경계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태도를 요구한다. 따라서 성장의 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역할 모델이 되어줄 성숙한 어른들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특히, 관계에 어려움을 지닌 비행청소년의 경우 타자의 인정과 따뜻한 수용 경험이 더 필요하다. 연구참여자들은 상담에서 공존의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의미를 깊이 이해했고 솔직함과 유머, 돌봄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좋은 관계 형성을 위해 애씀을 실천했다. B는 “살아오면서 홀로 견디고, 삼켜야 했던 삶의 아픔들을 상담자와 함께 나눈다면 그 상처들이 재해석 되는 기회가 있다.” 고 하며 상담자들은 누구보다 비행청소년들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C는 “내가 경험한 것을 솔직하게 내담자와 나눌 수 있을 때, 지금 여기에서의 만남이 함께 살아가는 힘이 되고 과정이 될 수 있다.” 며 진실한 관계 경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다. D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상담자들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지 태도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시작하여 10년 이상 꾸준히 비행청소년 상담을 지속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이 처음 상담자로서 비행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일은 시간이 지나면서 비행청소년들의 삶을 대변하는 역할이 되어 있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소년범죄의 이슈로 소년법 폐지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자극적인 소재로 청소년들의 비행을 뉴스거리로 만드는 언론과 매체가 어떻게 이 아이들과 공존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연구참여자들은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떠한 시선으로 비행청소년을 바라보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변에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있지만 이 아이들은 이미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범죄가 발생하기 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 과정에서 상담자뿐 아니라 복지사, 교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긍정적인 변화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죠. 그 아이들을 만나는 복지사든지 교사든지 상담자들이든지, 그 시기에 뭔가 아이들이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조두순[15] 같은 사람 또 나오지 말라는 거 어디 있겠어요.” (연구참여자 B). “아이들의 다양성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 학력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인성교육도 그렇고 학교 내에서 하는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죠.” (연구참여자 D).

15) 조두순은 대한민국의 범죄자이다. 미성년 시절 절도를 시작으로 상해치사, 아동 성범죄, 성폭행 등의 중범죄를 수차례 저질러 전과 18범이며, 8세 여아를 성폭행하여 신체를 훼손 조두순 사건의 가해자이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하이데거의 ‘양심의 부름(Ruf des Gewissens)’은 개인의 내면에서 느끼는 도덕적인 책임감이나 의무감으로 이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도덕적인 이념에 기반하여 행동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박일태, 2019: 207). 연구참여자들은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며 그 안에서 성장과 회복의 기쁨을 경험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아이들이 누군가 필요로 하고 내가 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이 아이들과의 공존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4. 소결

Ⅴ장은 연구퍼즐2에 해당하는 숙련상담가들의 비행청소년 상담 경험의 의미이다. 연구자가 발견한 숙련상담가의 비행청소년 상담에 나타난 경험의 의미는 타자성이다. 연구자는 타자성을 설명하는 큰 주제 '이해와 공감', '무한의 존중', '연대와 협력'을 중심으로 연구의 의미를 탐색하였다. 이해와 공감은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참여자들의 인식 변화와 공감의 의미를 기술한다. 상담자로서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자기 주체가 아닌 타자철학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참여자들은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가해자라고 불리는 청소년들의 삶을 알아갈수록 이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피해자로서 살았던 삶의 교차점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관점의 변화 속에서 비행청소년의 어려움과 요구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비자발적이고 긍정적인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경험한 비행청소년과의 상담에서 관계 형성 자체가 상담의 과정이자 목표가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실수와 애씀의 과정을 반복하며 내담자들에게 적합한 자기만의 상담을 만들어 갔다. 연구참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매체나 방법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내담자를 존중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긍정적 관계를 강화하고 정서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참여자 간에 다름이 없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에서 강조하는 무한의 존중을 상담자의 경계로 실천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행청소년들의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 음주와 흡연 등 일반청소년들과 다른 사고나 생활방식이 상담에서도 독특한 도전을 주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비행청소년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적절한 경계를 세우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 비행청소년의 특성은 성인과 유사한 문화, 가정의 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등이 포함하고 있었기에 이들을 상담하기에는 다차원적인 관점이 필요했다.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참여자들의 또 다른 어려움은 소진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라포 형성이 어렵고 기본적인 약속이 잘 이행되지 않는 상담에서 소진을 경험했고 이는 상담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는 위기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상담의 경험이 쌓여가면서 비행청소년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은 자기 역할에 대한 경계를 설정함으로 상담 현장에서 내담자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참여자를 전문가로서 성장시키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숙련상담자가 되어가면서 연구참여자들은 비행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초점을 두는 대신, 그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선택에 시선을 돌리며 그들의 삶을 존중했다. 이러한 존중은 존재 자체에 대한 무한한 존중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비행청소년의 관점을 이해하고 그들이 느낀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비행 행동을 조정하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다. 이런 관계는 아이들에게 자신을 표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재범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연구참여자들은 비행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여 변화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깨워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은 비행청소년을 공존의 대상으로 인정하며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왔다. 연구참여자들은 상담 과정에서 소진을 경험하면서도 비행청소년들의 변화에 기쁨을 느끼고 보상을 받았다. 이는 비행청소년들의 성장과 회복에 대한 믿음의 선물이 되었다. 비행청소년 상담에서는 연대와 협력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공적인 상담은 상담자 내담자의 관계뿐 아니라 동료, 슈퍼바이저, 우리 사회와 국가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대와 협력에서 상담자들은 도움을 받는 역할이 되기도 했다. 비행청소년 문제가 가정이나 이를 담당하는 특정 상담자의 책임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공존하는 우리와 국가가 함께 협력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시사했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Ⅵ.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을 상담하는 숙련상담가의 경험과 그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개입은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와 습관화, 흉악화의 증가 추세(대검찰청, 2021) 속에서 지역사회의 안전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중요한 사안이다. 연구자인 나는 비행청소년을 상담하는 중급 단계의 상담자로서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희로애락(喜怒哀樂)의 다양한 경험을 했고 이러한 경험은 나의 개인적 삶의 태도와 가치의 변화를 일으켰다. 연구자는 나의 개인적 경험을 넘어 비행청소년 상담의 경험과 경험의 의미를 좀 더 심도 있게 탐구하기 위해 상담 경력 10년 이상의 숙련된 상담자 다섯 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직원으로 센터 내에서 법원이나 경찰에 연계되어 주로 개인 상담 경험이 있는 참여자 2인, 프리랜서로 비행 관련 강의와 집단상담, 그리고 법원이나 경찰서에 연계된 내담자를 받아 개인 상담을 하는 상담자 2인, 그리고 소년원이나 분류심사원 등 시설 내에서 집단상담을 진행한 상담자 1인으로 구성되었다. 서로가 다른 상담 환경에 있던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경험의 내러티브를 제공해 주었다. 내러티브는 인간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경험을 탐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과 세계의 구조를 이해하고 밝히는 학문과 관련이 있다(염지숙, 2022: 112). 나는 이러한 내러티브의 특성이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내러티브 탐구를 연구방법으로 선택했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상담자로서 비행청소년들이 지닌 삶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들이 지닌 문제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도구적 세계에서 함께 있음으로써 타인을 배려하는 공동의 세계에서 살아간다고 했다(Heidegger, 1998). 이러한 공동의 세계에서 타인과 함께 있음은 타인을 배려하는 관계를 의미하며, 이러한 관계는 두 가지 극단적인 양태를 보인다. 첫 번째 배려는 타인의 염려를 떠맡는 방식으로 타인은 의존적이고 암묵적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으로 지배받는 사람이 된다. 두 번째 배려는 타인에게 자신의 실존 가능성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이 경우는 타인에게 염려를 빼앗지 않고 그의 존재 가능성에 앞서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열어준다. 본 연구에서도 첫 번째 배려처럼 상담자가 비행청소년의 염려와 짐을 떠맡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어떠한 문제는 쉽게 해결된 듯 보이겠지만, 상담자는 일방적인 노력으로 소진되고 청소년은 의존적이고 지배받는 사람이 될 우려가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상담자가 비행청소년에게 본래의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스스로 자기를 돌보도록 도울 수 있다. 이 방법은 청소년이 스스로 자기돌봄을 실천하며 함께 살아가는 타자로서의 염려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비행청소년 상담은 비행의 원인이 각기 다르고 청소년의 환경과 반응의 차이가 크며 적절한 돌봄이 요구되고 있지만, 상담자와의 신뢰가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개입 또한 까다롭다. 그만큼 비행청소년 상담 경험이 많은 상담자들의 이야기는 가치가 있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인 숙련상담가들의 비행청소년 상담 경험의 내러티브는 다음과 같다.

A의 내러티브는 ‘상담자의 정체성 찾아가기’이다. 그의 경험은 갑작스런 공황으로 상담을 받으며 진로를 변경했던 ‘손가락만 빨던 찌질이의 변신’, 사설 상담센터에서 시련을 겪으며 상담자의 직업적 안정감을 찾는 과정의 ‘안전한 상담을 위한 안정된 환경’,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상담자로서의 정체성 혼란을 겪은 ‘교육가와 상담자 그 사이의 혼란’, 지나친 기대를 버리고 현실을 수용한 ‘하나의 씨앗이 될 수 있다면’, 숙련 단계가 되어도 여전히 버거운 상담의 경험을 담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담’, 상담자로서 자신을 성찰한 ‘나는 괜찮은 상담자인가?’의 주제로 분석되었다. A는 비행청소년들의 거침없는 사고와 행동에서 강한 호기심과 끌림을 느꼈다. 그는 초심 단계에서 비행청소년들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경력이 쌓이면서 아이들의 가정환경을 깊이 알게 연민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순간에는 지나치게 유연한 태도로 아이들을 대하기도 했지만, 교육자의 역할도 잊지 않았다. A는 센터장의 위치에서도 상담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행청소년 상담을 지속하지만, 숙련 단계가 되어도 여전히 쉽지 않다며 상담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B의 내러티브는 ‘임상에서 배운 나만의 철학’이다. 그는 자신이 비행청소년이었던 경험 ‘실망이라는 무기를 휘두름’, 상담의 성공을 찾기 힘들었던 경험의 ‘100개의 칼자국과 90%의 좌절’, 자신의 판단과 달리 회복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발견한 ‘답을 찾아가는 아이들’, 상담자로서 반성과 성장을 다룬 ‘25일의 심판과 새로운 도전’, 상담자로서 앞으로 역할을 찾아가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자신의 이상적인 삶의 철학을 담은 ‘근사하지 않으면 어때요?’의 주제로 분석되었다. B는 자신의 청소년기를 ‘반항’이라는 단어로 소개하며, 부모의 통제 속에서 자율성과 자아 표현에 대한 갈망이 컸던 자기를 돌아보았다. B는 비행청소년 상담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 그는 사랑을 전제로 한 훈육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 행동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 약속된 시간에 항상 대기하며 내담자를 기다리고, 상담 전에는 이전 상담 일지를 숙지하며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는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문제행동에 초점을 두는 대신 아이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존재 자체로의 내담자를 만나려고 노력했다. 또한 상담자로서 성장을 가장 큰 가치에 두었고 항상 자신을 성찰하는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애썼다.

C의 내러티브는 ‘새로운 인생의 드라마’이다. 그는 자신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아이들을 만난 ‘이해의 무게에 짓눌림’, 소년원에서 발견한 희망 ‘참담한 현장 속에 피어나는 희망’, 아이들의 세계로 들어간 ‘교양을 버리고 시선을 맞춤’, 상담자로서의 혼란을 다룬 ‘정체성과 역할의 혼란’, 상담자로서의 소진을 다룬 ‘걱정과 불안이 슬럼프가 되다’, 경계 짓기로 자기를 돌본 ‘다른 세계를 통해 나를 돌보다’의 주제로 분석되었다. C는 사회복지 관련 학과의 교수로서 비행청소년과 관련된 현장에서 20년 이상 활동하고 있다. 그는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살아온 자신이 아이들을 만날 역량이 되는가에 대해 늘 고민했다. 그러나 자기의 삶이 사이코드라마를 통해 풍성해진 것처럼 아이들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힘들어도 일을 지속했다. C는 약물로 인해 뇌와 치아가 망가진 아이들을 만나면서도 치료 순간만이라도 아이들 행복할 수 있게 노력했다. 특히 그가 집단치료에서 실천하고 노력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평가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며 성찰하는 것이었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그는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아이들의 문제 행동보다는 아이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관심사에 집중하며 소통했다. 그는 동네에서 우연히 아이들을 만났을 때 아이들이 보내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며 아이들과의 관계에 고마움을 느꼈다. 아이들에게도 C와의 관계는 어려울 때 마음을 위로받는 큰 인적 자원이었다. C는 집단을 의뢰한 학교나 기관에서 C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정도로 아이들의 변화를 목격하면서 아이들로 인해 자기의 삶이 깊어졌음을 이해했다.

D의 내러티브는 '반복된 소진의 무게'이다. 그는 상담자로서의 직업전환을 다룬 '혼란에서 찾은 상담자의 길', 역할에 비해 과한 책임에서 매몰된 '모호한 윤리와 책임에 허덕임',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애쓴 '희망을 품은 백조의 발길질', 시대에 따라 달라진 비행에 대한 '익숙함에도 찾아오는 두려움', 경계 짓기로 자신을 보호한 '역할의 한계에서 찾아낸 지혜', 상담자로서의 소진을 다룬 '좌절의 늪에 빠진 무기력한 수호자'가 주제로 분석되었다. D는 교도소와 구치소에서의 인성교육을 시작으로 비행청소년 상담 경험을 쌓아왔다. 그는 신학을 전공한 후 전도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자기를 억누르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결국 자기를 알고 싶은 욕구로 상담을 공부하다가 상담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기의 청소년기를 생각하면서 비행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약속조차 잘 지켜지지 않는 아이들의 행동에 분노를 느꼈다. 그러나 상담하던 아이가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겪은 사건을 통해 상담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되돌아보았고, 청소년들을 돕는 상담사로서의 가치를 깨달았다. 무슨 일이든 나서서 해결해 주려던 열정은 소진으로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일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기도 했다.

E의 내러티브는 '상담으로 이룬 화해'이다. 그가 청소년 상담을 하게 된 과정의 '센터장에서 초심상담자로의 전환', 자신의 상처에서 내담자의 상처를 돌본 '내 안에 욱이 아이들의 분노를 이해함', 열정과 헌신이 배신으로 돌아온 '배신감으로 돌아온 장학금', 거부적인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돌본 '반복되는 거절에서 살아남기', 변화된 아이들을 보며 상담자로서 성찰의 계기를 얻은 '김장하러 가는 아이의 뒷모습', 어느덧 변화된 자신을 발견한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상담의 시간만큼 늘어난 성찰’의 주제로 분석되었다. E는 사회복지 전공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센터장으로 일하다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상담자로 전환했다. E는 상담 경험 없이 상담을 시작했으나, 가족치료를 배우면서 자신의 상처에서 회복하고 아이들을 도울 동기를 찾았다. 그는 늦게 공부를 시작한 만큼 쉬지 않고 달렸다. E는 강의와 상담을 병행하며 새로운 관점으로 아이들의 문제를 보기도 했다. 특히 인권교육을 했던 경험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경험했던 어려움을 더욱 공감할 수 있게 도왔다. 그는 상담을 통해 자신과 과거의 가족관계를 이해하고 분노와 거절에 대한 상처를 극복하며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자기의 강점을 발견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 상호관계에서 상대의 성장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Ⅳ장에서 첫 번째 연구퍼즐에 해당하는 숙련상담가의 비행청소년 상담 경험이 어떠했는지를 탐색했다면 Ⅴ장은 두 번째 연구퍼즐에 해당하는 숙련상담가들의 비행청소년 상담에 나타난 경험의 의미가 어떠했는지를 탐색한 것이다. 연구결과 숙련된 상담가의 비행청소년 상담 경험의 의미는 타자성을 중심으로 ‘이해와 공감’, ‘무한의 존중’, ‘연대와 협력’의 의미영역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이해와 공감은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상담자들이 숙련의 단계가 되는 동안 어떻게 비행청소년을 이해하고 공감했는지 그 변화와 변화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비행청소년 상담을 시작했던 참여자들은 겉으로 드러난 비행 행동으로 아이들을 판단하게 되면서 상담 관계조차 제대로 맺지 못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것 같은 비행의 특성에서 가해자라고 불리던 아이들의 이면에 피해자로서 외롭게 방치되고 학대당한 삶을 보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피해자로서 살았던 삶의 교차점들을 발견하였고 이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경험으로 비행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 사회의 경쟁적이고 차별적인 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상담 경력이 쌓여가면서 내담자들에 대한 이해는 점점 커졌고, 이러한 경험은 해결되지 않았던 자기의 상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 무한의 존중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일반청소년 상담과는 다른 비행청소년들의 독특성과 개성을 존중하며, 그들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상담 과정에서 비행청소년들은 자기중심적이고 독특한 사고, 성인과 유사한 문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화, 가정의 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우울과 충동성 등의 문제가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며 소진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었지만, 상담 경력이 쌓이면서 적절한 경계를 만들어 서로를 보호했다. 상담 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내담자와 상담자의 적절한 거리를 찾고 서로가 온전하게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연대와 협력은 청소년 비행을 부모의 일방적으로 책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는 점을 시사한다. 연대와 협력의 의미는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상담자의 동료, 슈퍼바이저, 부모, 학교, 그리고 사회도 상담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내담자의 필요에 맞춰 역할을 변형시키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비행청소년들과의 공존의 의미를 깊이 이해했으며, 상담 현장뿐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도 솔직함과 유머, 돌봄 등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노력했다. 또한, 동료와의 관계에서 서로 격려와 도전을 주고받으며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문제는 슈퍼바이저의 도움으로 내담자를 도울 수 있었다. 상담자는 도움을 주는 역할이면서 도움을 받았고 이러한 관계는 청소년의 비행문제에서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 비행 문제에 대해 일차적으로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나 상담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기대하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사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만큼 우리 사회의 책임이기도 하다. 결국 부모와 교사, 상담사, 지역사회가 비행청소년의 재범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모두가 연대하고 협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2. 논의

내러티브 탐구의 결론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연구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이다(양유성, 한계수, 조난영, 2022: 38).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왜 이 연구를 하는지, 그 중요성과 목적에 대해 생각하고 연구참여자의 이야기가 개인적 경험의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내러티브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에 대해 '왜?'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염지숙, 2022: 130). 즉, 연구를 설계할 때 '그래서 뭐?' 와 '알 게 뭐야?'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또한, 내러티브 탐구자는 개인의 관심과 중요성을 보다 넓은 사회적 관심으로 정교화시켜야 한다(Clandinin & Connelly, 2007: 227). 클래디닌은 연구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개인적 정당성, 실제적 정당성, 사회적 정당성의 세 방식을 찾았다(Clandinin, 2015: 51). 연구자는 개인적인 탐구 퍼즐에서 탐구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경험을 다시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실제에서의 실천 가능성에 대한 의미를 형성하고, 나아가 사회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확장해 나간다(양유성, 한계수, 조난영, 2022:39). 따라서 독자들이 탐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의 의의에 더 공감할 수 있도록 본 연구 결과를 개인적, 실제적, 사회적 정당성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1. 개인적 정당화

내러티브 탐구에 들어가기 전 나는 한동안 연구퍼즐의 조각에서 맴돌고 있었다. 나는 2013년부터 H공단에서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갱생사업의 취업지원 업무를 했었다. 대상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그들의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범죄자' 라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안타까움,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과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교차하면서 상당한 긴장을 경험했다. 그곳에는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숙소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때때로 봉사자들이 오면 마치 잔치가 벌어진 것처럼 시끌시끌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봉사자들은 식사를 준비해 출소자들에게 대접하고 경제적 지원과 취업을 알선하는 등 그들이 지역사회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에 자리를 잡도록 대가 없는 도움을 주었다.

당시 나는 잦은 재범으로 갈 곳조차 잃은 그들에게 헌신과 호의를 베푸는 봉사자들이 대단하다고 느꼈었다. 하지만 그런 호의를 받으면서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몇몇 출소자들을 보면서 '왜?' 라는 의문점이 따라다녔다. 나는 '성인이 아니라 변화에 훨씬 유연한 아이들이라면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2016년부터 비행청소년을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기대가 차올랐다. 하지만,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분노와 공격성을 전혀 숨기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의 적절한 거리라는 개념이 없었다. 어느 날은 가시를 세운 고슴도치처럼 다가갈 수도 없다가 어떤 순간에는 찰싹 달라붙어 강하게 애정과 돌봄을 요구했다. 나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어렵다' 라는 말을 주문처럼 외우고 다녔다.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지?' 라는 질문은 상담자로서 '나는 왜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지? 결국 그들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인가?' 라는 좌절을 답으로 주었다.

나는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실수와 실패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때로는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은 한계를 느끼기도 했다. 그래도 뭔가를 해봐야 미련이 남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대학원 진학을 선택했다. 대학원 과정은 인문학적 성찰을 중시하며 부족한 자기의 역량과 자질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주었다. 나는 연구의 현장으로 들어가기 전 자문화기술지를 통해 '무지한 나' 에서 '협력적 나' 로 변화한 성장의 경험을 연구했다(정화정, 김영순, 2022). 내가 대학원 수련 과정에서 배운 협력적 나의 모습은 타자철학과 관련이 있었다. 타자철학은 상담자로서 삶의 의미와 가치, 도덕적인 문제들에 대해 이론적인 관점을 제시했다. 나는 이미 상담 경력이 많은 상담자의 삶에서 타자철학이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생겼다.

내가 상담자로서 지녔던 '왜?' 라는 질문이 나만의 특별한 과제 같았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의 솔직한 삶의 이야기에서 나와 닮은 지점들을 맞춰갔다. 나는 연구참여자인 상담자들의 타자에 대한 인식 변화 과정을 보며 나의 기준이나 노력의 대가를 일방적으로 타자에게 요구했던 방식이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특히 타자철학의 관점에서 비행청소년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아이들을 쉽게 평가했었는지를 반성하게 되었다. 나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는 연구 이전에는 연구참여자들이 이야기하는 '경계'가 상담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참여자들과의 탐구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이야기하는 경계가 인격적인 존중을 통해 온전히 내담자의 세계를 인정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섬김의 대상으로서의 타자를 다시 보게 되면서 이전 직장에서 출소자들을 위해 헌신했던 봉사자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연구참여자들은 상담을 시작하면서 상담자로서 내담자에게 도움을 준다는 선의의 목적도 주체 중심의 태도가 되어 내담자를 대상화했었다고 고백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상담의 과정에서 성찰을 통해 상담자로서 성장해 갔다. 나는 참여자들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며 숙련된다는 것은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것이 늘 부끄러웠다. 때로는 아는 척 고개를 끄덕이며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괜찮아 보이고 싶은 마음에 잘 못하는 것은 숨기기도 했었다. 나는 E와 마지막 면담을 할 때 '어떻게 이렇게 다들 솔직할 수 있죠?'라는 질문을 했었다. 그때 E는 '저도 첨에 안 그랬던 거 같은데 점점 더 그렇게 되더라구요'라며 편안한 웃음을 보인 적이 있었다. 나는 연구를 통해 숙련상담자들의 타자성은 그들이 만나는 내담자뿐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수많은 자기 타자와의 치유와 화해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의 이야기에서 미처 화해하지 못했던 나와의 만남의 시간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2.2. 실제적 정당화

연구자는 본 연구가 연구자의 개인적 정당화로 결론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술연구로서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숙련상담가의 비행청소년 상담에 나타난 경험'에 대한 실천 가능성을 논의하려고 한다. 숙련상담자에 관한 연구는 숙련된 상담자가 되기까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했을 수 없이 많은 사건과 관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기의 상담 경험을 회상하면서 현재의 가치관과 태도를 과거 경험과 연결되어 재해석하며 자연스럽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청소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년’이라는 주제에서 ‘비행청소년’이라는 특수한 대상으로 초점을 두는 방향의 전환에서 새로운 의미를 형성했다. 특히, 비행청소년이라는 특수한 대상에 대해 다양한 단계의 상담자 중 숙련상담자의 경험은 초심부터 숙련까지의 긴 시간에 따른 변화와 차이를 탐색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다섯 명의 연구참여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주목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소년원, 보호관찰소, 법원, 상담복지센터, 경찰서, 학교 등 여러 기관에서 교육이나 상담으로 비행청소년을 만나고 있다. 아이들과 만나는 회기나 방식은 아이들(대상자)이 받은 처분의 내용과 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한 상담자들의 경험도 근무환경이나 내담자 비행 정도의 차이, 성별, 상담 형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모든 삶이 아닌 비행청소년 상담의 현장에서 전달할 수 있는 개인의 경험을 그대로 수용하고 ‘정책의 지원’, ‘통합적 돌봄’, ‘전문인력 양성’의 주제로 상담 현장에서의 실천적 논의점을 찾아 나갔다.

첫 번째, 정책적 지원의 문제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비행청소년을 교화하는 정책이 교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경험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잘못할 때 부모가 훈육하듯 국가에서의 교정과 보호는 적절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잘못된 생활방식을 가지고 살아온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까지는 내·외적 노력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에 정책적 지원 또한 이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청소년기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범죄와 연관이 깊다(김지민, 손진희, 2017: 41). E는 오히려 범죄를 크게 지어서 보호관찰을 받게 되거나 소년원에 송치하게 되면 법의 보호를 받으며 경제적인 지원을 받게 되는데 아무런 자원도 없는 아이가 어설프게 비행을 하다가 걸리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없고 비행청소년이라는 낙인만 받게 된다고 했다. 그는 지금의 지원 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다며 답답하다고 이야기했다. 이는 D도 같은 의견이었다. 국가에서 이런 아이들에게 지원이 없다 보니 상담자들이 기업이나 지차체의 사업을 찾아 지원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관련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상담자 개인에게 미루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두 번째,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돌봄에 대한 이해였다. 참여자들이 만난 비행청소년들은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소외되고 다른 사람과 적절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아이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행동을 습득한다(Akers, 2017). 가족과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비행의 기술, 구체적 동기, 합리화, 태도 등을 습득하며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모방한다. 또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어른의 도움은 적응적인 행동을 돕는다(임선아, 2018). C는 '돌봄'은 단순한 의식주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정서적 나눔과 함께 적절한 교육과 양육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이들이 환경에 내몰려 하루를 벅차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된다고 해서 저절로 건강한 어른이 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B도 C와 같이 꼭 비행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을 통한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학교의 교육방식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세 번째, 비행청소년을 관리하고 돌보는 인력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다. 상담자들은 구체적 교육, 힘든 역동의 대처 및 치료적 구현, 내적 자기를 다루는 능력 등을 교육받았을 때 성장한다고 느꼈다(권경인, 김미진, 추연국, 2020: 503). 그러나 본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하고 비행청소년 상담업무를 하고 있지만, 해당 기관에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 또한 한 분야의 숙련상담자가 되어도 상담 기술이나 방법을 전해줄 기회가 없었다. 그러한 이유로 오래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초심상담자가 상담을 맡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사업이 되는 것이다. 상담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상담자의 자기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상담자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상담자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다(Auxier, Hughes & Kline, 2003).

A는 초심상담의 경험을 떠올리며, 상대를 칼로 협박하고 성폭행을 한 가해아이가 상담을 왔는데 주변에 그런 사례를 받은 사람도 없었고 상담 경력도 짧았기 때문에 아직도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전했다. D는 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각각 다른 기관에서 D와 상담을 하면서 명확한 규정이 없이 대부분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상담자가 짊어지는 상황 자체가 불안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전했다. 일반적이지 않은 비행청소년 상담의 경우 그 특수성에서 오는 모호함과 불안은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상담자로서의 자신감을 종종 잃게 하였다.

씨앗을 뿌리고 새로운 싹을 피우기 위해서는 바람과 햇빛과 비가 시기적절하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바싹 마른 땅에 싹이 피어나지 않는다고 씨앗을 탓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아이들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슈퍼맨을 찾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보았다. 또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문제의 관점이 아닌 공존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아이들은 우리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것이다.

2.3. 사회적 정당화

사회적 정당화는 비행청소년을 상담하는 상담자의 전문성과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감소를 위한 교육, 청소년 비행의 예방을 위한 이론을 제안함으로 광범위하게 청소년의 비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첫째, 숙련상담자들의 경험은 직업적으로 상담사의 처우 문제에 사회적 정당성을 추구하고 있다. 연구자는 연구를 준비하면서 비행청소년 상담 현장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지닌 숙련상담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발견했다. 연구참여자들보다 상담 경력이 많은 상담자들은 교수나 슈퍼바이저로 현재는 비행청소년 상담사례가 많지 않았다. 나는 내러티브 탐구 과정에서 이러한 현상 또한 비행청소년 상담의 특성임을 알게 되었다. A는 “비행청소년만 상담하는 상담사를 구하는 건 어렵죠. 경력이 쌓이면 힘드니까 다른 곳으로 많이들 가게 되죠”라고 이야기했고, B는 “좋은 상담자를 구하려면 그만한 대우가 있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상담자에게 희생 같은 걸 요구하니까 아무래도 오래 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D는 “교육의 부재로 인해 상담사들의 소진을 막기 어렵다”고 밝혔고, 코로나로 인해 취업을 선택한 E는 “너무 불안정하니까 계속 하기 힘들었다”라고 전했다. 연구자는 시설에 들어가 집단치료를 했던 C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떤 관점을 지니고 있는지 궁금했다. C는 “세팅 자체가 상담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떤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우리를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이용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며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연구자는 연구의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처음 상담을 시작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현재까지 어떠한 이야기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들의 경험이 어떻게 상담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지를 주목하였다. 상담은 상담자가 자신을 변화의 매개체로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정인주, 김보영, 2015). 따라서 상담자는 성공적인 상담을 위해 자신의 심리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상담은 상호 협력적 과정으로, 상담사도 상담 과정에서 고충을 겪으며 기본권 침해를 받기도 한다. 상담의 과정에서 상담사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상담사의 권리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따로 없는 실정이다(김정진, 2016). 이는 법의 형평성이 미비하며, 상담사들이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또한 상담자의 전문성 인정과 보상체계, 근무환경, 전문성 신장, 행정지원의 영역에서 소진 문제가 발생하며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박애경, 허정경, 2015).

D는 "비행이 다양하다 보니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투입되기도 하는데 그럴 때면 문제가 생겨도 상담자가 다 책임을 져야 하니까" 라며 지난 상담의 경험에서 자신이 소진을 겪었던 사건에 대해 이같이 이해하고 있었다. C도 기관으로 들어갔을 때 "그 시간은 온전히 제 책임이 되는 거죠" 라며 안전장치가 없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 B는 상담 환경에 대해 "열악하다" 며 이러한 문제로 비행청소년 상담을 기피하는 상담자들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업무 책임에 비해 과도한 부담과 적절하지 못한 대우로 인한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B는 "누구나 오고 싶은 상담 현장이 된다면 당연히 실력이 있는 상담자들이 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상담의 질은 저절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였다. C 또한 경력이 쌓여가고 교수라는 타이틀로 인해 오히려 기관에서 쉽게 일을 주지 못하며 점차 일이 줄었다고 하였다. D는 "결국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일을 해도 전문가가 아닌 봉사자의 마인드를 원한다" 며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스템이 일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된다고 밝혔다. 연구참여자들은 비행청소년 상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서, 상담자의 적절한 처우 개선으로 상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둘째, 참여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비행을 줄이기 위한 감정과 소통 교육을 찾게 되었다. 비행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보다 외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고, 정서적으로 냉담할 가능성이 높다(Frick & Dicken, 2006). 연구참여자들은 비행청소년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비행청소년들이 자기나 타인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상대를 공감하며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신체화,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를 만들고 이는 쉽게 분노나 비행, 품행장애, 반사회적 행동 등의 외현화 문제로 발현된다(김수영, 임나영, 2018).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으로 정당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참여자 A는 상담의 목표 설정에도 이를 유념하고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왔다. 그는 “아이들이 약속을 어기거나 하면 제가 기분이 어땠는지를 가르쳐줘요.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잘 모르니까”라고 하였다. 그는 아이들이 비행을 멈추고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생활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러려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는 “잘 모르는 건 알려줘야죠. 경험이 없으니까 모를 수 있어요”라며 아이들이 자라 온 환경에서 당연히 습득했을 것이라는 전제를 버리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는 “너무 욱하니까, 말로 하면 되는데 감정이 너무 크니까 안되는 거죠”라며 아이들의 감정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이야기하였다.

우리 사회는 경쟁에서 이기고 성취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청소년기는 다른 사람과 상호존중의 태도를 배우고 익히는 시기로 경쟁만큼 타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해야 한다(최혜경, 전주성, 2021). 따라서 우리 사회는 감정 인식 및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입하여 비행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예를 들어 초기에는 분노감정 이해하기, 중기에서는 분노감정 알아가기와 경험하기, 후기에는 분노감정 전달하기와 ‘나 전달법’을 연습하고 역할극을 통해 자기에 대한 인정과 위로, 긍정적 분노표출 경험을 나누는 방법이 있다(민혜숙, 최인화, 2019). 그러려면 단기간의 상담보다 장기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으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로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는 방법을 익혀 타인과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방식은 비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신나영, 2023)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감정과 소통 교육은 필수적이다. 이처럼 감정을 인식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정당성을 추구하고 있다. E는 아이들이 잘하는 것이 있어도 사회적인 평가에 맞춰 자신에 대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자기들이 잘하는 건 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니까 자존감이 낮죠. 잘 하는데”라며 부모나 우리 사회의 기준이 학업성적에 지나치게 맞춰줘서 아이들을 평가한다고 하였다. A 또한 “다른 걸 해도 괜찮은데 그냥 자기를 포기해요”라며 학업에서 도태된 아이들이 쉽게 비행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다. D는 상담자이자 부모로써 “비행아이들을 만나면서 내 애들한테는 공부에 대해 더 말을 안 하게 되었어요”라며 부모가 먼저 아이들의 다른 강점을 발견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학업 중심이고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잠재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방법과 접근이 필요하다. 예술 교육은 창의력과 예술적 표현력을 개발하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감성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고, 스포츠 활동은 리더십, 협동심, 팀워크 등의 소양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함양할 수 있다. 학업 중심이고 경쟁적인 교육은 결코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아이들이 가진 강점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기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사회적으로 기여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목표를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업과 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직업체험 프로그램이나 인턴십 기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회를 제공하여 직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제안이나 의견 수렴 과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대표 기구를 만들어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청소년들은 정치, 환경, 사회 문제 등을 토론하고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목소리를 표현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방안들을 통해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에게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자기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3. 제언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상담하는 비행청소년들은 음주나 흡연 등의 지위비행부터 학교폭력, 성폭력, 절도, 폭행, 약물 등 불법행위까지 '비행'의 수준은 차이가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비행의 심각도에 따라 상담자의 관점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정에서 연구 계획을 한다면, 비행의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전문성 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 상담을 10년 이상 수행한 숙련상담자를 연구참여자로 모집했다. 숙련상담자의 경험은 초심 단계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상담의 방법도 달라지고 있어 현재를 중심으로 상담 경력별 참여자를 모집한다면 숙련 단계에 따른 차이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는 연구자가 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에서 참여자들에게 발견한 '타자 철학'을 연구자의 이론적 렌즈로 가져와 연구했다. 연구자의 이론적 논의는 독자들로 하여금 연구자가 연구에서 발견한 결과를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비행청소년 상담에 대한 다양한 원인론과 상담이론이 존재하는 만큼 다양한 상담적·철학적 렌즈로 연구가 수행된다면 보다 새롭고 다양한 관점에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본 연구의 연구자 역시 비행청소년을 상담하는 상담자로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의 과정에서 늘 판단중지[epoche]를 유념하였지만, 상담자인 연구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연구참여자와의 만남의 시작부터 연구결과까지 영향을 줄 수 있었음을 인정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이와 관련해 지도교수의 검토를 받았으나, 외부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를 수행했다면 좀 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Ⅶ. 에필로그

휴대폰을 들어 번호를 누르고 울리는 발신음에 긴장이 흐른다. 오늘도 아이는 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다시 전화한다. 두 번, 세 번 그리고 이제는 연락처를 확인하고 집으로 연락한다. 여전히 받지 않는다. 아이에게 문자를 보낸다. 연락은 없었다. 다음 날이 되어 아이의 부모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를 걸었다.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마음을 호소한다. 다시 아이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남기고 어제와 같이 전화한다. 그리고 아이가 전화를 받았다.

> “선생님이야. 연락이 안 되니까 너무 걱정했지. 어떻게 지내는 거야? 밥은 먹었니? 선생님이 집 근처에 갈 일이 있는데 몇 시쯤 집에 들어가? 30분만 일찍 와서 선생님하고 밥 먹을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간신히 연락이 닿아 아이를 만났다. 아이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을 늦게 왔지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입을 닫아버리니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 밥을 먹이고 최근 어울리는 친구들을 탐색하며 다른 사건과 엮인 것은 아닌지 조마조마하게 질문을 한다. 이런 경우 아무런 일 없이 넘어가길 바라지만 아이는 최근 경찰서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되묻는다.

난 분명히 여러 명의 아이를 만나고 있는데 아이들은 신기할 정도로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였다. 처음 비행청소년 상담을 시작하면서 기대와 실망의 파도가 매일 같이 몰아쳤다. 연락이 잘 되던 아이가 갑자기 전화 연결이 안 되기 시작하면 다시 연락하는 게 무서울 정도로 여러 사건을 터트리다 상담도 마무리 못하고 관계가 끊겼다. 나는 반복되는 사건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부모하고도 단절된 아이가 나와도 관계가 끊어지면 아이를 도울 수 없다는 생각에 아이 눈치를 보며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럽게 이어간다. 아이를 열심히 달랬다고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재범으로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면 상담자로서 한없이 자책과 후회가 들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은 비행청소년 상담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과 어쩌지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못하는 나에게 어떤 길이라도 선택해야 할 것 같은 막막함이 동기가 되었다. 나는 1년이 넘는 연구 기간에서 얻은 지혜가 어떻게 비행청소년 상담 현장에 영향을 주었는지 성찰하면서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다.

최근 상담했던 아이 중에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가출한 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나에게 매우 날카롭고 거부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한숨을 섞어 가볍게 욕을 하는 등 상담 관계를 맺으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다. 아이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노력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아이는 어린 시절 여러 사건으로 인해 분노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는데 엄마와의 갈등은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했다.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했을 때 아이는 매우 흥분된 상태였지만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곧 큰 싸움으로 이어지며 아이는 집을 나갔다. 나는 엄마와 통화를 하면서 아이에게 지나치게 강경하게 반응하는 엄마를 달랬다. 아이는 집을 나간 이후에 잘 곳이 없자 나에게 연락하였고 나는 기관과 협조하여 아이가 안전하게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 후 아이의 태도가 급격히 달라졌다. 며칠씩 연락을 해도 잘 받지 않던 아이가 먼저 연락하기도 하고 월급을 탔는데 엄마에게 생활비를 줬다며 자기의 달라진 생활을 전하기도 했다. 그리고 전에는 몇 차례 제안에도 싫다던 정신과 치료를 먼저 받고 싶다며 연계를 부탁했다.

나는 연구를 시작했을 때 상담자로서 지닌 나의 문제들을 매우 크게 해석했었다. 그리고 어려운 상담일수록 특별한 상담자들이 맡아서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에서 그들의 숙련 과정을 이해하고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인정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나의 개인적 신념이 나를 몰아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나는 내가 만난 아이들에게 관대했던 것처럼, 아직 배우며 성장하고 있는 나에게 좀 더 여유 있게 지켜봐 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주기로 하였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참고문헌

강서연, 금창민(2023). 청소년 기관 초심 상담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의미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상담심리교육복지, 10**(2), 55-80.

강선아, 김안나, 최보영(2020). 상담자 소진 메타 연구: 상담자 개인 요인 중심. **상담학연구, 21**(6), 1-27.

강영안(2005). **타인의 얼굴**. 서울: 문학과지성사.

강윤형(2016). **학교폭력 치유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의 임상적-신경심리학적-뇌구조적 변화**.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강학순(2009). 하이데거에 있어서 공동현존재로서의 타자에 관하여. **철학연구, 86**, 147-172.

고수현(2019). 정신건강상담의 통합 절충적 4단계 실천모형 모색: 상담 관점과 상담 목표를 중심으로. **복지상담교육연구, 8**(1), 47-91.

고영준(2014). 헤겔의 관점에서 본 마음의 발달의 원리. **道德教育研究, 26**(3), 69-93.

고윤희, 박성현(2014).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 과정에 대한 연구: 자기성찰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4), 805-839.

고정원(2015). **비행청소년들의 탈비행과정에 미친 독서상담의 효과.**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공병혜(2013). 실존적 현상학과 돌봄의 실천. **간호행정학회지, 19**(1), 138-145.

곽영빈, 신정원, 유영성 외(2021). **초연결시대 인간 미디어 문화.** 서울: 앨피.

구혜영(2015).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신정.

권경인, 김지영(2019). 청소년 비자살적 자해 위기상담 경험에 관한 현상학 연구: 상담자 경험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0**(3), 369-393.

권경인, 지희수, 강신호, 김미옥 (2012). 집단상담자 발달모형-전문성 발달의 단계, 주요 주제 및 특성을 중심으로. **인간윤리, 33**(1), 73-102.

권경인, 현은정, 성윤희 (2020). 숙련집단상담자의 집단상담 교육요구 분석. **상담학연구, 21**(4), 133-168.

권영우(2016). 헤겔 실천철학에서 세 가지 타자개념. **헤겔연구, 0**(40), 137-168.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권윤정(2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및 비행경험의 조절효과.** 서울기독대학교박사학위논문.

권윤정, 장재홍(2017). 청소년 내담자가 지각한 작업동맹 형성에 대한 개념도 연구. **청소년학연구, 24**(1), 213-238.

권해수, 강호성(2020). 보호관찰청소년의 탈비행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과 개인 주체성의 종단적 관계: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의 적용. **형사정책연구, 31**(2), 183-206.

권혁정(2021). 태권도인의 실존적 삶에 대한 앙가주망(engagement)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웰니스학회지, 16**(1), 119-126, 10.

권혜경, 이희경(2013). 초심상담자와 숙련상담자가 지각하는 내담자 강점과 활용방안에 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397-424.

김경숙, 남현우(2015). 비행청소년 상담(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교정패러다임에서 탈비행패러다임으로. **청소년학연구, 22**(12), 781-809.

김경숙, 남현우(2021). 비행 청소년 감호 상담 사례연구-청소년 탈비행 과정에서 중개자아와 선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17**(3), 7-22.

김경인(2022). **범죄피해상담사의 대리외상경험.** 국제신학대학교박사학위논문.

김경희(2017). 상담자의 돌봄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중급수준의 여성 상담자 경험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8**(3), 91-110.

김계현, 문수정(2000). 상담수퍼비전 교육내용 요구분석: 상담자의 경력수준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18.

김계현, 이윤주(2002).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수행능력과 상담 경력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257-272.

김금정, 최윤경(2018). 비행청소년의 개인 및 집단 분노조절 훈련의 비교-자아존중감과 초기 부적응 도식의 조절 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6**(1), 65-77.

김도남(2021). 독자 현존재의 텍스트 이해 특성 고찰. **새국어교육, -**(126), 145-180.

김동영, 최진아(2020). 경력상담자의 상담경험과 자기성찰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지, -**(10), 5-26.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김동일, 현은정, 우예영, 박준영(2020). 청소년 고위기 상황 및 효과적 개입에 대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기청소년 담당자의 인식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8**(2), 281-303.

김명희, 천성문, 윤정훈(2021). 은행원의 감정노동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매개효과. **교육치료연구, 13**(1), 41-56.

김미진, 권경인(2019). 상담자의 사회정의 옹호역량과 상담자 발달수준, 작업동맹 그리고 상담성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20**(2), 67-87.

김성이(1988). 한국 청소년의 약물남용과 비행행위. **한국인구학, 11**(2), 54-66.

김세일(2013). **청소년상담자의 성장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경성대학교박사학위논문.

김수영, 임나영(2018). 감정표현불능증 청소년의 EBDT에 나타난 정서행동문제 예측타당도. **예술심리치료연구, 14**(4), 23-47.

김숙향(2018). **청소년의 개인요인, 부모요인, 친구요인 및 지역사회요인이 학교적응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박사학위논문.

김신애(2018). 교육 분야 [국가디지털전환] 기획의 방향성 탐색. **[KEDI] 한국교육, 45**(4), 1-30.

김영순(2017). **다문화 사회와 공존의 인문학.** 경기도: 디비북스.

김영순(2023). 인하대학교 인문융합치료학과 '치료사의 자기이해와 윤리'(2023년 09월 14일). 3주차 강의 중 발췌.

김영순, 박병기, 진달용, 임재해, 박인기, 오정미(2022). **다문화사회의 인문학적 시선.** 서울: 연두출판사

김영천(2013). **질적연구방법론**. 경기도: 아카데미프레스.

김영필(2012). 상호주관적 자아 탐구. **철학논총, 67**, 75-100.

김영혜, 지승희, 김소현(2017). 청소년 상담자가 경험한 친족 성폭력피해자 사례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열린교육연구, 25**, 21-39.

김예실, 이희경(2020).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의 진정성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2), 609-638.

김윤경(2018). **청소년의 누적 가정위험요인과 학교 적응과의 관계: 자기 효능감의 조절효과**. 대구한의대학교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김은영(2009). 보호관찰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심리 사회적 특성, **청소년복지연구, 11**(4). 1-23.

김은하, 백지연(2019). 집단상담 실습수업에서의 리더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상담학연구, 20**(3), 165-189

김은혜(2017). **청소년 위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충남대학교박사학위논문.

김인규, 조남정(2016). 학부 상담교육 인증기준 개발. 상담학연구, 17(6), 87-104.

김정기(1983). 비행청소년의 범죄양상과 음주와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오늘의 청소년, 7**(-), 95-103.

김정업(2019). **숙련상담자의 노년기 자아통합과정에 대한 연구**. 한세대학교박사학위논문.

김정진(2016). 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제안. **입법과 정책, 8**(2), 247-271.

김주휘(2012). 니체의 사유에서 영혼의 위계와 힘의 척도들. **철학사상, 46**(-), 155-184.

김준호 외(2018). **청소년비행론 4판.** 서울: 청목출판사.

김지민, 손진희(2017). 청소년상담 관련 정책 및 지원방안 -비행청소년 분야를 중심으로. **소년정책학회, 30**(1), 33-58.

김지민, 장재홍(2009). 아동, 청소년상담: 청소년 내담자의 애착과 상담기대가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0**(4), 2349-2365.

김지영(2017). **홍익인간 이념 구현을 위한 공존지향 아동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김진구(2017). 초기 청소년기의 또래네트워크가 공격성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또래 공동체 의식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4**(3), 331-347.

김진숙(2001). **예술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Keapa Press.

김혜금, 조혜영(2016). 부모의 방임 학대가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령기 아동의 자아인식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1), 19-36.

김혜미, 오인수(2016) 숙련상담자의 좌절경험 및 극복과정의 구조 분석. **상담학**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연구, 17(5), 159-180.

김혜인, 최한나(2017).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부정적 반응에서의 상담자 자기대화: 상담자 경력에 따른 차이 분석. **상담학연구, 18**(4), 65-80.

김혜진, 김현주(2017). 초보상담자의 중도입국청소년 상담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4**(1), 23-58.

김희원, 권민균(2021).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돌봄윤리로 본 '가족' 그림책의 인물 특징과 돌봄의 의미. **아동교육, 30**(2), 129-152.

나하주, 한영주(2017). 비자발적 청소년내담자와의 치료적 관계형성 과정: 상담자 경험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4**(2), 1-31.

남민영, 이예경(2016). 인물탐구학습기반 모델링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변화에 미치는 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3**(4), 91-119.

남희경(2016). **외상 상담자의 대리외상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박사학위논문.

남희경, 장성숙(2016). 숙련 및 초심 외상 상담자가 지각하는 대리외상의 영향과 대처에 관한 개념도 연구. **상담학연구, 17**(3). 1-22.

노상우, 황혜연, 이진복(2022). 주류문화의 비판적 논점과 타자존중의 다문화교육 - 레비나스의 타자성의 철학을 중심으로 -. **교육종합연구 20**.1, 181-205.

노영수, 변상해(2021). 비행청소년의 대상관계가 자아존중감, 충동성,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교정담론, 15**(1), 287-308.

대검찰청(2021). 『**범죄분석**』 2021.

도현지, 한상철(2020). 청소년의 가정위험요인과 자기 효능감이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심리교육복지, 7**(4), 347-357.

라수현, 김현령, 고홍월(2016). 상담자의 역량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한국상담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6**(8), 508-515.

류재훈, 최윤미, 김령희, 유영만(2017). 하이데거 존재론에 비추어 본 전문성 의미 탐색.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20**(1), 123-149.

맹주만(2019). 레비나스의 윤리적 주체와 공감적 타자. **칸트연구, 44**(-), 35-60.

문장원(2012). 정서, 행동장애 연구: 보호관찰 청소년의 문제행동 특성. **정서・행**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동장애연구, 28(4), 231-245.

민혜숙, 최인화(2019). 학교부적응청소년의 분노조절에 대한 집단상담프로그램 효과. **한국청소년활동연구, 5**(3), 89-115.

박경은(2019). **상담자의 '역전이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평택대학교박사학위논문.

박길성(2012). 연대적 공존에 관한 이론적 탐색: 한국사회의 갈등정치를 넘어.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637-646.

박민철(2011). 헤겔 '타자' 개념의 정치철학적 의미. **통일인문학, 51**, 205-232.

박소연, 유미숙(2021). 비자살적 자해 청소년과의 상담에서 상담자 체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놀이치료연구-한국놀이치료학회, 24**(3), 225-251.

박소현(2021). **비자살적 자해 청소년 상담에서 상담자체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숙명여자대학교박사학위논문.

박애경, 허정경(2015). 학교상담자의 에듀테인먼트 기반 처우 만족도와 소진 분석.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9**(4), 297-304, 10

박은정(2022). **청소년상담자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 과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숙련상담자를 중심으로.** 백석대학교박사학위논문.

박인철(2021). 타자성과 혐오감: 혐오감의 극복을 위한 현상학적 대안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135,** 59-86.

박일태(2019). 『존재와 시간』 속 '양심분석'의 형이상학적 이해지평. **현대유럽철학연구, 0**(53), 202-232.

박찬구(2018). 주체의 철학에서 타자의 철학으로: 노회찬의 죽음을 애도함. 철학과 현실, 149-160.

박현선(2007).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비행 방지를 위한 심리사회적 개입방안.**사회복지리뷰, 12,** 61-81.

박현정(2012). **하이데거 존재 사유에서 유한성의 문제.**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배경임(2017). 본회퍼와 레비나스의 타자성 연구: 다문화사회의 책임윤리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6**(4), 115-131

배대길, 유영달(2022). 보호관찰 청소년 부모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상담수강명령 전·중·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6**(4), 103-129.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서동욱(2022). 타자철학. 서울: 반비.

서동은(2019). 니체철학이 철학 상담에 주는 의미 -『도덕의 계보』를 중심으로 -. **철학・사상・문화, 0**(31), 23-43.

성창기(2020). **헤겔의 절대적 관념론: 칸트 초월적 관념론의 비판적 극복.**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손영창(2014). 간주관성에서 절대적 타자성으로: 사르트르, 레비나스, 데리다에 관해서. **大同哲學 66**(-). 275-302.

송수경(2016). 초보상담자의 첫 사례 상담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P 대학교 상담센터 자원상담자 경험. **대학생활연구, 22**(1), 69-90.

송은미(2005). **청소년 문화축제 참여가 자아정체성과 사회공존지수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박사학위논문.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2004). 질적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신나영(2023). 범죄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심리적 및 환경적 특성의 차이 : 메타분석 연구. **교정담론, 17**(2), 21-57.

신성철, 최성열(2019). 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상담심리교육복지, 6**(3), 59-72.

신인섭(2007). 제 3 의 정신의학 토대로서 메를로-퐁티의 살의 공동체: 신체 현상학의 정신 치료적 함의. **철학, 93**, 209-243.

신혜란(2019). 자원상담원의 보호관찰청소년 상담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21**(3), 35-66.

심홍섭(1998). **상담자 발달수준 평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박사학위논문.

아영아(2015). 비공식낙인이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교정복지연구,** (37), 21-44.

안정화(2022). **중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상담사들의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경상국립대학교박사학위논문.

양유성, 한계수, 조난영(2022). **(상담학 논문 작성을 위한) 내러티브 탐구**. 서울: 학지사.

양준석, 이지원, 김재경, 이정은, 이나영, 김아리, 박훈(2016). 생사학 연구동향과 학문성 모색. **인문과학연구, 0**(49), 435-459.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여성가족부(2021). **『청소년백서』** 2021.

연효숙(2004). 제2부 실천철학: 헤겔의 자기의식에서의 욕망과 인정 그리고 타자. **헤겔연구, 15**, 211-236.

염지숙(2003). 교육 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 (Narrative Inquity) 의 개념, 절차, 그리고 딜레마. **교육인류학연구, 6**(1), 119-140.

염지숙(2009). 유아교육연구에서의 내러티브 탐구: '관계'와 '삼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에 주목하기. **유아교육논집, 13**(6), 235-253.

염지숙(2022). 내러티브 탐구. 조용환 외, **질적연구 전통별 접근**(pp. 109-162), 서울: 학지사.

오예현, 장재홍(2015). 상담자의 공감을 지각하는 청소년 내담자의 경험에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3**(2), 299-319.

오윤서, 장유진(2021). 비자살적 자해 청소년 상담에서의 상담자 개입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9**(1), 175-204.

오윤정(2022). 니체 사상에서의 숭고와 아름다움에 대한 고찰 : 칸트 미학의 창조적 전유 과정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38**(-), 315-341.

오인수, 한혜원, 전은경, 김민정(2022). **도구를 활용한 아동·청소년 상담 기법**. 서울: 학지사.

오효정, 오은경, 김봉환(2012). 상담자의 경력과 사례개념화수준 간의 관계: 인지적 지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2), 255-271.

유상현, 변상해(2018). 중학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우울, 특성분노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9**(6), 251-266.

유승래, 고홍월(2018). 한 여성의 성장 탐색-상담을 통한 어른 되기. **상담학연구 사례 및 실제, 3**(2), 51-67.

유영식(1984). 비행청소년의 담배흡연 상관변인 분석. **오늘의 청소년, 8**(-), 61-75.

유헌식(2016). 헤겔의 경험 개념과 타자. **헤겔연구, 0**(40), 35-56.

윤명희(2017).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의 관계에서 자존감과 자기역량지각의 매개효과.** 가천대학교박사학위논문.

윤상미(2012). **청소년비행의 회복을 위한 성격적 상담.** 총신대학교 박사학위논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문.

윤정훈, 김명희, 천성문(2021). 상담자 성찰 훈련프로그램이 초보상담자의 어려움, 상담자 자기성찰 및 상담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인문사회과학연구, 22**(3), 355-381.

윤혜경(2020). **기혼 여성상담자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박사학위논문.

이관춘(2021). **평생교육철학**, 서울: 학지사.

이동성(2011). 하이데거의 현존재와 언어. **동서언론, 14**, 73-98.

이명숙, 한영선, 손외철(2017). **교정의 심리학**. 서울: 솔과학

이명우, 박정민, 이문희, 임영선(2005). 사례개념화 교육을 위한 상담전문가의 경험적 지식 탐색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277-296.

이미나(2021). 황정은 소설에 나타난 '공감'의 사유와 '공존(共存)'하는 연대의 가능성. **인문과학연구, -**(42), 1-27.

이미리, 김춘경, 여종길(2019). **청소년 심리 및 상담.** 서울: 학지사.

이민수, 조한익(2023). 중급 상담자의 상담과정에서의 진정성 경험에 관한 합의적 질적연구. **교육치료연구, 15**(1), 1-27.

이민용(2015). 트라우마, 기억, 정신분석학 그리고 내러티브 치료. **뷔히너와 현대문학,** (44), 217-246.

이부영(2011). **분석심리학**. 서울: 일조각.

이상인(2018). **청소년의 탈비행 촉진 요인에 관한 근거이론적 연구.** 광운대학교박사학위논문.

이서규(2013). 하이데거와 사르트르의 타자개념에 대한 고찰. **동서철학연구,** (69), 531-559.

이성환(2014). 사르트르 속의 헤겔: 사르트르의 대타존재론. **철학논총**, (78), 465-492.

이승종(1997). 투사적 존재로서의 타자. **철학연구, 40**(), 111-126.

이승훈(2021). '혐오 시대' 넘어서기. **사회사상과 문화. 24**(1), 117-152.

이완희, 유완석(2014). 청소년 지위비행에 관한 분석적 연구: 청소년 비행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39), 217-239.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이윤정, 박미화(2014). 초등학생의 대인관계성향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귀인성향의 매개효과. **발달지원연구, 3**(2), 121-140.

이윤주(2001). 상담 사례개념화 요소목록 개발 및 수퍼비전에서 중요하게 지각되는 사례개념화요소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79-93.

이윤호(2019). **청소년 비행론.** 서울: 박영사.

이윤희(2015). **상담자가 인식한 청소년 인터넷중독 증상: 개념도 방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이은미, 강혜정(2021). 보호소년의 '말하지 못하는 주체'의 공격성에 관한 목회상담학적 접근. **신학과 실천, 74,** 587-613.

이은영(2015). **아동상담자의 조기종결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박사학위논문.

이자영, 정경은, 하정희(2021). **청소년 문제와 보호 2판.** 서울: 학지사.

이장호(2011). **상담심리학 4판**. 서울: 박영사.

이정임(2020). **비행청소년의 복합외상경험이 자기통제력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백석대학교박사학위논문

이종주(2011). 후설의 타자이론의 근본화로서 메를로-퐁티의 타자이론-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 을 중심으로. **인문논총,**(65), 85-132.

이종주(2022). 현상학적 근거이론의 철학적 패러다임 정립-듀이의 경험과 메를로-퐁티의 지각개념의 비교를 중심으로. **철학사상,** (83), 177-215.

이주영, 이아라(2015). 학교폭력 가해자 대상 상담에서의 상담자 경험과 인식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4), 849-880.

이준호, 박문현(2018). 수퍼비전에서 발생하는 병행 과정에 대한 정신분석적 연구: 상호주관성을 중심으로. **목회와 상담, 30**(-), 211-243.

이현림 외(2019). **청소년 비행과 상담 2판.** 경기도: 교육과학사.

이현주, 김수진(2022). 자살 위기개입 상담자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 모성(母性)을 담은 상담자 되어가기. **효학연구, 36**, 45-69.

임상희(2018). 비혼 아동상담자의 상담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인문사회 21, 9**(1), 621-632.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임선아(2018).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경험과 학교적응: 자아탄력성과 도움을 주는 어른의 보호역할 검증. **아동과 권리, 22**(2), 195-214.

임지혜(2017). **하이데거의 더불어 있음에 대한 사회존재론적 해석**. 경북대학교박사학위논문.

임진영(2016). **놀이치료자의 자녀 양육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박사학위논문.

임한나, 이주희(202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상 (Self-Image) 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9**(1), 57-74.

임현진(2017). 타인과 더불어 있음의 현사실성 - 하이데거의 실존범주 “심려” -. **철학논집, 51**(-), 183-212.

장동진, 원지혜, 윤현준(2018). 초보상담자의 상담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 질적연구. **한국상담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8**(8), 351-351.

장미연, 김원중(2016). Winnicott 이론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보호관찰 청소년의 공격성, 자기조절능력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보호관찰, 16**(1), 91-129

장선숙(2019). **위기청소년기 경험자의 ‘의미있는 타자’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성산효대학원박사학위논문.

장유진(2021). 숙련상담자들의 사례개념화 및 상담개입전략 수립에 관한 질적연구. **교육문화연구, 27**(1).

전수경(2016). 상담심리전문가들이 경험을 통해 지각된 숙련상담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 **가족과 상담, 6**(1), 23-41.

전은숙, 김혜진(2022). 가족치료사의 ‘상담사로서의 자기’ 의 이해와 활용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부부가족상담연구, 3**(2), 17-42.

전자배(2019). 집단적 맥락에서 바라본 따돌림 양상 및 개선방안. **시민교육연구, 51**(1), 207-238.

전종윤(2023). ‘타인-나’ 의 관계와 교육적 관계 연구. **리터러시 연구, 14**(1), 371-406.

정누리(2019). **청소년의 비행태도와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요구.** 광주대학교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정문주, 조한익(2016). 상담자 발달과 관련 요인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및 상관관계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17**(6), 141-164.

정상화, 금명자(2020). 상담자의 발달수준에 따른 윤리적 행동문제의 이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2), 725-752.

정슬기, 이계성, 이재경, 김지선, 김수룡(2015). 성인 및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정신건강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보호관찰, 15**(2), 87-129.

정승민(2016). 공격성과 폭력비행, 사회적 요인의 관계에 관한 고찰. **한국범죄심리연구, 12**(2), 1-24.

정옥분(2015). **전생애 인간발달의 이론.** 서울: 학지사.

정옥신(2019). 상담과정 기반의 학교상담자 셀프 수퍼비전 모형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1), 77-99.

정인주, 김보영(2015). 또래상담훈련 프로그램이 대인관계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9**(1), 109-117.

정정호(2001). 사르트르, 부버, 레비나스의 타자론: 주변부 타자 문학론을 위한 시론. **새한영어영문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8-16.

정진(2021). 온라인 교육목회 리더십: 코로나19, 정보과잉, 외로움 3가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교회목회 리더십. **교육교회, 507**(-), 19-26.

정진(2022). **청소년의 탈비행화 진단척도 개발 및 타당화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박사학위논문.

정혜신(2018). **당신이 옳다.** 서울: 해냄출판다

정화정, 김영순(2022). 인문융합치료학 박사과정생의 학문적 성장에 관한 자문화기술지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65**(4), 85-130.

조극훈(2018). 헤겔의 『법철학』에 나타난 범죄와 형벌의 교정학적 의미. **교정담론, 12**(1), 113-136.

조순아(2021). **자해 청소년들을 위한 행동상담의 기독교적 적용.** 서울성경신학대학박사학위논문.

조영달(2015). **질적연구방법론: 실제편**. 서울: 도서출판 드림피그.

조은희, 천성문(2021). 청소년상담 수퍼바이저 발달과정. **상담학연구, 22**(4), 289-326.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조재식, 김영천, 허창수(2006). 교육학/교육과정 연구에서 질적연구자가 고려해야 하는 타당도 이슈들: 그 다양한 접근들의 이해. **교육과정연구, 24**(1), 61-96.

조종화(2014). 1부 헤겔논문: 헤겔과 레비나스의 타자성 개념 비교. **헤겔연구, 0**(35), 113-157.

주은선(2019). 상담자의 자기 성찰을 위한 포커싱 포토치료 작업. **인문사회 21, 10**(1), 731-745.

진보겸, 금명자, 주은선(2019). 실제관계 (Real Relationship) 에 관한 상담전문가의 인식과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2), 373-401.

최경섭(2011). 후설과 헤겔: 초월론적 지역현상학의 방법으로서 환원, 변증법, 해석. **철학, 107,** 89-121.

최남식, 박기환(2020).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자녀 간 의사소통 및 애착관계 비교 연구: 소년보호처분 아동보호치료시설(6호 처분) 위탁청소년, 일반 청소년을 중심으로. **社會科學硏究, 36**(-), 107-140.

최민정, 홍지선, 안숙자(2023). 중급상담자의 '정서전염'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8), 505-524.

최상욱(2019). **하이데거 vs 레비나스.** 서울: 세창출판사

최승은(2015). **상호문화교육의 관점에서 본 초등교사의 음악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박사학위논문

최윤미, 양난미, 이지연(2002). 상담자 소진 내용의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3), 581-598.

최인화(2007). **청소년내담자의 애착이 작업동맹 및 상담성과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박사학위논문.

최지원(2017). 은유를 활용한 내러티브 수퍼비전을 통한 상담자의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8**(2), 179-212.

최재식(2009). 신체개념을 통한 메를로 - 퐁티 현상학과 후설 현상학 연구. **현상학과 현대철학, 40**, 1-33.

최현주(2020). 니체와 듀이의 삶 철학과 그 교육적 의미 : 니체의 '자기 극복'과 듀이의 '자기 갱신'을 중심으로. **교육철학, 74**(-), 77-116.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최혜경, 전주성(2021). 청소년기 학생의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 의식 간의 종단적 관계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39**(1), 25-43.

하정(2016). 상담전문가의 역전이 관리 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2), 311-337.

한우재, 정인관(2021). 부모양육방식, 또래영향, 지역사회환경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학업중단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6,** 57-80.

한병철(2012). 피로사회. 서울: 문학과 지성사.

현다경(2017). **청소년의 가정환경, 친구관계, 교육환경 및 지역사회환경이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박사학위논문.

현명선, 김경희, 김선아(2004).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용인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4**, 252-260.

현희주, 신애자(2020).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상담자 발달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군사학논집, 76**(2), 151-180.

홍지선(2018). **상담자가 상담관계에서 경험한 진정성 발현과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홍지영, 유정이, 김진희(2018). 청소년상담자의 상담기록 생성, 관리, 폐기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9**(1), 61-92.

Ahn, H. N., & Wampold, B. E. (2001). Where oh where are the specific ingredients? A meta-analysis of component studies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3), 251.

Akers, Ronald L. (2013). Criminological theories : introduction, evaluation, and application. 민수홍 외 역(2017). **범죄학 이론.** 경기도: 나남.

Allen, J. G.(1995). Coping with Trauma: A Guideto Self-Understanding.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Allen, J. G.(2010). Coping with trauma hope through understanding. American Psychiatric Pub.

Allen, J. G.(2013). Mentalizing in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attachment trauma, London: Karnac Books Ltd.

Auxier, C. R., Hughes, F. R., & Kline, W. B. (2003). Identity development in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counselors-in-training.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43*(1), 25-38.

Barnett, M. (2007). What brings you here? An exploration of the unconscious motivations of those who choose to train and work as psychotherapists and counsellors. *Psychodynamic Practice, 13*(3), 257.

Barthes, R. (1966). Introduction to the structural analysis of the narrative.

Brandon, N. (1969). The Psychology of Self-Esteem Los Angeles. Nash Publishing Co.

Bruss, K. V. & Kopala, M. (1993). Graduate school training in psychology: Its impact upon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 identity.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30*(4), 685.

Bugental, J. (1978). Psychotherapy and process: The fundamentals of an existential- humanistic approach. Boston, MA: McGraw-Hill.

Cahalan, K. A., & Miller-McLemore, B. J. (2017). Calling all years good: Christian vocation throughout life's seasons. Wm. B. Eerdmans Publishing.

Carr, M. B., & Vandiver, T. A. (2001).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mong youth offenders. *Adolescence, 36*(143).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소경희, 강현석, 조덕주, 박민정 역(2007). **내러티브 탐구: 교육에서의 질적연구의 경험과 사례.** 파주: 교육과학사.

Clandinin, D. J. (2013). Engaging in Narrative Inquiry. 염지숙, 강현석, 박세원, 조덕주, 조인숙 역(2015). **내러티브 탐구의 이해와 실천.** 파주: 교육과학사.

Clandinin, F. D. & Roseik, J. (2007). Handbook of narrative inquiry: Mapping a methodology. 강현석 등 역(2011). **내러티브 탐구를 위한 연구방법론.** 파주: 교육과학사.

Corey, G., Corey, M. S. & Callanan, P. (2007). Issues and ethicsin the helping profession. 서경현, 정성진 역(2008). **상담 및 심리치료 윤리.** 서울: 시그마프레스.

Creswell, J. W. (2016).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역(2021). **질**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적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Dastur, F. (2016). Love and the Question of the Other in Heidegger's Thinking. *Journal of the British Society for Phenomenology, 47*(2), 145-158.

Downey, C. A., & Clandinin, D. J. (2010). Narrative inquiry as reflective practice: Tensions and possibilities. Handbook of reflection and reflective inquiry: Mapping a way of knowing for professional reflective inquiry, 383-397.

Duncan, B. L. & Reese, R. J. (2016). Using PCOMS technology to improve outcomes and accelerate counselor development. Using technology to enhance clinical supervision, 135-156.

Ericsson, K. A. & Lehmann, A. C. (1996). Expert and exceptional performance: Evidence of maximal adaptation to task.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7,* 273-305.

Frankl, V. E. (1985). Ein Psycholog erlebt das Konzentrationslager. 이시영 역 (1995), **죽음의 수용소에서.** 서울: 청아출판사.

Frick, P. J. & Dickens, C. (2006). Current perspectives on conduct disorder, Current psychiatry reports, 8(), 59-72.

Schmitt. G. (1934). The concept of being in Hegel and Heidegger. 조관홍, 오용득 역(1996). **헤겔과 하이데거.** 서울: 이문출판사.

Gaylord, M. S. & Galliher, J. F. (2020). The Criminology of Edwin Sutherland. Routledge.

Giddens, A.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후기 현대의 자아와 사회.** 새물결 역 (2010), 서울: 새물결.

Glaser, B. & Strauss, A. (1999).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1st ed). Routledge.

Goodyear, R. K. (1997). Psychological expertise and the role of individual differences: An exploration of issue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9,* 251-265.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Gottfredson, M. R., & T. Hirschi.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isity press.

Grant, A. M., Franklin, J., & Langford, P. (2002). The self-reflection and insight scale: A new measure of private self-consciousnes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0*(8), 821-835.

Griffith, B. A., & Frieden, G. (2000). Facilitating reflective thinking in counselor education.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40*(2), 82-93.

Guba, E. G. & Lincoln, Y. S. (1989).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Guindon, M. H. (2011). A counseling primer: An introduction to the profession. Routledge.

Gutierrez, D., Fox, J., Jones, K. & Fallon, E. (2018). The treatment planning of experienced counselors: A qualitative examinat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6*(1), 86-96.

Heidegger, M. (1979). Sein und zeit. 이기상 역(1998). **존재와 시간.** 서울: 까치글방.

Heidegger, M. (1975). The basic problems of phenomenology. 이기상 역(1994). **현상학의 근본 문제들.** 서울: 문예출판사.

Heider, F. (1958). The naive analysis of action.

Hill, C. E. (2009). Helping skills: Facilitating exploration, insight, and ac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ogan, R. A. (1964). Issue and approaches in supervision.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 139-141.

Hoyt, W. T. & Bhati, K. S. (2007). Principles and practices: An empirical examination of qualitative research in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ology. *Jouranl of Conunseling Psychology, 54*, 201-210

Hutchins, R. M. (1999). The higher learning in America.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0*(5), 524-532.

Jennings, L. & Skovholt, T. M. (1999). The cognitive, emotional, and relational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characteristics of master therapis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1), 3.

Jennings, W. G., Higgins, G. E., Akers, R. L., Khey, D. N. and Dobrow, J. (2013). Examining the Influence of Delinquent peer Association on the stability of Self-Control in Lat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Towary an Integrated Theoretical Model, *Deviant Behavior, 34*.(5), 407-422.

Jensen, Frances E. (2014). Teenage brain : a neuroscientist's survival guide to raising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김성훈 역(2019). **10대의 뇌.** 경기도: 웅진지식하우스.

Kandinsky, W. (1979). Über das Geistige in der Kunst. 권영필 역(2019).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파주: 열화당.

Kim, D. M., Wampold, B. E., & Bolt, D. M. (2006). Therapist effects in psychotherapy: A random- effects modeling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Treatment of Depression Collaborative Research Program data. *Psychotherapy Research, 16*(02), 161-172.

Kottler, A. J. (2010). On Being a Therapist, 4th Edition. 이지연, 황진숙 역(2014). **상담자가 된다는 것.** 서울: 학지사.

Lacan, J.(1994). The theory of desire. 민승기, 이미선, 권택영 역(1995). **욕망이론.** 서울: 문예출판사.

Lambert, M. J., & Okiishi, J. C. (1997). The effects of the individual psychotherapist and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4*(1), 66.

Laub, J. H., & Sampson, R. J. (2003). Shared beginnings, divergent liv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Levinas, E. (1995). Altérité et transcendance. 김도형, 문성원 역(2020). **타자성과 초월.** 서울: 그린비출판사.

Levinas, E. (1982). De Dieu qui vient à l'idée.

Löwith, K. (2011). Meaning in history: The theological implications of the philosophy of histo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MacCallum, J. & Beltman, S. (2002). Role models for young people: What makes an effective role model program.

Miller, G. L. (1959). Use of dinitrosalicylic acid reagent for determination of reducing sugar. *Analytical chemistry, 31*(3), 426-428.

Moutsopoulou, C. A. & Mallouchou, A. (2022). Mitigation of Juvenile Delinquency Risk Through a Person-Centered Approach: The Intervention of Juvenile Probation Services. In Research Anthology on Interventions in Student Behavior and Misconduct. 583-595. IGI Global.

Murray, J. & Farrington, D. P. (2010). Risk factors for conduct disorder and delinquency: Key findings from longitudinal studies.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5*(10), 633-642.

Noddings, N. (1984). Caring: A feminine approach to ethics & moral educ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Norcross, J. C. & Wampold, B. E. (2011). Evidence-based therapy relationships: research conclusions and clinical practices. *Psychotherapy, 48*(1), 98.

Orlinsky, D. E., & Rønnestad, M. H. (2005). How psychotherapists develop: A study of therapeutic work and professional growth.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rlinsky, D. E., Strauss, B., Rønnestad, M. H., Hill, C., Castonguay, L., Willutzki, U. & Carlsson, J. (2015). A collaborative study of development in psychotherapy trainees. *Psychotherapy Bulletin, 50*(4), 21-25.

Pistole, M. C. (1999). Caregiving in attachment relationships: A perspective for counselor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7*(4), 437-446.

Reid, A., Dahlgren, L. O., Petocz, P. & Dahlgren, M. A. (2008). Identity and engagement for professional formation. *Studies in Higher Education, 33,* 729-742

Rogers, C. R. (1980). A way of being. 오제은 역(2007). **사람 중심 상담.** 서울: 학지사.

Rønnestad, M. H., & Skovholt, T. M. (2001). Learning arenas for professional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development: Retrospective accounts of senior psychotherapist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2*(2), 181.

Satir, V. & Baldwin, M. (1983). Satir step by step: A guide to creating change in families. Palo Alto: Science & Behavior Book.

Schmidt, C., & Adkins, C. (2012). Understanding, valuing, and teaching reflection in counselor education: A phenomenological inquiry. *Reflective Practice, 13*(1), 77-96.

Serin, R. C., & Lloyd, C. D. (2009). Examining the process of offender change: The transition to crime desistance. *Psychology, Crime & Law, 15*(4), 347-364.

Skovholt, T. M. (2001). The resilient practitioner. 유성경, 유정이, 이윤주, 김선경 역(2003). **건강한 상담자만이 남을 도울 수 있다.** 서울: 학지사.

Skovholt, T. M., & Rønnestad, M. H. (1992). Themes in therapist and counselo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0*(4), 505-515.

Schön, D. A. (1983). The Reflective Practitioner: How Professionals Think in Action, U. S. A., Basic Books.

Sussman, M. B. (2007). A curious calling: Unconscious motivations for practicing psychotherapy. Jason Aronson.

Toronto, Joan C. (2013). Caring democracy: Markets, Equality, and Justice. New York : New York University of Press. 김희강, 나상원 역(2014). **돌봄 민주주의.** 서울: 아포리아.

Urofsky, R. I. (2013). The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counseling and related educational programs: Promoting quality in counselor educat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1*(1), 6-14.

Walzer, M. (1997). On Toleration, Yale Univ, Press.

Webster, L. & Mertova, P. (2007). Using narrative inquiry as a research method: An introduction to using critical event narrative analysis in research on learning and teaching. Routledge.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Woodside, M., Franks, G., & Petriu, D. C. (2007). The future of software performance engineering. In Future of Software Engineering. (FOSE'07). 171-187. IEEE.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Abstract

A Narrative Inquiry on the Counselling Experience for Juvenile Delinquents by Experienced Counselors: Based on the Practice of Otherness

Hwajung Jung
Ph. D. Dissertation
Directed by Dr. Youngsoon Kim
Dept. Humanities Convergence Therapy
Inha University February, 2024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the experience of experienced counselors in counseling juvenile delinquents and revealing what meaning that experience has in counseling juvenile delinquents. Through this, we hope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counseling for juvenile delinquents and help establish the counselor's identity in the role of counselor. In addition, by providing a diverse perspective on counseling for juvenile delinquents, it is possible to provide educational design data necessary for the professional growth of counselors. The study began with the researcher, a counselor who counsels juvenile delinquents,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counseling and wondering, 'What would it have been like for an experienced counselor?' The researcher chose narrative inquiry as a research method to address how the personal and professional knowledge of research participants was embodied in a highly relational and participatory manner. The research puzzle of this study was structured as follows. The research puzzle is '1. What experiences do experienced counselors have in counseling juvenile delinquents?', '2. What is the meaning of experienced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counselors' experience counseling juvenile delinquents?'

The research participants are experienced counselors with more than 10 years of experience in counseling juvenile delinquents, and are five people whose counseling of juvenile delinquents accounts for more than 30% of all counseling cases. Research Participant [A] has 14 years of counseling experience and worked as a counselor at a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 before recently becoming the center's director. [B] worked as a counseling team leader at a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 and has 14 years of counseling experience. He recently moved to a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but continues to provide counseling to juvenile delinquents. [C] is a professor of social welfare at a university, has 24 years of counseling experience, and has been providing group therapy at juvenile detention centers for a long time. [D] is a freelance counselor with 12 years of counseling experience, and provides lectures and consultations related to delinquency at courts, police stations,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s, etc. [E] used to work as a freelancer like [D], but recently became an employee of the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 due to the coronavirus outbreak and has 12 years of experience.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November 18, 2022 to March 17, 2023. The interviews were conducted as one written interview and two in-depth interviews, and the interview time was 120 to 180 minutes.

The research results corresponding to the first research puzzle are in Chapter Ⅳ, and the contents are as follows.

[A]' s narrative is 'Finding the counselor' s identity.' His experiences include 'the transformation of a loser who only sucked his fingers', 'a stable environment for safe counseling', 'confusion between educators and counselors', 'if we can become one seed', 'counseling is still not easy', 'I am It was analyzed as 'Is he a good counselor?' When he started counseling juvenile delinquents, he had questions about why they were like that. He acted as an educator to correct the children's misbehavior, but as he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became more distant from the children, it was difficult to form a counseling relationship. As he became more skilled, he came into contact with the real lives of children hidden under the name of delinquency, and as he came to understand their lives, he was able to accept their actions as well. He went on to find his role identity as a good counselor in his own narrative.

[B]' s narrative is 'my own philosophy learned from clinical practice.' His experiences include 'wielding a weapon called disappointment', '100 knife marks and 90% frustration', 'children searching for answers', '25 days of judgment and new challenges', 'if only I had the strength to do it', ' It was analyzed as 'What if it' s not cool?' He talked about how his experience as a juvenile delinquent led him to become a counselor after some reflection, and he revealed that his past experiences created his philosophy and attitude toward delinquency as a counselor.

[C]' s narrative is 'the drama of a new life.' His experiences include 'being crushed by the weight of understanding', 'hope blooming in a miserable scene', 'abandoning culture and making eye contact', 'confusion of identity and role', 'worry and anxiety become a slump', 'different It was analyzed under the theme of 'taking care of myself through the world' . In constructing his narrative, [C] revealed that his life, which seemed ordinary to others but was internally chaotic, changed through counseling. He said that he continues his work with the hope that his children will live the same life as he did.

[D]' s narrative is 'the weight of repeated exhaustion.' His experiences include 'the path of a counselor found in confusion', 'struggling with ambiguous ethics and responsibilities', 'the kick of a swan embracing hope', 'fear that comes despite familiarity', 'wisdom found in the limitations of one's role', and 'frustration'. It was analyzed as the theme of 'a helpless guardian caught in a swamp'. He was recently going through a crisis due to severe burnout, but he could not let go of work while thinking of his children.

[E]' s narrative is 'reconciliation achieved through counseling.' His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experiences include ‘Transition from Center Director to Beginner Counselor’, ‘Understanding the Anger of Children’ It was analyzed as the theme of ’reflection increased by the time of counseling.’ Through counseling, he recovered from his childhood wounds that seemed inextricable and experienced reconciliation with his family. He helped children have the same experiences as him through counseling.

The research results corresponding to the second research puzzle are in Chapter V and the contents are as follows.

Chapter V is the result of exploring the meaning of the experiences expressed in experienced counselors’ counseling of juvenile delinquents. The meaning of the experience expressed in the counseling of juvenile delinquents by experienced counselors was ‘understanding and empathy,’ ‘unlimited respect,’ and ‘solidarity and cooperation.’ Understanding and empathy contain the meaning of change in participants’ perception and empathy in counseling for juvenile delinquents. In counseling for juvenile delinquents, research participants discovered a point where the lives of youths called perpetrators intersect with the lives they lived as victims. Afterwards,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able to understand and sympathize with the difficulties and needs of juvenile delinquents. Infinite respect means that counselors respect the uniqueness and individuality of clients, believe in their value and potential, and provide help even while experiencing burnout during the counseling process. Research participants came to recognize that setting boundaries in counseling relationships with juvenile delinquents is not a way to draw a line with juvenile delinquents, but a way to fully respect them. This does not mean trying to modify the client’s world in the way the counselor wants, but rather giving the client the opportunity to make changes through their own power while being fully respected. Solidarity and cooperation suggested that juvenile delinquency should not be seen as the unilateral responsibility of parents, but rather that it is a problem that our society and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nation must solve together.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researcher discussed the conclusions in the context of personal justification, practical justification, and social justification. First, the researcher's personal justification began with the fact that the researcher, who had experienced difficulties in counseling juvenile delinquents, was curious about the experiences of experienced counselors. Through this study, the researcher was able to gain a more diverse understanding of personal and professional knowledge in counseling juvenile delinquents. Second, practical justification is a discussion of the practicability of this study. The researcher paid attention to how the participants understood their experiences and what meaning they gave to those experiences. Research participants conveyed the voices of counseling sites where mutual agreement was reached despite diverse experiences. The results showed the themes of 'policy support', 'integrated care', and 'professional manpower training'. Third, social justification provided policies to prevent the professionalism and burnout of counselors who counsel juvenile delinquents, education to reduce re-delinquency of juvenile delinquents, and theories for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Counselors who counsel juvenile delinquents showed the hardships of the reality of not being able to guarantee basic rights due to the treatment of counselors and the absence of legal regulations. The research participants concluded that in order to provide high-quality counseling, improvements in treatment were needed in the areas of recognition of expertise, compensation system, working environment, and administrative support. Additionally, research participants found that juvenile delinquents had difficulty understanding and expressing emotions, and emphasized the need for educational programs on emotion recognition and communication skills. Lastly, in order to prevent juvenile delinquency, it was proposed to break away from the competitive education system and provide opportunities to develop various potentials such as art education, sports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activities, and volunteer activities.

Suggestions for follow-up research based on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f delinquency is studied in detail according to severity, specialized research results for each type of delinquency will be derived. Second, if we recruit participants by counseling experience rather than counselors with more than 10 years of experience, we will be able to se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counselor's development stage more clearly. Third, this study brought otherness into the researcher's theoretical lens, but if various counseling and philosophical lenses on delinquency are used, results can be obtained from a new perspective. Lastly, the researcher of this study is also a counselor who counsels juvenile delinquents, so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n insider's perspective was involved. If the follow-up study is conducted from an external perspective, it is expected that more objective and reliable results will be obtained.

Keywords: Juvenile delinquency, juvenile delinquency, counseling for juvenile delinquents, skilled counselor, Skilled counselor, narrative inquiry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부록 1> 연구설명문 및 참여 동의서

연구설명문 및 참여 동의서

연구 제목	비행청소년 상담에 나타난 숙련상담자의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인문융합치료적 해석
연구 기관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 인문융합치료학과
연구자 정보	연구자: 정화정 박사과정 (연락처, 이메일)
	공동연구자: 김영순 교수 (연락처, 이메일)

연구 참여 권유

본 연구자는 귀하에게 [비행청소년 상담에 나타난 숙련상담자의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시길 요청합니다. 본 설명문은 연구 참여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연구의 목적, 내용, 위험(불편감), 이익, 귀하의 정보를 포함한 자료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읽으신 후 궁금한 점이나 분명치 않은 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청소년 비행 문제는 점차 저연령화, 집단화, 조직화의 특성을 나타내며 습관적이고 관습적인 방식으로 성인 범죄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적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청소년 비행은 가족이나 친구, 학교,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관계가 취약한 경우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복합외상은 높은 공격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현대 비행심리학에서는 여러 요인으로 위기에 노출된 청소년기를 보냈어도 성인 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위기의 경험을 성장의 동기로 활용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탈 비행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위기의 순간 그들의 손을 잡아 주었던 '의미있는 타자' 즉, '대체부모' 혹은 '역할 모델'이며 '가족의 역할 모델'을 해준 타인과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타인과의 접촉 경험은 사고와 인식이 변화시켜 자기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행동이 달라지도록 도왔습니다. 비행청소년 상담에서 상담자는 훈육과 긍정 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 성공적인 상담의 도구이기에 상담의 성과를 높이는 만큼 상담자의 발달과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의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청소년의 상담은 청소년만의 독특한 발달적·상황적 특성으로 성인 상담에 비해 까다롭고 상담의 효과 또한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비행청소년 상담의 경우는 더욱 상담자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비행청소년 상담의 독특성과 어려움은 또 다른 차원에서 상담자의 자기 통찰과 성장, 전인적 실천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 상담을 지속한 숙련상담자의 상담 환경을 이해하고 상담자가 그 상황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 정보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숙련상담자의 관점에서 기술된 연구는 상담의 과정에서 상담자가 경험하는 생각과 감정, 상담자의 발달과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상담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질 높은 상담을 위한 구조화나 보수교육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향후 비행청소년 상담 분야의 전문성 발전을 도울 것입니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연구이며 연구 기간은 IRB심사 통과 후 12개월(2023년 10월 23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숙련상담자의 비행청소년 상담자 경험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5명의 연구참여자에게 각 회에 약 60-12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3차 면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차는 서면면담지를 제공하고 자료수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차 자료수집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이후 수집자료를 분석하여 상담자의 경험 유형을 도출하고 연구참여자들과의 1:1의 면담을 통해 개인별로 2차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지를 기본으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나 연구참여자로부터 본 연구와 관련된 심층적 이야기가 발전될 경우, 공동연구자와 검토, 상의한 후 추가 질문 문항은 조절될 수 있습니다. 3차 면담은 부족한 내용 보충이 필요한 경우 진행할 예정입니다. 녹취된 내용은 전사하여 녹취파일과 함께 이메일로 전달하여 귀하에게 검토 및 수정 절차를 가질 것입니다.

3. 불편감, 위험 및 이익 가능성

본 연구에 참여해 주시는 경우 신체적, 심리적으로 예상되는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적 할애를 통한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면담을 진행하는 장소와 시간은 연구참여자 편의에 맞추어 원하는 시간에 연구자가 방문할 예정입니다. 사례는 모든 면담이 종료 후 소정의 상품권(10만원 상당)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4. 연구참여와 중지

본 연구는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며, 비록 연구 참여를 시작하여 진행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고, 연구 참여동의서 또한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 후에도 마음이 바뀌는 경우, 언제라도 연구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참여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셔도 불이익이나 피해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참여자의 동의 철회 시 수집된 모든 연구자료(개인정보, 구술자료 등)는 즉각 폐기하고 연구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서면을 작성하여 안내합니다. 또한 연구자 측의 사정으로 연구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5. 개인 정보 및 비밀보장

본 연구를 위해서 귀하의 면담내용 및 개인정보 등이 수집됩니다. 본 정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보는 해당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며 연구에 귀하의 신원이 드러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기록은 비밀을 보장하며, 이후 연구결과가 출판되더라도 귀하의 신상정보는 비밀을 원칙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심층면접 자료수집 중의 비행청소년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도록 녹음파일, 축어록, 출판물 등을 관리할 것이다. 또한, 연구참여자(상담자)와 면담 시 상담대상자(청소년)에 대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면담자료로 녹취된 파일이나 전사기록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 15조(인간대상연구의 기록 및 보관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됩니다. 연구의 결과가 출판되는 경우 출판물을 연구참여자에게 전달할 것이며, 연구참여자가 열람을 희망하는 경우 학술연구 정보서비스(www.riss.kr)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며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연구 관련 문의:

연구 관련 문의는 연구자에게, 대상자의 안녕 및 권익에 대한 문의는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032-860-9158)로 합니다.

귀하께서 연구 참여에 동의한다면 아랫부분에 서명해 주십시오.

연구참여자 성명		서명		서명일	
연구자 성명		서명		서명일	